

NPO Trend Report

지원의 힘

NPO Trend Report
지원의 힘

www.snpo.kr

서울시 NPO 지원센터

서울시 NPO 지원센터

www.snpo.kr

서울시 NPO 지원센터

NPO Trend Report

지원의 힘

Contents

독일 008

- ① **InnovationCity Management GmbH**
실험을 통한 탄소제로 도시모델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 Model City Bottrop
- ② **ThEGA**
ThEGA, 튀링겐 재생에너지와 탄소제로도시 전환을 준비하는 디지털 및 그린테크 전문가그룹
- ③ **Technologie-Netzwerk Berlin eV(TechNet)**
베를린, '스타트업 도시'에서 '사회혁신 도시'로

남미 028

- ① **Fundo Municipal dos Direitos da Criança e do Adolescente (FUMCAD)**
브라질의 세금기부 지방정부 기금
- ② **Consejo Para la Transparencia**
칠레의 독립성 강한 정보공개 플랫폼 기관
- ③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칠레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네덜란드 042

- ① **Sponsorkliks**
구매가 곧 기부가 되는 스폰서클릭!
- ② **ECNL(European Center for Not For Profit Law)**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ECNL
- ③ **PARTOS**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민간 플랫폼, 파토스!

캐나다 054

- ① **Community Futures Network of Canada**
지역 경제 활성화로 만들어가는 미래
- ② **Canadian Urban Institute (CUI)**
도시계획은 모두의 것이다
- ③ **Toronto Community Housing**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세입자 참여예산!

영국 066

- ① **London Funders**
런던의 시민 공동체를 위한 효과적인 펀딩을 고민하는 런던 펀더스
- ② **Action Together**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역기반 조직 액션 투게더
- ③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공동체 자산 활용으로 지역 활동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

대만 084

- ① **Open Culture Foundation**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행동주의
- ② **goV**
분산된 시민 기술 커뮤니티, "아무도 goV를 대표할 수 없다"
- ③ **Found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aiwan**
청년의 미래는 대만의 위대한 미래

호주 100

- ① **TACSI**
사람들이 보다 연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면, 호주 사회혁신 센터로 오세요
- ② **Justice Connect**
활동과 법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보노 단체가 필요해
- ③ **VCOSS : Victorian Council of Social Service**
지방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기여하고 싶다면, VCOSS의 회원이 되세요

동유럽 116

- ① **Prague Civil Society Centre**
기술과 캠페인이 만난다면?
- ②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Civil Society in Albania**
알바니아 NGO '무엇이든 물어보살'
- ③ **National Foundation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시끌법잡(시민사회를 위해 쓸 데 있는 법제도 잡학사전)'

미국 128

- ① **501Commons**
현장의 작은 필요를 연대의 힘으로 해결하며 성장한 비영리·공익 활동 지원 생태계
- ②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비영리·공익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영리·공익 활동 활성화 문화 및 생태계 조성
- ③ **Fast Forward**
기업이 함께 키우는 비영리 스타트업. 영리와 비영리 우린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키운다!
- ④ **Halcyon**
기업의 자산과 역량을 줄게, 사회적 성과를 실현해다오

인도·인도네시아 156

- ① **Care Indonesia**
현지 상황에 따라 지역의 NGO를 활성화한 국제 NPO
- ② **Globalgiving in India**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서로 연결되어 영감을 얻고
- ③ **NGO Support Center (India)**
비영리단체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지원하다



The Power of Support

[지원의 힘]은 시민사회·공익활동 관련 새로운 흐름과 사례, 정보를 소개하는 NPO 트렌드 리포트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리포트는 비영리 활동과 사회변화를 NPO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기록하여 공익활동 트렌드를 분석하고 공유합니다.

2022년 리포트는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의 지원조직을 소개합니다. 국가별 리포터 10명이 각 기관 현황을 전합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사회현상 속에 이를 대응하고 대안의 방향을 마련하는 시민사회·공익활동의 어젠다(agenda)는 더욱 중요하고 다양해졌지만, 기존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이슈를 해결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영리·공익활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지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이번 리포트의 주제를 '지원조직 사례조사'로 기획하였습니다. 시선을 여러 국가로 확장해서 국외 지원조직은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는지, 국내 지원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관련 이론을 정리한 연구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활동 현장과 네트워크를 토대로 시민사회 지원에 관심을 가진 리포터 열 명의 관점과 문체가 담긴 사례집입니다. 국가별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기에 리포터가 소개한 일부 기관은 국가기관, 영리기업, NGO 등 국내 지원조직과는 다른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영리·공익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활동의 사회적 성과를 내기 위해 때로는 애드보커시로 혹은 인큐베이팅으로 또는 기술 등으로 지원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함께 소개합니다. 여러 유형의 지원 방법을 상상하는 분들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지원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자료 조사와 사례를 정리한 리포터 활동 자체가 다양성과 연결성을 가진 지원조직의 역할과 사뭇 닮았습니다. 기관별 내용도 흥미롭지만 각 기관을 조사한 리포터의 후기를 담은 리포터 인사이트를 눈여겨 봐주세요. 다시 한번 리포터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원의 힘]이 가진 다채로운 모양의 퍼즐이 국내 NPO 현장과 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통찰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원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김성환 리포터가 소개하는 독일 지원조직



김성환 도시혁신플랫폼 'CITYLABS' 대표 &

전 베를린 자유대(Freie Universität Berlin) 방문연구원

우연히 접한 KYC(한국청년연합) 대학생 프로그램을 계기로 청년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청년 의제를 사회 전반으로 확장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플랫폼'인 사회혁신그룹 '더넥스트'를 창립했다. 문재인 정부시기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에서 사회혁신과 정부혁신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했으며, 촛불 집회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광장을 재구성하는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 등을 담당했다. 지난 2년여간 베를린 자유대 방문학자로 '코로나시대, 도시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현재 '현장 기반의 도시랩, 씨티랩스'를 기반으로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리포터 인사이트

• 지역, 주민참여, 사회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독일 지원조직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유럽 도시들은 탄소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을 실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갑작스럽게 발표된 계획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 왔고, 지역자치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에 기반한 참여민주주의를 토대로 ‘아래로부터 함께 만드는 도시계획’ 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지원조직 선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테마로 하였고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형 지원조직’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독일 지원조직의 특징을 키워드로 제시한다면 ‘시민’, ‘로컬’, ‘디지털’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도시의 변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있으나, 그 중심에는 시민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단순히 참여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책 생산자이자 행위자로서 시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연결하였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또, 로컬단위 즉 시민의 삶의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형 지원’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정책의제와 현장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그 자체에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로컬형 지원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툴의 개발, 데이터 분석과 공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IT 기술과 결합한 새로운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지원조직의 역할이 다양한 형태나 기능, 의제에 맞게 변형되고 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독일 지원조직의 사례는 기후위기나 코로나 이후 도시의 변화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로컬)과 긴밀히 결합하여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 지원조직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nnovationCity Management GmbH

이노베이션시티 매니지먼트 : 혁신도시 운영기관

#탄소제로배출도시

#기후거버넌스

#리빙랩

실험을 통한 탄소제로 도시모델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하는 프로젝트 ‘Model City Bottrop’¹
“우리는 기후도시를 만든다.”

- 📍 Zentrum für Information und Beratung (ZIB), Südring-Center-Promenade 3, 46242 Bottrop
- 🌐 www.icm.de
- ✉ info@icm.de
- 📘 www.facebook.com/InnovationCityManagement
- 👥 공공-민간-시민사회 부문 25명의 직원으로 구성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설계하는 모범적 지원조직. 기업,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 등과 포괄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 탄소제로 도시전환을 위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모델 구현을 했음.
- 프로젝트 초기부터 학계 및 연구진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음. 마스터플랜은 계획의 타당성과 실질적 효과성 검증을 위해 리빙랩 방법론을 도입하였고, 주민들의 생활패턴과 니즈 등을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는 3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의 모델을 구현하였음.

1 '보트로프',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있는 도시

설립 근거·목적·배경

- 위치 : 독일 서부 보트로프(Bottrop)
- 파일럿 프로젝트 기간 : 2010년 ~ 2020년
- 목표 : 2020년까지 보트로프(Bottrop)의 탄소배출량 50% 감소
- 프로젝트 결과 : 2010년 이후 탄소배출량 38% 감소(연간 약 10,000톤 감소)
- 임팩트 : Bottrop City Model을 기후보호, 탄소배출제로 도시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프레임워크’이자 ‘혁신가이드’로 제시하여 다른 지자체에 전파
- 수상 : 2013년 11월 제2회 ‘독일 지속 가능성 어워드’에서 특별상 수상

“특히 주목할 점은 산업계, 학계, 지역사회의 장인, 에너지 컨설턴트 및 건축가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 구역을 유례없는 미래의 기후도시로 변모시켜 학습의 공간으로 만든 이 사업의 전체 구상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2013년 독일 지속 가능성 어워드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 독일 서부의 중소도시인 보트로프(Bottrop)는 117,000명의 인구로, 루르(Ruhr)지역의 대표적인 탄광도시이자 중공업 도시임. 160년 이상 운영된 탄광은 2018년을 끝으로 폐쇄되었고, 이에 보트로프(Bottrop) 시 정부는 일찍이 ‘탄광도시’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었음.
- 반면 2009년 Initiativkreis Ruhr 지역경제협회는 민간기업, 지역사회, 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여 <미래의 기후도시 : ‘Innovation City Ruhr’> 대회를 개최하고 루르(Ruhr) 지역의 친환경 도시 전환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꾀함.
- 이 대회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테스트할 파일럿 도시를 선정하는 것이며, 선정된 도시는 백만 유로의 창업자금을 투자받아 10년 이내에 탄소배출량을 50% 감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임.
- 루르(Ruhr) 지역에서 1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보훔(Bochum), 보트로프(Bottrop), 에센(Essen), 겔젠키르헨-헤르텐(Gelsenkirchen-Herten), 뮐하임 안 데어 루르(Mülheim an der Ruhr)등 5개 도시가 결선에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단은 2010년 11월 Innovation City Ruhr의 파일럿 지역으로 보트로프(Bottrop)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음.
- 보트로프(Bottrop)의 선정 배경에는 ‘저탄소 전환 프로세스에 있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적 거버넌스'의 청사진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음.

심사위원단은 미래를 위한 기후도시 전환이라는 혁신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서명에 22,000명의 보트로프(Bottrop) 시민이 참여하였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탄소배출 제로도시 전환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임. 또한, 심사위원들은 프로젝트가 보트로프(Bottrop)에서 성공한다면 다른 루르(Ruhr)지역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함. Bottrop 시는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이후 "Innovation City Ruhr -Bottrop"로 명명했는데 이는 단순한 개별도시 프로젝트로서가 아니라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 이후 타 도시로의 확산을 목표로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를 위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실행할 조직구성이 필요했고, 중간지원조직이자 컨설팅 및 프로젝트관리 회사인 ICM(Innovation City Management)이 2010년에 설립되었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Initiativkreis Ruhr는 <미래의 기후도시 : 'Innovation City Ruhr'>로 'Bottrop City'를 선정, 발표하였다.

출처 www.land.nrw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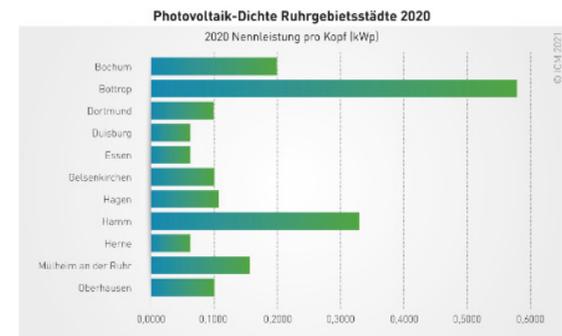
- ICM(Innovation City Management)의 첫 번째 과제는 인구 70,000명 규모의 파일럿 지역을 저탄소배출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작성, 액션플랜 제시 등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것이었음.
- 이 계획을 개발하는 데 18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기관, 기업, 공공, 시민사회 등 많은 이해 관계자들 간의 조정과 지역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디자인되었기 때문이었음.

마스터플랜은 단순히 탄소배출을 50% 줄이는 목표만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였음. 주요 내용은 주택, 에너지, 이동성, 기반 시설과 작업환경, 도시개발이라는 5개의 주제로 분류되는데, 마스터플랜의 계획에 따라 300개 이상의 실질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되었고 그 중 200개 프로젝트가 (2019년 기준) 완성되었음.

주요 프로젝트로는 개인주택, 기업, 공공기관 등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 소규모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도입하여 에너지 저장과 분산형 에너지 공급, 빗물 정제시스템을 설치하여 도로 청소용 활용, 도시계획과정에 시민참여, 에너지 효율화 기반 교통 시스템 도입 등이 있고,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젝트를 추진했음.



대다수의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Bottrop City' 마을 전경 출처 www.icm.de



InnovationCity Bottrop는 1인당뿐만 아니라 면적당 태양광 밀도 측면의 태양광 생산량에서도 Ruhr 지역의 대도시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출처 www.icm.de

운영주체 **공공-기업-연구-시민사회 등 실질적인 협업시스템 구축**

- 2012년 보트로프(Bottrop)가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후 설립된 ICM은 다양한 제도적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 프로젝트 수립과정에는 루르이니셔티브 그룹 이외에도 26개의 연구기관과 경제에너지 산업부, 건설주택도시개발부, 시정부 관계자 등 6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했음.
- 루르이니셔티브 그룹은 70여 개 기관이 모인 컨소시엄으로, 루르 지방의 경제발전, 친환경 기술개발, 도시 인프라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함.

지원방식과 성공요인

<플랫폼> <컨설팅> <상향식>

기업, 시민, 공공, 학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이자 ‘통합플랫폼’

- ICM은 민과 관, 그리고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이자 중간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촉진자로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음.
- 무엇보다 ICM은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주택 건설 회사, 산업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으고 조정하여, 그들에 의해 이 프로젝트가 주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주민들과 연구자, 엔지니어 등의 전문가그룹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포럼, 네트워킹, 워크숍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 18개월간의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과정부터 수립 이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관련 부문의 교수와 연구진들이 학술적 논의와 연구를 동시에 진행 하였으며, 이를 위해 10개 대학과 9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과학자문위원회’를 구성했음.
- 또한,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리빙랩 방법론(지역조사-프로토타입 모델-테스트)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니즈와 생활패턴을 고려하였음.

에너지 컨설팅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또 다른 ICM 성공 요인은 시민들을 위한 무료 에너지컨설팅 제공임. 보트로프(Bottrop)의 6개 서비스 센터는 시민들에게 기후친화적인 집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한 정보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지리데이터 기반 온라인도구’를 개발하여 에너지컨설팅에 앞서 특정 지역과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이 지역의 연간 평균 에너지효율을 3%로 끌어올렸는데, 전국 평균이 1% 미만인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임.
- 2015년에는 3,040건의 컨설팅이 진행됐는데, 이는 건물소유주 중 30%가 컨설팅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이 중 50%가 실제 에너지효율화 조치를 시행했음.
- 공공기관과 ICM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계획과 적용,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관한 공무원의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혁신을 끌어냈고,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옴.

지역주민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전환 마스터플랜 설계

- ICM은 보트로프(Bottrop) 시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음.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상향식 마스터플랜을 추진하였고, 이를 위해 7개 지구에 단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구별로 주민워크숍, 포럼, 토론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음. 주민참여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은 전문가그룹(연구소, 정부기관, 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프로젝트로 추진함. 특히 주민들의 생활패턴, 니즈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프로젝트 초기 수립과정에서부터 중간결과, 최종결과물 등 모든 과정을 공개하여 참여형 프로세스로 설계했음.
- 어려움도 있었는데, 프로젝트 초기 보트로프(Bottrop) 시가 파일럿 도시로 선정되었을 때 주민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에 대한 큰 기대감을 보였으나 주민 제안의 아이디어나 사업들이 제도적 혹은 공공예산의 제약 등으로 좌절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실망감이 커지기 시작했음. 그러나 ICM은 이러한 높은 기대치와 실망감을 극복하기 위해 무료 전기자전거와 같은 작지만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가치와 성취감을 시민들에게 확신시키는 방법을 취했음.

에너지전환이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원칙의 증명

- 보트로프(Bottrop) 모델의 핵심 원칙은 기후친화적인 도시전환을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회, 즉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결하였다는 점임. 기후후호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음.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건물 에너지 효율화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4개의 에너지 효율 전문회사가 증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었음.

프로젝트 초기부터 유럽 전역으로 확산 고려

- 파일럿 프로젝트는 2020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다음 단계로 ‘Model City Bottrop’의 성과를 타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하고 있음. 현재까지 루르(Ruhr) 지역에 위치한 17개 도시의 20개 지구가 참여 중임. 또한 보트로프(Bottrop)의 마스터플랜을 루르(Ruhr) 지역 이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하는 프로젝트도 준비 중임.
- 보트로프(Bottrop)의 마스터플랜은 개념적 틀이 다른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들이 ICM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받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확산시키고 있음.

재정(예산)

- Model City Bottrop 프로젝트는 유럽 전역으로의 확산을 고려한 모델링 사업이라는 특징으로 유럽 지역개발 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으로부터 지원받고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총 350만 유로가량을 투자받았음.



독일 ②

ThEGA

더이가 : 튀링겐 에너지 및 그린테크 기구

#튀링겐주

#탄소제로배출도시

#재생에너지

#그린테크

ThEGA, 튀링겐 재생에너지와 탄소제로도시 전환을 준비하는 디지털 및 그린테크 전문가그룹
 “튀링겐, 에너지 전환의 개척자”

- 📍 Mainzerhofstraße 1, 99084 Erfurt
- 🌐 www.ThEGA.de
- ✉ info@ThEGA.de
- 📘 www.facebook.com/ThEGA.Thueringen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ThEGA는 튀링겐 주의 기후보호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주 정부를 대신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캠페인, 전문 컨설팅, 에너지와 자원 절약 프로젝트, 탄소제로 도시전환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ThEGA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컨설팅 기반의 지원조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역할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지자체를 컨설팅하고 교육하여 시민사회와 정부기관 양쪽 모두를 위한 매개지원조직으로 기능한다는 점과,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의 기관으로서 그린테크 스타트업,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디지털 툴 개발과 보급 등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원 기관으로 주목하였음. 튀링겐 주 전체의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여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디지털 툴을 개발, 보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설립 배경**
- 2010년에 창립한 ThEGA는 그린테크 및 에너지전환을 위한 독일 최초의 기관으로서, 튀링겐 주의 2030년 탄소배출 제로도시 전환을 목표로, 튀링겐 주의 정부부처, 지자체, 기업, 학술기관, 시민을 연결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설립됨.
 - 2010년 창립 당시 ThEGA가 튀링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중심의 기관이었다면, 현재는 광범위한 컨설팅, 지자체 교육과 가이드 제시, 디지털 툴 개발, 시민을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 등 튀링겐 주 정부를 대신하는 ‘에너지 전환 역량센터’이자 ‘에너지청’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특히, 바이오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튀링겐 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과 일자리 창출 등, 바이오에너지를 지역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바이오에너지 마을의 초기 조성에서부터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바이오에너지 시설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주민조직화를 촉진하였음.

주요 활동

- <지자체 혁신>
- <데이터 및 디지털 솔루션>
- <시민을 위한 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에너지 교육과 컨설팅

- ThEGA는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행위자인 공공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음. ThEGA는 2012년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해 튀링겐 지방자치단체를 교육하고 컨설팅해왔음.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관리 컨설팅을 요청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약점과 잠재적인 절감 효과를 분석하여 몇 가지 조치를 제시하는데, 이러한 공공기관의 조치만으로 에너지 비용을 10~20% 절약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에너지 관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 정의, 건물 사용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칙 등을 포함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함. 이를 통해 에너지소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됨. ThEGA는 튀링겐 전역에서 약 70여 명의 에너지관리자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지자체의 에너지비용과 탄소배출량 절감에 기여함.
- 지자체 대상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도 지원함. 지자체의 ‘가로등 에너지 절약’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임. 주민 1인당 연간 약 10유로가 지출되고 있는 가로등을 LED 기술이나 희미한 나트륨 증기 램프와 같은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을 사용하면 에너지 비용을 50~80% 감소할 수 있음. 바이에른에 현재까지 50,000개 이상의 가로등을 현대화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았음.

- 이외에도 지자체의 에너지 소비 절감 프로젝트로 시청, 학교, 스포츠센터와 같은 공공건물의 난방온도설정, 온도조절장치 결합 등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소비 관련 데이터를 기록, 평가하고 건물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에 기초하여 개선 조치를 도출함으로써 10~20%의 에너지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음.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전환 솔루션

-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지자체, 행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에 에너지 관련 정보와 수치를 제공하는 것임.
- ThEGA는 개별 에너지기술에 대한 수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현재 ‘튀링겐 에너지 전환맵’ 제작자 역할을 하고 있음. 에너지 전환맵은 다양한 에너지 기반 시설의 잠재적 위치를 체계적으로 식별하여 매핑(mapping)하고 분석하였음. 2012년 ThEGA는 튀링겐 경제부를 대신하여 심부지열 에너지의 잠재력을 분석, 발표했는데, 예를 들어 5개의 심부지열 발전소 건설이 어떻게 재생에너지로 5만 가구에 전기공급을 가능하게 하는지 등을 보여주었음.
- 또한, 주 정부의 연간 탄소배출을 계산,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시함. 실례로, 대학, 경찰청, 세무서, 법원, 정부부처 등 1,700여 개의 공공기관 건물이 연간 약 48,000톤의 탄소 배출량을(2015년 기준) 매년 분석하여 기후중립적 건물 재설계를 촉진하고 있음.
- 더불어, 가로등 에너지 저축 계산기와 같은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의 온라인 툴을 개발하여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했음.
- ThEGA는 2016년부터 작센 주(Saxony), 작센알트 주(Saxony-Anhalt), 바덴뷔르템베르크 주(Baden-Württemberg)의 에너지 기관과 함께 디지털 툴 Kom.EMS를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하였는데, 실제로 9개 연방 주에서 사용 중이고 에너지관리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어 연방 환경부와 독일 산업연맹(BDI)에서 2020년 독일 기후 및 환경 혁신상을 수여했음.



ThEGA는 튀링겐 주에 소재한 35,000개 이상의 태양열발전소, 189개의 수력발전소, 380개의 바이오매스발전소 및 833개의 풍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데이터 포털을 개발하여, 상수원, 하수처리,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유형별로 분류한 주거용 건물의 정보를 포함한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제공함.

출처 www.ThEGA.de

시민에너지협동조합 조직화 촉진과 이익의 분배

- “시민을 위한 시민의 에너지”라는 슬로건 아래 협동조합의 조직화를 지원, 촉진하고 에너지 생산의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여,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2015년에 풍력에너지 서비스센터를, 2018년에 태양에너지 서비스센터를 설립했고, 두 기관은 시민 대상의 실용적 컨설팅, 포럼, 정보의 밤, 지역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프로그램, 협동조합과 은행 간의 네트워킹, 지자체 공무원과의 교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에너지 협동조합 IImtal eG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간접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또한 북부 튀링겐에 있는 네텔스로드(Nentzelsrode)의 커뮤니티 풍력터빈에도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졌고, 풍력터빈의 건설과 유지 보수, 서비스 제공 등을 현지 기업이 수행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보였음.
- 태양광에너지센터는 태양광 발전과 홍보, 태양열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에너지 및 난방 효율화, 태양열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시민에게 제공했음.
-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과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재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자금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 탄소제로 배출도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음.



ThEGA는 튀링겐 환경부를 대신하여 ‘기후 파빌리온’ 형태의 전시관을 조직 및 운영하여 과학계, 정치계, 시민사회는 물론 문화와 미디어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튀링겐의 기후보호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개발하고 토론하는 장 마련함.

출처 umwelt.thueringen.de

그린테크 기반의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 폐열프로젝트

- ThEGA는 튀링겐 주 정부를 대신하는 중간지원 조직이라는 장점을 살려 지자체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음. 에너지전환 및 기후보호를 위한 그린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은 그들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ThEGA는 이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실제 도시프로젝트에 연결,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이끌어내었음.
- 핵심 프로젝트로, 튀링겐 주의 공장이나 기업의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즉 버려지는 열을 다시 회수하거나 재사용하여 튀링겐 주의 가정에 공급하는 ‘폐열프로젝트’를 추진하였음.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튀링겐 주의 약 50만 가구에 열을 공급할 수 있음. 폐열의 회수와 재활용으로 제3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이 프로젝트는 많은 기술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여 장기 프로젝트로 추진 중임.
- 폐열활용의 또 다른 프로젝트로, 일메나우(Ilmenau) 도심의 아이스링크 냉각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바로 옆 실내 수영장의 물을 가열하는 데 재활용한 사례가 있음. 이를 통해, 실내 수영장과 유사한 신축건물에 비해 에너지소비율 74% 줄여 매년 700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하고 있음.

목표

- TechNet은 “독일과 유럽연합의 사회적 경제 촉진 및 지원”을 목표로 베를린을 ‘사회적경제’, ‘사회혁신’을 선도하는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사회적경제의 개념전파, 사회적기업의 설립과 개발 지원은 물론, 경영, 연구, 컨설팅에 대한 지원과 지역개발프로젝트로서의 연계 등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운영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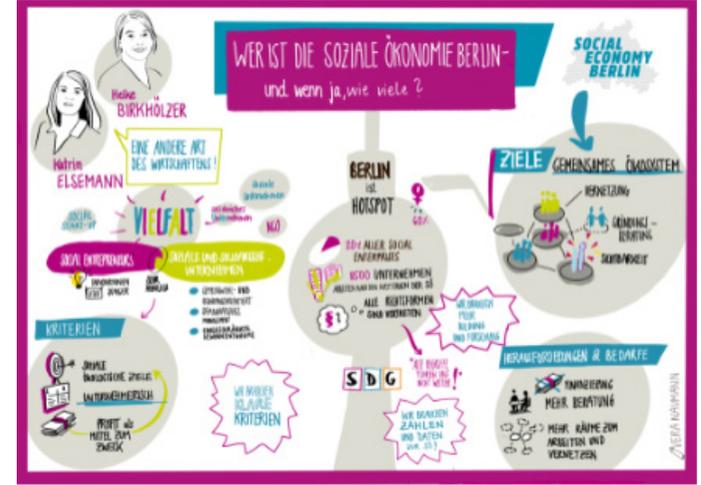
- TechNet은 비영리, 커뮤니티 지향, 협동, 분산 등의 가치 추구를 기반으로 ‘1인 1 투표권’의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됨.

배경

-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히는 베를린은 기술, 서비스, 창조 부문을 선도하는 스타트업도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에서 기업가의 역할과 활동, 사회적 연대경제 SSÖ(Soziale Solidarisches Ökonomie)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전통적인 경제시스템 외에도 소셜벤처형 기업,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위한 협력적 경제시스템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 증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독일 전체 신생기업의 9%가 사회적기업이었음. 독일의 전체 사회적기업 중 19.4%가 베를린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중 58.9%가 여성에 의해 운영됨(Social Entrepreneurship Network Germany 2021).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베를린에서만 사회적 경제를 통해 약 70억 유로의 부가가치가 창출되었음(ABB, 2018).
- 베를린 시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사회혁신의 상징적 공간이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사회혁신의 영향력에 대한 잠재력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음. 이에 베를린 상원의 경제, 에너지 및 비즈니스 부서가 TechNet-Berlin의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도시로 전환되도록 가속화를 촉진하고 있음.

주요 활동

- <플랫폼>
- <사회적 임팩트>
-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



출처 socialeconomy.berlin

‘사회적경제 베를린’ 플랫폼 운영

- 사회적경제 베를린(SEB)은 TechNet 베를린과 베를린의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인 SEND의 공동프로젝트로, 베를린 상원의 경제, 에너지 및 비즈니스부서에서 지원함.
- 사회적경제 베를린은 사회적 연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형태와 배경을 가진 베를린 지역 전체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플랫폼으로, 베를린의 사회적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연대 경제를 위한 생태계 구축 및 확산을 통한 사회적 연대와 결속의 촉진과 생태학적 균형의 강화를 목표로 함. 예를 들어 베를린의 사회적경제 전략과 실행계획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에서 사회적경제의 위치와 역할을 정립하여 공공 조달에 사회적 가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 조치를 취함.
- 사회적경제 관련 기술 습득과 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제개발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진행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자문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한 행정지원, 사업개발, 창업컨설팅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함. 정기적인 네트워킹 이벤트와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트렌드, 정책적 변화 등을 토론하며 확산하고 있음.

사회적 감사, 사회적 회계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향력 강화

- 사회적 감사는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일상적으로 수집, 분석, 보고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과와 영향력을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사회적 가치 측정 도구인 ‘사회적 회계’를 통해 내·외부 관계자와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여 조직의 미션, 핵심 가치, 목표를 분명히 하여 조직의 활동과 사업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지역경제개발을 위한 ‘Planning for Real’

- TechNet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커뮤니티기반의 계획 프로세스’를 수립,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개발계획을 추진함.
- ‘Planning for Real’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으로 주거와 생활환경 개선,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도시와 농촌 지역 개발, 지역의 자원과 지역민의 수요 분석 등에 활용됨. 이 워크숍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주민주도의 지역개발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취약계층 고용창출 프로젝트 ‘이웃사촌 서비스’

- ‘이웃사촌 서비스’는 브란덴부르크 주 경제노동부의 사회혁신 프로그램으로, 저숙련 층, 장애인, 건강취약계층, 이주민, 한부모, 노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 통합력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개별 역량을 평가하여 적절히 지역의 일자리로 배치하는 프로젝트임.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유급 고용을 창출하여 (장기) 실업자를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이웃 간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기업의 네트워킹과 상호 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음.
- 지역 조직 및 기업과 함께 지역의 자원과 지역민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지역 내 혹은 가까운 서비스 지역의 범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이웃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했음. ‘이웃사촌 서비스’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의 기술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적응과 통합력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음.



출처 www.technet-berlin.de



출처 socialeconomy.berlin

김재섭 리포터가 소개하는 남미 지원조직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조직팀장

2010년 대학교 청소년노동자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접하며 사회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리보장 운동, 진보정당 활동, 기본소득, 페미니즘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 가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운동의 활성화를 청년 활동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활동에 관심이 많다. 대전에 거주하며 권력 감시와 시민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리포터 인사이트

• 제도적 독립성과 시민사회 협력

“해외 지원기관 중 어디를 조사할지 선택하는 당시에 저는 다른 이유로 남미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남미의 정치 지형은 매우 역동적이었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심화 조사 과정에서 칠레 지원기관들의 군사독재 정부 시절 겪었던 고문 피해자, 인권 침해 피해자 지원활동을 보면서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공감대를 느끼기도 했고,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이 깊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독립기관의 이사회 결정 사항을 우리나라 법률 정보시스템 같은 곳에 조례에 준하게 업데이트한다는 점과 독립성이 높은 만큼 그 투명성도 매우 강도 높게 공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의 시 기금을 활용한 지원 사업은 인식의 틀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금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거버넌스까지 여러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지만, 기금 활용에 있어서 불투명하고 시민참여가 부족한데 이런 기획은 진지하게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지원기관의 사례들에 남미 국가의 지원기관의 사례를 접목한다면 저는 칠레의 시도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기관의 독립성은 기관 내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칠레 투명성 위원회 수준의 높은 투명성이라면 대내외적인 신뢰도 확보와 안정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공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정보공개로 한국의 ‘시민사회’ 전반의 투명성 증대와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의 오만함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성장한 나라이지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시민적 자부심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 한국의 사회운동, 시민운동이 가지는 한국 사회운동의 자부심도 높지요. 하지만 남미 국가들의 지원기관과 시민사회를 조사하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정체되어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그 안에서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활동하는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멀지만 연대의 가능성을 느꼈고, 생소하지만 친숙함을 느끼기도 했던 조사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평등하게, 서로가 돌보며 공존하는 사회를 원하는 세계 시민들의 활동을 피상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Fundo Municipal dos Direitos da Criança e do Adolescente(FUMCAD)

아동 및 청소년 권리를 위한 시 기금

#브라질

#기부영역지정구

#자치단체의_권한

브라질의 세금 기부 지방정부 기금

- 상파울루 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시 협의회가 운영하는 시 기금
-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중 일부를 공제하여 시 기금에 기부
- 기부된 금액은 시 협의회 결정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

📍 Rua Líbero Badaró, 119 – 2층

🌐 fumcad.prefeitura.sp.gov.br

✉ cmdca@prefeitura.sp.gov.br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FUMCAD’는 특정 목적의 시 기금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시 협의회가 운영하는 기금임. 개인과 법인이 직접 시민사회 지원 프로젝트를 골라서 기부할 수 있음.
- 이 조직의 특징은 한국의 기부금 공제 제도처럼 개인 및 법인의 소득세 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 개인은 개인소득세에서 직접 공제 3~6%, 법인은 직접 공제는 1%지만 납부해야하는 총 소득세 일부를 지원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음.
- 물품 지원, 생활시설, 교육 등 분야에 기부금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고, 세부 프로젝트를 지정할 수도 있음. 특정 기부처를 지정하지 않고 기금에 기부하고 시 협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식도 가능함.
- 기부문화 활성화 측면에서 점점 기부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금, 상파울루 주의 기부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과 세금 공제라는 적극적 방식의 활용은 주목할 만한 지점임.

설립 근거·목적

- 브라질 연방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보장 법안(연방법 8069호)에 따라 1991년 시법 3623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시 의회(CMDCA) 신설
- 시법(한국에서는 조례에 해당함)에 따라 운영되는 시 기금은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보호를 위한 사업의 공공과 민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함.

주요 활동·연혁²

- 시각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코스 게임 프로젝트 :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리나 노닐 재단
- 지적 장애 아동의 적절한 운동발달 도구 제작 : 이스라엘 다문화 지원센터
- 아동 청소년을 위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 방과 후 수업
- 신생아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연구 사업
-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가족 문화 프로그램
- 청소년의 자율성과 시민권 촉진 프로그램 - 9학년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 청소년 대상
-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도서관 건립
-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암 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 가족 및 사회 지원 네트워크 서비스 전문가 양성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리더십 양성, 학업 중도 포기 비율 낮추기
- 저소득층 청소년의 문화 향유 지원 프로그램

개별 프로젝트 외에도 80여 개의 활동 카테고리 존재

운영주체

- 시 자치법에 근거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시 의회(CMDCA)

지원방식

- 예산 지원

² 브라질 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기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상파울루 주 상파울루 시와 상베르나르도 카포 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서술함. 1990년 법 개정 이후 1991년부터 활동이 시작되었고 구체적인 연혁은 파악하기 힘들었음. 기관 홈페이지에 현재 등록된 주요 활동 리스트업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상파울루 시 사이트에 등록된 개별 프로젝트는 55개로 그중 목표액에 근접한 리스트를 소개함.

- 제도적 조건**
- 연방법 자체는 아동과 청소년 인권법, 임산부의 모성보호에 집중된 법안으로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해당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 지원방식을 명확히 하였음.
 - 연방법은 60페이지가 넘는 광범위한 법이고 시법(지방법)은 시법 3623호를 비롯해 시 위원회 조례와 기금 관련 조례의 영향을 받음. 즉 기금(FUMCAD)은 시 협의회·위원회(CMDCA)의 통제를 받는 기금임.
 - 기부자가 직접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고 민간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예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보공개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음. 프로젝트 참여자가 NGO라는 점은 한국의 중간지원조직과 유사해 보임.
 -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 위원회에 NGO를 등록³해야 함.

- 재정(예산)**
- 위원회는 정부예산으로 운영하고 프로젝트 지원은 기금을 통해 지원함.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조직구조

- 총회, 운영위원회 회의, 사무국과 같은 일반적인 조직구조. 다만 총회와 매월 개최하는 본회의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함.
- 시 위원회는 재정 및 자금 지원위원회, 등록위원회, 법무위원회,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 및 자금 지원위원회는 기금에 들어온 돈에 대해서 프로젝트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포괄적으로 들어온 자금을 어디로 분배할지 정함.
 - 등록위원회는 새로운 NGO에 대한 심의를 진행함.
 -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시의 사회개발 및 시민권 부서에 전달하여 시가 집행함.

**협력방식과
대상**

- 상파울루 시에서는 38개의 NGO가 등록되어 있으며 주로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보장 운동, 빈곤아동 운동, 연구자 집단과 청소년 문화 운동 등이 다수로 여성단체 등도 확인할 수 있음.
- 아동 및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연방법 제90조 등에는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한정하고 있는데, 교육, 가족 지원, 사회적 교육 지원, 보호소, 권리보장, 의료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목적의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시 위원회(CMCD)에 등록해야 함. 시 위원회가 등록 여부를 판단함.

3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로 등록하려면 시 위원회에 조직등록을 해하고 조직 등록에 대한 권한과 심사는 시 위원회가 가짐.

- 참여대상**
- 기부 주체는 개별 시민과 법인, 사업 주체는 NGO, 사업 대상은 아동과 청소년

- 정치성과
독립성**
- 시 위원회는 시 행정공무원, 인권 및 상담업무의 전문성이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구성원도 선거를 통해 선출함. 해당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권자를 발표함.
 - 해당 선거권자는 위원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 시민사회단체, 지원기관 등 다양함. 이런 면에서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금은 재원 자체에서 개인과 법인의 자율성이 존재하기에 독립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브라질은 주민참여예산제와 시민기본소득 등 실험적인 정책으로 유명함. 이 기금의 근거가 되는 연방법 자체는 광범위한 인권 보장법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지원 정책을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조례가 자주 개정되는데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2010년대 들어서 정교화 한 것으로 보임. 그런 의미에서 상파울루와 상베르나르도 캄포 시의 시 위원회는 매우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고 선거와 회의도 공개 방식으로 하고 있어 조직 내외적으로 교류가 활발해 보임.
 - 또한 신문 기사를 검색해보았을 때 (검색어 : 'fumcad')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기금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금이 사업지원을 받는다는 기사도 있는 것으로 보아 외부적으로도 지원기관의 지위가 낮지 않다고 보임.



출처 fumcad.prefeitura.sp.gov.br



출처 fumcad.prefeitura.sp.gov.br

Consejo Para la Transparencia

칠레 투명성위원회*

#칠레

#독립성

#정보공개

칠레의 독립성 강한 정보공개 플랫폼 기관

‘공공 서비스의 투명성 및 공공 행정 정보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적 지위와 자체 자산을 가진 독립적인 공법 법인

📍 Morande 360 piso 7, Santiago

🌐 www.consejotransparencia.cl

✉ contacto@consejotransparencia.cl

2023 투명성 트렌드 리포트

남미 지원조직 리포트

소개 이유

- 투명성 법에 따른 ‘독립성’을 지닌 정부위원회로 반부패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최근 칠레의 시민투쟁⁵, 항쟁 등으로 투명성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개별 기관을 감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투명성위원회답게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현 이사진의 이력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는 재산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음.
- 단체 조직도, 운영방식, 직원과 이사진의 급여체계,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 및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수혜자 목록 등을 절차 없이 사전 공개하고 있음. 이는 투명성 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함. 특히 시민사회 메커니즘도 공개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투명성위원회 이사회는 직권으로 정보 청구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권한이 강함.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설립 근거·목적 2008년 8월 11일 제정된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 법(투명성 법)에 근거하여 설립, 책임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칠레 민주주의 강화,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공공 기능의 투명성 촉진을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연혁

주요 활동

- 시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를 하는데, 설립 이후 62,796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2,937건은 법적 구제 요청, 9,859건은 문제 제기해 해당함.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 관련 부서, 공중 보건 영역, 칠레 헌병대,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활동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 각 기관에 분리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역할 혹은 행정심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

연혁

- 2008년 8월 투명성 법 제정
- 2008년 10월 투명성위원회 설치

운영주체

- 투명성위원회(CPLT) - 이사회는 변호사, 교수, 정치학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자체 자산을 가진 자치적인 공법 법인으로 설립
- 정부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 법인으로 운영됨. 내부에 시민사회협의체(COSOC)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함.

지원방식

- 투명성위원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 업무 협의 및 의제 발굴을 논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제도적 조건

- 민간 이사 구성 방식⁶의 공식 기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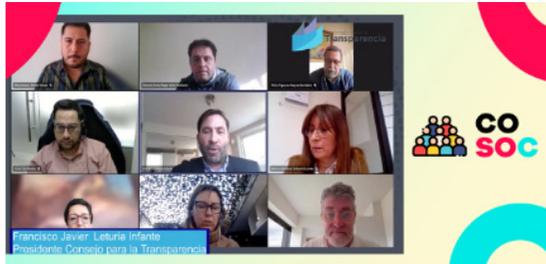
4 투명성 위원회 산하 시민사회협의체(COSOC)가 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내용임.
 5 2019년 10월 14일부터 현재까지 칠레 공화국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시민항의행동으로 산티아고 도시철도의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동안 누적되어온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폭발함.
 6 한국의 경우로 보면 강력한 개방직 공무원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임.

- 투명성 법은 부패 방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시민사회협의회를 통해서 구현하는데 시민사회협의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함⁷.

재정(예산) • 국가 재정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는 구성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시민사회협의회는 단체 등록만 된다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투명성위원회 자체는 투명성 법(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임. 그 근거는 칠레의 법률정보 시스템에서 투명성위원회 이사회 결의안 검색이 가능함.
- 시민사회협의회는 이사회 결의안을 통하여 구성하였고, 최근 공개 선거 등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음.



투명성위원회 시민사회협의회 회의 장면 출처 www.consejotransparencia.cl

협력방식 및 대상

- 투명성위원회 시민사회협의회(COSOC)의 선거 출마 단체 명단 참고**
-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위원협의회, 전국 은퇴 기자 협회, 채용 및 혁신 센터, 주 공급(CICAB), 투명 칠레, 국가 국제 투명성 지부, 아트미디어 문화공사, 날개를 가진 개발 공사 NGO 사업, 노인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인, 소비자 및 사용자의 국립 공사, 키투니엔 아운 소셜 코퍼레이션,

⁷ 한국의 경우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를 결정권한이 큰 민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공식 협의기구로 배치하는 방식

EITI(석유, 가스 채굴에 관한 공정성 단체) 칠레, 투명한 미국 재단, 기부 재단, 형제적 도움의 장미 재단, 그리스도의 집, 이웃 위원회 16A “Claudio Arrau”, Barrio Santa Isabel, Providencia 지구, 재정지출 관측소, 개발 NGO 지속, 투명성 및 알고리즘 포함을 위한 NGO, OptIA 관측소, Curacavi의 유기농 생산자 조직, 비나 델 마르 대학교

참여대상

- 투명성위원회의 목적 또는 공익적 주제(주거, 건강, 교육 등)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거나 촉진하는 조직연구 센터, 학술 기관, 투명성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에 대표가 있는 국제 조직 및 기관

정치성과 독립성

- 투명성위원회 이사회의 구성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4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임기는 6년임. 이사회는 내부에서 회장 선출 합의가 없으면 추천으로 선출함. 이사회는 투명성 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제안되고 대통령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함.
- 조직의 목표에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와 시민통제 및 시민참여 증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강할 것으로 보임.
- 도입부터 최근 칠레 시민 투쟁까지의 맥락을 보았을 때,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양과 퀄리티를 보았을 때 독립성은 높아 보임.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칠레 투명성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고민이 담겨 있음. 홈페이지 등 자료에서 정보공개와 반부패의 중요성, 시민의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으며 이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도 구체적임.
-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급진성이 보이기도 함.
- 시민사회협의회는 근거가 되는 이사회 결의문에는 위원회의 시민사회협의회 목적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설계, 구현, 보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단체 및 전문 조직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를 심화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통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Instituto Nacional de Derechos Humanos

칠레 국가인권위원회

#칠레

#인권

#시민사회

칠레의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작, 인권 조치 정부 제안, 시민사회협력

📍 Av. Eliodoro Yañez 832, Providencia, Santiago

🌐 www.indh.cl

소개 이유

- 칠레는 군사독재 시절을 경험했는데 많은 정치탄압, 인권탄압, 고문 피해자 등이 있었고, 다양한 인권피해자 구제 단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칠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작하고 다양한 인권 시민단체와 협업하고 있음. 행정, 입법, 사법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치에서 기업이나 국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도 함.
-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만 매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역할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함. 실제 칠레 시민들이 느끼는 인권위원회의 위상이 어떠한지 이번 조사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사회 구성원 중 2명을 시민단체에서 선출한다는 것은 칠레 국가위원회가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표일 수 있을 것임.
- 인터넷 기사 등을 조사했을 때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INDH(칠레 국가인권위원회)가 칠레 우익정당들에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사진의 발언에 반발하여 사임을 요구하는 INDH 노동자 조직의 성명이 있기도 한 것을 보았을 때 역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 같음.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칠레 정치 상황이 격변기인 만큼 2010년대에 출범한 INDH도 그러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국의 입장에서 인권 기관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와 외부 시민사회와 어떻게 구조적, 제도적으로 결합하여 협력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사하게 되었음.

설립 근거·목적

법률 제20,405호에 따라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 존중 문화를 자율적으로 촉진하고 칠레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시하며 칠레 국민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국가 기관을 목적으로 함.

주요 활동·연혁

주요 활동

- 2년에 한 번씩 국가인권보고서 발간, 인권 침해 희생자 추모 기억 공간 설치 및 운영, 국가 인권 피해지도 제작 및 운영
- 인권 관련 시민단체 활동 소식 전달
- 환경 갈등 지도 제작 및 운영
- 집회에서의 경찰 폭력 감시자 프로그램 운영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법안 발의
- 2007년 7월 20일 INDH 구성
- 매년 칠레 인권보고서 제작

운영주체

- 공법 자치 법인으로 INDH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하부 조직이 아니며 공적자금으로 운영되지만,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 명시되어 있음.
- 위원회는 인권 분야에서 인정받은 경험을 가진 11명(대통령이 임명하는 다른 지역 출신 의원 2명, 상원에서 임명한 고문 2명, 하원에서 임명한 고문 2명, 대학 협의회에서 임명하는 법적 카운슬러, 인권 보호 단체에서 임명한 이사 4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6년임.

제도적 조건

- 국가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와 UN 등 국제단체에도 보낼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치 투옥 및 고문에 관한 국가위원회 등 피해 구제 위원회의 자료를 보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조직의 특징으로 행정, 입법, 사법부로부터 독립적임을 명시하고 있음.

재정(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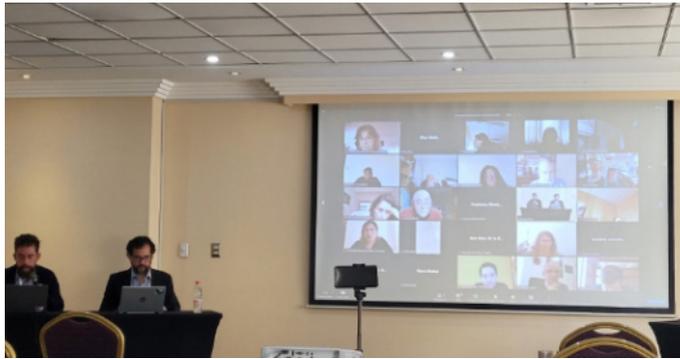
- 국가 재정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내부 이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결정
- 청문회 진행 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국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위원회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소속 5명, 인권관련 학술단체 4명, 법률에 따른 국가 인권상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함. 2년마다 국가인권조사 실시, 인권 수호 및 증진 관련 기관 인증 및 등록 등을 진행함.

**협력방식과
대상**

- 이사회 구성원 중 4명을 임명할 수 있는 66개의 시민단체
 - 정의 인권 영역, 지역사회 개발 영역, 장애 영역, 성적 다양성 영역, 교육 영역, 아동 영역, 환경 영역, 기억과 보존 영역, 이민자 영역, 여성 영역, 노인 영역, 원주민 영역, 전과 및 수감자 영역, 보건 영역, 고문피해자 영역, 진실 및 보상 영역 등으로 구성됨



출처 www.indh.cl

참여대상

- 설립 후 1년 이상의 단체, 인권의 수호 및 증진과 연결된 단체 등으로 협력 단체 등록은 무료임.

**정치성과
독립성**

- INDH에는 66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사회 구성원 중 2명을 투표를 통해 최근 선출함. 독립적이라는 근거로 고유한 법인격과 내부 규정의 자율적인 구성권, 예산 사용의 자율성을 명시하고 있음.

**조직 내외적
지향 및 인식**

- 독재정부 시절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조직이 시작한 것으로 보임. 실제 연혁에서도 해당 법안이 꽤 오랫동안 계류했으며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한 것으로 보임. 최근 이사회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선출한 고문이 INDH의 소장으로 선출됨.
- 최근 INDH는 2019년에 발생한 경찰에 의한 민간인 폭력 사건에 고발인으로 참여하여 2명의 경찰관에게 유죄를 받게 함.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임.
- 지역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 사태에서도 해당 기업과 해당 지자체에 대한 고소 역할을 INDH가 수행함.
- 최근 인권 침해 피해자 기록 공간에 대한 테러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INDH의 공식적 항의도 확인됨.



출처 www.indh.cl



출처 www.indh.cl

김정기 리포터가 소개하는 네덜란드 지원조직



김정기 네덜란드 캠펠신대학교 박사과정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최근에는 네덜란드 한 할머니의 인생에 관한 책을 썼다. 2021년 EBS 글로벌 리포터로 활동하며 네덜란드에 관한 31건의 기사를 생산했다. 대학생 때에는 ‘패기’라는 잡지를 발간하는 회사를 1년간 운영해보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NPO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네덜란드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다. 가족과 네덜란드에 거주 중.

리포터 인사이트

- 협력의 공동체 활동을 위해 기부, 법률, 개발NGO 지원기관을 소개합니다.

“시민사회 관련 사례 조사를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는 시민사회가 먼저 형성되고 국가가 설립된 경우로 알려진 만큼, 네덜란드의 단체들은 협력의 공동체 정신이 강하고 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유럽 나라들과 유럽 외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려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정착한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아시아권 및 세계사회의 민주화를 돕는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해도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 공익정보 아카이브 큐레이터 활동을 하면서 한국의 비영리 공익활동에 대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어,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민사회 전반을 지원하며 규모 있게 일하는 기관의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웠고, 기부 방법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법률과 정책 지원, 개발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종류의 기관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공익정보 아카이브에 네덜란드 시민사회를 계속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지원기관도 더 찾아보고 싶습니다.”

Sponsorkliks

스폰서클릭스

#기부

#온라인쇼핑

구매가 곧 기부가 되는 스폰서클릭!

- 스폰서클릭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구매에 대한 일정액 수수료가 자동으로 비영리 단체에 기부됩니다.
- 일부러 기부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기부가 가능합니다.

- 📍 Tappersweg 36, 2031 EV Haarlem, Netherlands
- 🌐 www.sponsorkliks.com
- ✉ info@sponsorkliks.nl
- 📘 www.facebook.com/sponsorkliks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비영리가 고민하는 기부의 어려움을 간파한 전략이 좋았고, 인터넷 쇼핑물의 생태를 잘 활용하여 비영리 섹터에 도움을 준 창의성이 돋보였음.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겠으나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로 참고할 지점이 많아 보였음.

설립

근거·목적

- 비영리단체의 모금을 돕기 위해서 설립하였으며, 창시자 2명은 스포츠클럽에서 활동 중인 사람들이었는데 클럽의 재정난을 고민하다가 스폰서클릭의 기부 시스템에 대한 영감을 얻었음.
- 온라인 쇼핑몰과 비영리단체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활동 중

주요

활동·연혁

- 2011년 시작하였으며, 아마존 네덜란드 등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떤 상품이라도 구매 시 일정액 수수료를 스폰서링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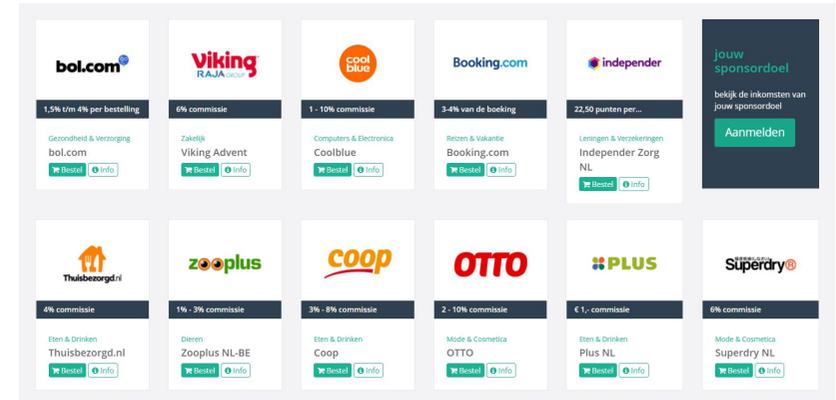
- 한국 포털사이트의 쇼핑물 중개 서비스와 같은 개념으로 스폰서클릭에서 제공한 사이트를 경유하여 쇼핑물에 접속하는 형식임.
- 스폰서클릭은 각 비영리단체들에게 상품구매 링크를 제공하여, 단체에서 단체 고유의 링크를 통해 쇼핑몰에서 쇼핑하게 함.
- 75%의 수익금을 해당 비영리단체에 보냄.
- 네덜란드·벨기에의 8,800여 개 비영리단체가 가입되어 있음.

운영 주체

- 민간기업인 스폰서클릭스

지원방식

- 비영리단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웹상에서 단체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을 연결하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비영리단체에 송금하는 방식



스폰서 클릭스와 제휴되어 있는 네덜란드의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 출처 www.sponsorkliks.com

- 재정(예산)**
 - 2019년 연간 298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온라인 쇼핑몰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기부 금액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함.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기업형 구조로 창립자 2명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
- 협력 방식과 대상**
 - 종류를 불문한 비영리단체의 가입이 가능하며, 스포츠클럽, 구호단체, 지역 동아리, 비영리 언론, 다문화 커뮤니티들 등도 가입되어 있음.



출처 www.sponsorkliks.com

네덜란드 ②

ECNL (European Center for Not For Profit Law)

비영리 법을 위한 유럽 센터

#법률

#시민자유보장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ECNL

- 동유럽의 민주적 발전을 돕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2018년 네덜란드 헤이그로 본부를 이전했습니다.
- 시민사회지수를 발표하고 시민사회이슈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 Riviervismarkt 5, 2513 AM, The Hague, Netherlands
- 🌐 www.ecnl.org
- ✉ info@ecnl.org
- 🐦 @enablingNGOlaw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정책과 입법 운동은 시민사회 활동에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개별 단체가 진행하기 어렵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 이에 관련 일을 하는 '독특한' 단체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함.

설립 근거·목적

- 인권, 집회, 결사, 표현,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음.
- 시민사회, 자선활동, 사회적기업, 사회개혁을 위한 투자, 국제개발협력, 인권과 시민사회에 대한 새로운 기술 등을 촉진하고 지역 및 국내외 폭넓게 지원하고자 함.

- 주요 활동·연혁**
- 유럽 국가의 민주적인 질서를 옹호함.
 - 2003년 헝가리에서 시작함.
 - AI 규제와 기술 발전으로 창출된 새로운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공간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AI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 기술 시대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함.
 - 시민을 보호하는 ‘보안’과 시민의 자유에 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자유’라는 상반된 요구 속에서 시민적 자유를 보장하고자 애쓰고 있음.
 - UN 합의에 근거한 국제 환경 속에서 비영리단체들의 기후보존 활동을 위해 노력함.
 - 온라인 집회라는 새로운 현상에 대해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함.
 - 디지털 펀드레이징에 관한 다양한 방법과 발전을 모색함.
 - 반테러리즘을 위한 전략 개혁과 돈세탁 방지규제에 참여하고 있음.
 - NPO 트렌드를 모니터링 함.
 - CSO들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과 단체의 활동들을 지원함.
 - NPO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비영리단체 네트워크 협력 등을 진행함.
 - 덴마크, 세르비아, 튀르키예, 북마케도니아, 몰도바 등의 시민사회 강화를 지원함.

운영 주체 • 독립적 비영리단체인 ECNL

- 지원방식**
- 다수의 정부기구에 참여하여 유럽 의회의 조연자 역할을 하며, 인권 향상을 위해 각국 정부에 법안 교정을 제안함.
 -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에게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비영리단체의 영향력 평가 활동을 함.
 - AI가 개발되어 사용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AI 가이드 개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온라인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민사회단체가 AI 기술의 발전과 도입이 인권에 끼치는 영향을 알도록 교육을 제공함.
 - E-Book을 개발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의 표준을 익히고 대응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며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정책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창출함.

- 모금을 위한 웨비나 시리즈를 개최하고 디지털 모금에 방점을 둔 비교 연구를 실시함. 모금 플랫폼 개혁을 위해 기술을 지원하고 온라인으로 모금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논의를 돕고 있음.

- 제도적 조건**
-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CINGO(Conference of INGO, 국제 비영리 기구 컨퍼런스)가 있어, 유럽 규제 및 법에 참여할 수 있음.
 - EU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UN 차원에서 인권옹호 활동에 있어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허용(UN 인권 고등판무관실(UN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하고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와 외부 조연자 이사회가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며, 외부 조연자의 조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 외부 조연자 이사회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외부 인사들이 조언을 하는 이사로 일을 하는 형태임.

- 협력 방식과 대상, 연대와 네트워크·파트너**
- 국제 NPO연합체(The Global NPO Coalition on FATF)
 - 동방(동유럽) 파트너십 시민사회포럼(Eastern Partnership Civil Society Forum)
 - 유럽 사회적기업법 연합(European Social Enterprise Law Association)
 - 유럽 비정부기구 전문가그룹 위원회(Council of Europe Expert Council on NGO Law)
 - 결사의 자유 전문가 패널(OSCE/ODIHR Panel of Experts on the Freedom of Assembly)
 - 유럽 인공지능 위원회와 조직 내 정책 개발 그룹(Council of Europe Ad Hoc Committee on Artificial Intelligence (CAHAI and its Policy Development Group))
 - AI에 대한 유엔 국제 조연자 이사회(UN Global Advisory Board on AI)
 - 유럽 AI 연맹(European AI Alliance)
 - 스탠포드- 디지털 연구 연합 의회(Stanford PACS - Digital Assembly Research Network)

- OECD 시민 사회 정부 사회 조연자 위원회(OECD Civil Society Information Society Advisory Council)
- 유럽의 미래를 위한 CSO 컨퍼런스 네트워크(CSO Conference network on the Future of Europe)
- AI와 인권에 대한 온라인 통합의 자유 TF(Freedom Online Coalition's Taskforce on AI and Human Rights)
- 반 테러리즘 글로벌 인터넷 포럼(Global Forum to Counter Terrorism)
- 네덜란드 인권 NGO 플랫폼 인권증진 자문회(Breed Mensrechten Overleg)

정치성과 독립성

- 독립적인 비영리기구로 네덜란드의 비영리단체(ANBI) 지위를 가지고 있음. 이 지위는 일반 비영리단체와는 다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중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부여하는 지위임.



European Center for Not-for-Profit Law

ECNL이 추구하는 주요 활동 출처 www.ecnl.org



COVID-19 and Civic Freedoms

Technology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Protests and Assemblies

Participation

Funding and Philanthropy

UN Standards

European policies

Action for Civic Space

Monitoring Civic Spaces

Climate Action

네덜란드 ③

PARTOS

파토스

#중간지원

#플랫폼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민간 플랫폼, 파토스!

파토스는 국제개발에서 일하는 조직을 위한 네덜란드 기관으로 100개 이상의 네덜란드 개발 NGO의 회원과 함께합니다.

- 📍 Ellermanstraat 18B 1114AK Amsterdam, Netherlands
- 🌐 www.partos.nl
- ✉ info@partos.nl
- 🐦 @PartosNL

이 특장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네덜란드 내 규모가 있는 비영리단체들을 위한 지원기관으로 네덜란드에 존재하는 비영리 지원조직 중 서울시NPO지원센터와 가장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설립 근거·목적

- 지역개발단체가 정의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되었음. 상호 신뢰하고 효과적인 개발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개발단체를 연결하고 강화하며 갱신 및 대표하기 위해 노력함.

주요 활동·연혁

- 2004년 설립하여 정치감시 활동,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로비활동 등 강력한 시민사회와 정책이 함께 갈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음.
- 비영리단체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나누는 컨퍼런스인 파토스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단체운동을 한 단체에게 혁신 어워드를 수여함.



파르토스에서 진행되는 이노베이션 페스티벌
출처 www.partos.nl

운영 주체 • 비영리단체인 파토스

지원방식

- 혁신허브를 통해 지원
 - 개발 단체들에게 효과적인 통합적 포섭(inclusion)을 위한 대화와 학습 기회를 제공함.
- 비영리단체의 데이터·디지털화를 지원하여 비영리단체의 성장을 도모함.
 - 개발 단체들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원
 - 유용한 디지털화의 원리들을 제공
 - 공개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보 및 강의 제공
- 시민 참여의 힘이라는 참여 공간을 제공
 - 힘의 중심을 단체에서 로컬로 이동시키기 위한 교육, 팟캐스트, 문서 작성
 - 아무도 뒤처지게 하지 않는다(leave no behind)는 플랫폼 개발
 - 비영리단체들이 서로 경험과 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과 보급

재정(예산) • 2021년 기준 약 120만 유로
 • 수입원 중 50% 이상인 약 70만 유로는 기부금에서 충당되며, 이외 대부분은 사업소득(프로그램 교육 및 개발 수입)으로 충당함.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의사결정은 주로 일반 회원들(Algemene Ledenvergadering)의 모임에서 이뤄짐
 • 네덜란드와 해외 회원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전략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교육 행사, 플랫폼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들과 접촉⁸하며 현재 334개 단체⁹와 함께하고 있음.
 - 구성원 혜택 : 포럼 초대, 지식 교환과 공동 혁신을 위한 협업 기회 제공, 교육과 회의를 통한 조직 전문성 향상, 공공, 민간 부문, 정치인 및 정부에 대한 공동의 이익 증진과 정책 옹호를 통해 공유 이니셔티브 효과 달성, 공동캠페인 진행 및 개발협력 이미지 제고를 위한 협력, 대규모 네트워크 확보, 공유 서비스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Partos 9001(ISO 9001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적인 매뉴얼) 사용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시민단체들의 필요로 설립되었으며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결성되어 있음. 정부에 의견을 개진할 때는 106개 단체가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함.



출처 www.partos.nl

- 8 협력 단체 : Actionaid, Aflatoun International, Aidsfonds&soaids, Akvo., Amref flying doctors, Aqua for All, Both Ends, Brac, Care, CSD, Choice for Youth & Sustainability, CW International, Cordaid, Defence for Children, Dorcas, Fair Wear, Fair Food, Free a Girl, Free Press Unlimited, Friends of the Earth, Oxfam Novib, Right To Play, The Hunger Zero Project, Unicef
- 9 참여단체 분류 : 어린이 교육(35), 경제개발(46), 건강(34), 긴급구호·인도주의(29), 인권(44), 자연·환경보호(17), 다양성·포용성(29), 국제구호(23), 식사제공·건설(24), 여성인권과 리더십(32), 민주주의·권리(21)

박내현 리포터가 소개하는 캐나다 지원조직



① 캐나다 커뮤니티 미래 네트워크

② 캐나다 도시연구소

③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박내현 기록활동가

노동, 인권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기록 작업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우고 궁리하며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조금씩 가보려 한다. <힐트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 <숨을참다>를 공저했다.

리포터 인사이드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퀘벡주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나라, 선진 사례로 늘 등장하곤 했다. 퀘벡주는 1960년대 ‘조용한 혁명’을 통해 각종 제도 개혁을 이뤘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몇십 년간 진보와 보수당으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지만 누가 권력을 잡든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한 것은 신기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연구자는 진보 세력들의 연대가 사회적 경제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공공 정책 마련을 한 것이 핵심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보 세력의 주도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나 민간의 자영업자 등과 합의를 도출해낸 것을 중요한 원인으로 꼽는다.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면 재원의 100%가 국가 혹은 시로부터 나오지만, 국가나 시의 통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예산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러나 캐나다의 지원조직들은 이사회 구조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심지어 토론토 커뮤니티 하우스의 경우 매년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들이(한국으로 치면 임대주택 입주자) 다음 해의 예산을 결정하는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한다. 세입자들은 자신이 사는 건물 단위로 내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토론했고 이에 대한 예산 배정을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임대주택을 가까스로 지원받지만, 입주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만큼이나 사는 동안 내 집처럼 편안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한국의 임대주택과는 꽤 차이가 나는 모습이다. 이런 운영이 가능한 것은 토론토 시가 100% 예산을 지원하지만 ‘임대주택’이 아니라 ‘사회주택’이라고 부르는, 다시 말해 시민사회의 주거권 투쟁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과 기관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도시 연구소와 커뮤니티 미래 네트워크 역시 국가 예산이 꽤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거나 연구자와 기업, 시민들이 대등하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좋은 도움은 자신이 도움받는다는 걸 모르게 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지원을 해주면서도 실제 지원받는 대상이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필요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이라는 것을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Community Futures Network of Canada

캐나다 커뮤니티 미래 네트워크

#고용

#지역사회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만들어가는 미래

캐나다 전역에 267개의 비영리 사무소를 운영하며 시골과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소규모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함. 각 사무소는 창업, 확장, 프랜차이즈화 또는 판매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소기업 대출, 도구, 교육 및 이벤트를 제공함. 네트워크는 캐나다의 267개 회원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전국의 커뮤니티 미래 대표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끌어감.

Community Futures Network of Canada 300 South Edgeware Road St.

Thomas, ON N5P 4L1

communityfuturescanada.ca

admin@communityfuturescanada.ca

소개 이유

- 대규모 NPO조직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기금은 100% 연방정부 지원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설립

근거-목적

- 캐나다 정부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기부금을 통해 전국의 농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연방 정부 프로그램. 안정적인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형성, 경제적으로 안정된 커뮤니티 구성 등으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짐.

주요

활동-연혁

- 커뮤니티 미래 프로그램(CFP)의 뿌리는 1970년대 초 캐나다 고용이민부가 제공한 지역 고용 지원 프로그램(1973년)과 지역사회 고용 전략(1975년) 등의 “지역 고용 개발” 프로그램을 수립하면서 시작함.

1980년대에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경제개발원조(1980년), 지역고용원조 및 개발(1983년)이라는 두 가지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됐음. 1985년에 캐나다 일자리 전략의 하나로 CFP가 설립되고 확장되었는데, 이는 ‘만성적’ 또는 ‘급성’ 노동 시장 문제를 가진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연방 정부의 주요 과제였으며 지역 조사를 통해 지역 해결책을 계획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됨.

운영 주체

-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영리단체

지원방식

- CFP는 북부 온타리오에 있는 24개 커뮤니티 미래개발공사(CFDC : Commnity Futures Development Corporations)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일반 운영 비용(예 : 급여, 임대료)은 줄여주고 투자 자금 조성과 자금 지원을 도움. CFDC는 비영리단체로, 지역 자원봉사 이사회(BoD)가 관할하는 독립적인 조직임.
- CFDC는 제품 및 서비스 공유(예 : 온라인 교육),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구매를 촉진하고, 옹호 기능을 제공하고 네트워크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예 : 뉴스레터 및 모범 사례 공유) 등 구성원 간의 정기적인 협업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됨.



매년 발간되는 지원 성공 사례 출처 communityfuturescanada.ca

- 재정(예산)**
 - 캐나다 정부의 지역개발 조직으로, 프로그램의 지역 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 산업부의(IC) 보조금 및 기부 총 기금은 연간 900만 달러(2018년 기준)임. 민간의 기부금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금, 투자유치금,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커뮤니티 미래 프로그램(CFP)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조직된 캐나다 커뮤니티 미래 네트워크(Community Futures Network of Canada)는 캐나다 전국에 걸쳐 지역공동체의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267개의 사무소가 네트워크를 이룸.
 - 커뮤니티 미래개발공사(CFDC)는 지역 상품 개발, 판매 전략 공유, 공동 구매 촉진, 회원 간의 소통 촉진 등 지역공동체의 네트워크를 지원함.

- 참여 대상**
 - 지역공동체, 지역사회의 중소기업, 새로운 중소기업 및 지역공동체 조직 설립

- 정치성과 독립성**
 - 커뮤니티 미래개발공사(CFDC)는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보이고 있음. 또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지역이사회의 감독을 받고 있음. 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CFP의 권한을 지지하고 개별 지역 사회의 자립을 스스로 구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CFP가 지속가능하도록 도움.



캐나다 ②

Canadian Urban Institute (CUI)

캐나다 도시연구소

#도시

#국가플랫폼

도시계획은 모두의 것이다

CUI는 캐나다 도시 연구소의 약자로, 정책결정자, 전문가, 공무원과 기업, 활동가와 연구자가 함께 연구하고 공유, 협력하면서 최고의 도시를 설계하는 국가 플랫폼

📍 30 St. Patrick St, Ste 500, Toronto, Ontario, Canada M5T 3A3

🌐 canurb.org

✉ communications@canurb.org

📘 www.facebook.com/canurb

📷 @canadianurbaninstitute

소개 이유

- 주민, 행정, 연구자가 함께하는 연구플랫폼이 한국에도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주요

활동·연혁

- 1990년 베테랑 토론토 시의원 리처드 길버트가 설립함.
- 도시 건설업체들이 캐나다 전역의 가장 효과적인 솔루션과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포럼 등을 개최하고, 도시 개발 관련 효과적인 정책과 모범 사례를 촉진하는 연구 및 액션 툴을 개발함.
- 캐나다의 다양한 도시 현실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연구하고 실행하며 도시계획, 도시 관리, 환경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 및 지방과 협업하는 활발한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함.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캐나다의 주요 중심가를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기획한 캐나다 중심가 찾기 프로젝트,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교통, 주택, 고용, 서비스 등을

연구하는 고령층을 위한 도시·주택 프로젝트, LED 가로등 전환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등이 있음.

- 지원방식**
 - 연구, 정책 수립 활동에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함.
- 재정(예산)**
 - 캐나다 전역의 다양한 파트너와 펀딩을 통해 조달하는데, 주요 파트너는 캐나다 비영리 지원재단, 경제개발 조직, 투자 은행 등이며, 100여 개의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함.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수십 년간 캐나다의 도시를 설계한 현장 경험을 지닌 설계자와 커뮤니티 리더들로 다양하게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함. 이사회는 CUI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협력자와 파트너들, 이해관계자들을 아우르며 포괄적이고 회복 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제시함.
- 협력 방식과 대상**
 - 도시 계획과 관리, 관련 서비스 제공, 환경 관리 및 지역경제개발을 개선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 지역과 협력하는 활발한 국제 프로그램을 운영함. 필리핀,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쿠바, 온두라스, 페루, 파라과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폴란드, 라트비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서 활동함. 우크라이나의 지역경제개발, 필리핀의 지역경제개발, 자메이카의 지방 정부 개혁, 에티오피아의 도시 관리 개선을 돕고 있음.
- 참여 대상**
 - 지역주민, 정책 결정자, 도시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학계의 연구자, 기업 등으로 도시계획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공동의 가치에 기여하기 위해 캐나다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연결하고 증폭시키고자 캐나다 전역에 연결 조직을 구축하고 있음.



2022년에 개최한 살만한 도시 포럼
출처 www.facebook.com/canurb



출처 canurb.org

Toronto Community Housing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

#사회주택

#세입자참여예산

사는 사람이 결정하는 세입자 참여예산!

-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회 주택 공급업체이자 북미에서 두 번째로 큰 사회 주택 공급업체
- 토론토 시가 전액 소유하고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
- 2,100개의 건물과 5천만 평방피트의 주거 공간이 있으며 이는 90억 달러의 공공 자산에 달함.
- Toronto Community Housing 주택 및 커뮤니티는 토론토의 140개 지역 중 106개 지역에 있으며 60,000여 개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가구에 주택을 제공함.
- 110,000명의 거주자는 연령, 교육, 언어, 정신 및 신체 장애, 종교, 민족 및 인종이 다양한 배경에서 왔음.

- 📍 931 Yonge Street Toronto, Ontario, Canada M4W 2H2
- 🌐 www.torontohousing.ca
- 📘 www.facebook.com/TorontoCommunityHousing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조성한 펀드로 주거권 투쟁을 통해서 이뤄낸 민관협력의 성공 사례임.
- 한국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세입자'가 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운영에 직접 참여함.

설립

근거·목적

- 2002년 1월 1일 토론토 시에서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주택 공사(구 메트로 토론토 주택청, 시의 지방 공공주택을 관리)와 토론토 주택 회사(1999년 메트로폴리탄 토론토 하우스링 컴퍼니와 토론토 시 비영리 주택공사-당시 시티홈으로도 알려진-의 합병으로 만들어진 회사)가 합병하여 설립함.

- 핵심 임무는 거주자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하며 잘 관리되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 주민들을 서비스와 기회에 연결하여 주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동네를 만들고자 함.

주요 활동·연혁

-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회주택 공급자로, 약 8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운용 중이며 토론토 시 전역의 2,200개 건물에서 거의 60,000가구에 주택을 제공함.

운영 주체

- 토론토 시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음. 한국의 S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유사할 수도 있지만, 사회주택 사업만을 하고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지원방식과 대상

-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세입자 중 89%가 주거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저소득층으로, 거주자의 38%가 어린이와 청소년, 37%가 성인, 59세 이상의 노인이 25%이며, 가구의 90%가 RGI(소득연동형 임대료(Rent Geared to Income) : 토론토시의 보조금 프로그램임) 임대료를 지불함. 소득연동형 임대료는 총소득의 약 30%임. RGI 가구의 28%가 한부모 가족이고, 29%가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으며, 거주자의 23%가 정신 건강 문제를 안고 살고 있음.

제도적 조건

- 온타리오 주 주택 서비스법에 따라 토론토 시가 유일한 주주임. 주주로서 시는 사업을 지배하는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주주 지침을 제공함. 이 주주 지침 외에도 시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관련 업무에도 적용되는 지침으로 간주함. 또한 온타리오 주 주택 서비스법(Housing Services Act)의 위임된 권한에 따라 토론토 시는 서비스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함.

재정(예산)

-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거주자가 지불하는 임대료(55%)와 토론토 시 보조금(39%)에서 받으며, 나머지 6%는 상업 공간 임대, 주차, 세탁 및 케이블 요금, 투자 수익을 통해 얻음.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운영 : 시의원 3명과 시장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사람, Toronto Community Housing 거주자 중 선출된 2명을 포함한 9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하며, 이사회는 Toronto Community Housing를 관리·감독하고 관련 전략 계획에 대한 성과를 모니터링함. 또 사업 계획,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발표함.

- 세입자 참여 시스템(Tenant Participation System) : 입주자들은 워크숍을 통해 자신이 사는 건물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표단을 선출함. 대표단은 권역별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고 이 회의에서 기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선별함. 전체 안건을 결정하는 전체 회의인 '분배의 날'에 안건으로 제출할 사업을 확정함. 분배의 날에는 제출된 안건들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단이 사업을 최종 선정하여 CEO에게 전달, CEO가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음.

협력 방식과 대상

- 개발 자회사 : 리젠트 파크 개발 공사(RPDC), 철도 토지 개발 공사(RLDC), 알렉산드라 파크 개발 공사(APDC) 등 재무제표를 승인하기 위해 매년 회의를 진행함.
- 비개발 자회사 : 2001064 온타리오 Inc(법적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 수탁자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명 법인) 토론토 저렴한 주택 기금(TAHF- Toronto Community Housing이 유일한 구성원인 비주식 자본 자회사. 이 기관은 시, Canada Mortgage Housing Corporation 및 Toronto Community Housing을 대신하여 주택 소유 대출을 관리함)

참여 대상

- 토론토 커뮤니티 주택이 공급하는 주택의 세입자



리젠트 파크 커뮤니티가 운영한 'Sewing Climate' 패션쇼(2022.09), 입주주민들이 디자이너, 제작자가 되어 진행한 패션쇼이다.
출처 www.torontohousing.ca

Toronto Community Housing의 운영 가치 철학

존중

우리는 개인을 존중하고 공정성과 신뢰, 공정한 대우로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책임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우리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공개적이고 정직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작업 결과를 공유합니다.

커뮤니티 협업

우리는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노력과 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주민, 토론토 시, 이해 관계자 및 정부와의 파트너십을 모색합니다.

진실성

우리는 사회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게 기대하는 높은 기준을 최대한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권법에 따라 장애를 수용할 의무와 온타리오주 장애인 접근성 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R-PATH 위원회 운영/ 토론토 주택의 개인 접근성에 대한 책임위원회)

Toronto Community Housing



출처 www.torontohousing.ca

박아영 리포터가 소개하는 영국 지원조직



박아영 사회혁신 리서처

희망제작소 연구원으로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실행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사회혁신 분야의 국제교류 기관인 씨닷을 공동 창업했으며, 현재 사회혁신 리서처로서 혁신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신호와 변화를 탐구해 이를 해석하고 내러티브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공동번역한 책으로 '생명의 정원(목수채방)'이 있다.

리포터 인사이트

- 시민사회의 잠재력과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역할을 고민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변화는 단순히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만을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위기 상황과 사회 문제가 중첩되어 개인인 삶의 차원으로 변화가 깊숙이 들어왔고, 마주하기 힘들었던 불평등의 고리를 드러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앙집중식의 방식으로는 제대로 위기에 대처할 수 없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영국 내 풀뿌리 시민조직의 힘과 영향력을 재발견하고 재조명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지원조직의 전략과 파트너십, 활동에도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하기에 시간이 더 흘러야 변화의 양상을 밀도 있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커뮤니티를 돌보는 일부터 지역 단위의 도시계획이나 정책 단위의 일에 이르는 지원조직의 포괄적인 활동을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해석하며 담아보려 했습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공적 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낯설지만, 펀더(Funder)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영국과 유럽의 상황을 반영해 펀더 네트워크의 활동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일부라는 뚜렷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펀더의 역할을 고민하는 이들의 논의와 활동을 통해 폭넓은 펀더의 스펙트럼과 역할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국의 지원조직은 국내에 자주 소개된 바 있어, 리서치를 진행할수록 오히려 고민이 깊어졌는데요. 시작할 때의 고민과 포부가 충분히 담겼는지, 마무리한 지금 시점에 돌아보게 됩니다. 다른 연구자의 내용과 함께 잘 전달되길, 그리고 누군가의 레퍼런스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마무리합니다.”

London Funders

런던 펀더스

#펀더의_사회적_역할

#협력하는_펀더

런던의 시민 공동체를 위한 효과적인 펀딩을 고민하는

런던 펀더스(London Funders)

런던 시민사회의 자금 제공자와 투자자(이하 '펀더'로 통칭)의 네트워크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지원방식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허브 조직

📍 Toynbee Hall, 28 Commercial St London E1 6LS

🌐 www.londonfunders.org.uk

▶ www.youtube.com/channel/UCYOyHdK2N4FRJJtpWCQI_ww

🐦 @LondonFunders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최근 10여 년간 지역사회에서의 공동체 활동, 자발적인 시민들의 공익활동이 국내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나, 일상과 공동체 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에 투입되는 사회경제적 지원 및 투자는 부족한 현실임.
-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지원책이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펀딩 소스 및 방식에 대한 상상력과 구체적 실천 사례가 더욱 요구됨.
- 해외 비영리 영역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비영리 재단과 투자 기관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며, 사회·경제·정치·환경적 변화 속에서 시민사회의 주요한 구성 주체로서 적극적인 역할과 문화를 고민하기 시작함. 지원조직의 역할의 확장성과 활동의 변화를 모색하는 사례로서 런던 펀더스를 소개하고자 함.

설립 근거·목적

- 런던 펀더스는 자선단체(Charity)이자 유한보증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비영리단체 형태 중 하나)로 런던 지역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시민권을 향상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을 장려하는 자금 제공을 위해 설립
- 영국 내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더불어 런던 지역 내에서도 경제적 격차가 극심해지고, 브렉시트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이 계속되는 시기에 런던 시민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펀더는 어떻게 기여할지를 고민하며 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지원 프레임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 활동·연혁

- 2005년 펀더들의 네트워크이자 허브로서 공공, 민간, 시민사회 자금 제공자를 연결하여 공동의 큰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특정 문제에 시의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크게 회원 역량 강화 및 협력 활동, 학습 공유를 중심에 두고 활동함.
- 회원 기관 학습 및 네트워킹 : 회원 기관이 시민사회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펀더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이나 비영리 분야 등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최고의 펀더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피드백을 제공함.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정기 행사, 회의, 회원간 협업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함.
 - 주간 브리핑, 케이스 스터디를 비롯해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정보와 통찰, 성과를 담은 분석 보고서를 이메일과 블로그를 통해 공유하며, 이러한 정보 공유 및 학습 활동을 모든 일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
 - 2020년 3월부터 1년 동안 106개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3,000여 명의 네트워킹을 지원함.
- 펀딩 전략 및 이니셔티브 : 그렌펠 타워(Grenfell Tower) 화재 사건,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극복에 필요한 다양한 펀딩 이니셔티브를 수립함. 다양한 펀더의 참여와 협력 구조를 만들어 실용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구체화하는 기획 및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함, 이러한 펀딩 이니셔티브 수립은 많은 부분 영국 중앙 및 지방정부의 시민사회 지원 정책과 연계해서 이뤄짐.
 - 런던 커뮤니티 대응(London Community Response):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에 노출되어 삶의 기회가 제한된 소수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사회 지원책으로 67개의 펀딩 기관이 참여하여 런던 전역의 3,400여 개 이상의 커뮤니티 그룹에 5,700만 파운드(한화 약 910억 원)가 넘는 지원금을 배분

- 장소 기반 기부(Placed-Based Funding)로 시민 활동 지원: 지리적 의미의 장소를 넘어, 커뮤니티 내 상호 작용과 변화를 가져오는 관계, 경험 및 시스템의 관점에서 장소를 바라보고, 런던 자치구에서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20개 이상의 활동에 기부하는 계획의 개발을 지원함. 런던 펀더스는 2021년부터 '장소에 관한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Place)'을 시작하여 런던이라는 지역의 맥락에서 장소를 바라보고, 이에 관련한 펀더와 시민사회 간 국내외 대화를 촉진함.

운영 주체

- 크게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운영되며, 영향력, 거버넌스, 시장에서의 지위, 외부 요인, 외부 신뢰도, 운영 및 내부 요인,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전략을 수립함.

지원방식

- 런던 펀더스의 목적이 런던 시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투자 방식의 혁신에 있기에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과 공공의 자원이 유의미한 활동에 닿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식
- 공간적으로는 런던시 전역에 걸쳐, 예술에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의 활동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검토함. 펀더 간 협력과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펀더의 창조적인 역할과 지원방식을 개발함으로써 현장을 간접 지원함.
-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의 런던 커뮤니티 대응(London Community Response)을 들 수 있음. 팬데믹 위기 동안 시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시민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취지에서 국내외 다양한 펀더들의 이름으로 시민사회 지지 성명을 발표함. 동시에 '우리는 시민사회와 함께 합니다(We Stand With the Sector)'라는 슬로건으로 갑작스러운 재정적 압박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시민사회 조직이 투자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준과 평가 방식을 단일화한 통합 프로그램을 시작함. 영국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4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펀딩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금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와 규모에 맞는 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혁신적이고 대담한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
- 정부와의 관계에서 런던 펀더스는 영국 정부의 시민사회 전략에 따른

지원방식과 시행 정책을 활용하여 지역 내 필요한 펀딩 활동을 기획 및 실행하는 방식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되, 시민사회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선하며 시민사회와 펀더들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함.

재정(예산)

- 애뉴얼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3월 31일 회계일 기준 1년 동안 총수입은 568,625파운드(한화 약 9억 1,500만 원)이며 총 85,420파운드(한화 약 1억 3,700만 원)의 이익을 남김.
- 독립 기관으로 정부나 특정 기업의 위탁 지원이나 일반 재단처럼 자체적인 기금을 운용한 수익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 주요 수입은 가입한 회원 기관이 내는 회원비, 공공 및 재단 보조금, 그 밖의 일반 기부, 그리고 전문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서 나옴.
- 준비금(Reserve) 정책: 2021년 준비금 정책을 마련해, 최소 6개월 총지출에 해당하는 자유 준비금을 확보해두며 운영의 안정성을 꾀함.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주요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며, 선출직 이사는 최대 12명으로 최대 3년의 임기를 유지하며, 런던 펀더스 정회원(London Funders' Full member) 중에서 선출됨.
- 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은 런던 펀더스의 프로젝트 및 교류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함.

협력 방식과 대상

회원 기관

- 런던 펀더스의 멤버십 구조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회원 기관은 보조금·위탁기금 배분 기관, 정책 및 연구 기관의 직원과 수탁자임. 준회원은 기금 지원을 주 소관 업무로 두진 않으나 시민사회 지원 기관으로 런던 펀더스에 소속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 참여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
-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 및 정보 공유, 이벤트와 네트워킹 기회 마련,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을 도울 새롭고 전략적인 이니셔티브 제안, 지역별 포럼을 통해 회원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함.

정부 및 공공기관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해 영국 정부는 시민사회 자원봉사 부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경제·교육·문화 등 여러

부문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 등을 내놓음. 펀더스는 이러한 정책 자금을 펀더들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여 자원을 지역 사회에 연결함.

- 펀더의 역할과 새로운 지원방식에 대한 공공의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자치구 단위로 지속적인 대화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함. 램베스(Lambeth)구나 서더크(Southwark)구 등 런던의 자치구 위원회와 함께 포럼을 열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공공·민간 펀더와 정책가, 시민사회 단체가 논의하는 구조를 코디네이션 함.

참여 대상

- 회원 대상은 전국 및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펀딩 기관들, 필란트로피 네트워크 공공 부문의 기금 제공자, 민간 투자자임.
-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런던 지역의 시민사회 기관, 자원봉사 단체, 커뮤니티 활동 그룹임. 공적 자원과 권한이 지역 사회로 갈 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시민사회 조직이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 자금의 분배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자 함.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독립적인 자선 단체이자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다하는 것에 중점을두고, 네트워크간 협업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역할로서의 조직적 포지셔닝을 명확히 함.
- 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 기후위기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제에 시민사회가 시의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자선 부문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집중하여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조직을 지향함. 향후 10년 동안 형평성과 정의에 원칙을 두고 런던 지역의 커뮤니티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조성하고 있음.



출처 www.londonfunders.org.uk



Action Together

액션 투게더

#지역기반조직

#코로나와_시민사회

활기 넘치는 커뮤니티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지역기반조직 액션 투게더

그레이트 맨체스터의 올덤(Oldham), 로치데일(Rochdale), 태임사이드(Tameside) 지역에서 자원활동·커뮤니티·종교·사회적기업 조직을 지원하는 지역기반조직

📍 95-97 Penny Meadow, Ashton-under-Lyne OL6 6EP

🌐 www.actiontogether.org.uk

✉ info@actiontogether.org.uk

📘 www.facebook.com/WeActTogether

▶ www.youtube.com/channel/UCzbLizY8DUZUcl0ggmyAcTA

🐦 @WeActTogether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2010년 영국의 빅소사이어티(Big Society) 정책 이후 시민사회 지원에 관한 공적 자금의 삭감으로 인해 시민사회 조직 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함.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는 시민사회의 고민과 어려움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였고, 모두의 일상을 비롯한 사회 전체의 위기에 대응하는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중요해짐.
- 그레이트 맨체스터 지역의 지역기반조직(Local Infrastructure Organization)인 액션 투게더는 공공 서비스 제공의 파트너로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커뮤니티가 활력과 회복력을 갖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기반조직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어떻게 개인과 커뮤니티의 회복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지 보여줌.

설립 근거·목적

- 자선사업조직(Charitable Incorporated Organisation, CIO)으로 설립됨. 2006년 영국의 자선단체법(Charities Act 2006)이 통과되면서 자선사업을 용이하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도의 새로운 법적 형태
- 역할 면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기반조직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고 활동함.
 - 지역 내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Voluntary) 조직, 커뮤니티(Community)조직, 종교(Faith) 단체,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하 VCFSE)의 역할을 촉진
 -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공동의 의사 결정과 정책 디자인을 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
 - 지역의 비전 달성을 위해 VCFSE의 역할이 필수임을 공공기관이 인식하도록 함.
 - 지역 내 자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하고,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임.

주요 활동·연혁

- 2016년 올덤지역의 VAO(Voluntary Action Oldham)와 테임사이드 지역의 CVAT (Community and Voluntary and Action Tameside, CVAT)의 합병으로 설립됨. 당시 시민사회에 대한 공공 영역의 재정적 지원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뤄진 합병이었으며, 그레이트 맨체스터 지역에서 단체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성터에 대한 지원 역량 또한 강화됨.
- 프로젝트
 -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 커뮤니티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활동을 시작하도록 사회적 연결성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건강이나 웰빙을 개선하는 데 지원함. 액션 투게더는 개인을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나 조직에 연결하는 역할을 함.
 - 헬스워치(Health Watch, 올덤과 테임사이드 지역) :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건강보험공단)와 협력하여 건강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 경험, 우려를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파트너십 : 지역 사회를 대표하여 전략적 파트너십에 참여
 - 자원봉사 조직, 종교 및 사회적기업 조직, 지역 당국, 의료 기관 및 전문가, 경찰청과 같은 공적 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 수행 (예: 번영하는 커뮤니티(Thriving Communities) 프로젝트, VCFSE섹터를 지원하는 합작 벤처 10GM)
- 자원 활동 : 개인별 적합한 자원 활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조직이 지역 조직이 자원활동 정책, 프로그램, 역할을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투자 : 회원 조직을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 자체적인 보조금 프로그램의 정보를 제공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개발 : 비영리 조직 설립, 사업 계획부터 정책 개발 및 자금 조달 지원까지 조직 관련 모든 측면에서 신규 및 기존 그룹을 지원하며, 특히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전문성 제공
- 리서치 : VCFSE 영역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기여를 분석하는 연구 보고서인 '섹터 현황 보고서(State of the Sector)'를 발행함. 지역사회가 VCFSE 조직과 영역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갖도록 전체 규모, 범위, 확산, 다양성에 대한 현황과 분석 결과를 담고 있음

운영 주체

- 독립 법인으로, 총괄 관리 기구로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올덤과 테임사이드 지역 사무실에 74명의 정규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지원방식

- 지역 내 발전을 위한 기반 조건 제공
 - 여러 섹터의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유무형의 지원체계를 형성함.
 - 공공 및 민간 자원을 동원하여 공동의 서비스를 만들거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창구를 마련함.
 - 주민들이 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지역 문제에 관해 협의하고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재정(예산)

- 수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역 발전 사업, 자원 활동 프로젝트, 파트너십, 협력 사업을 통해 들어오는 정부 보조금 및 프로젝트임.
 - 2021년 3월 31일 회계일 기준 1년 동안의 총수입은 4,753,783파운드(한화 약 76억 380만 원)이며, 총지출은 4,009,572파운드(한화 약 64억 1,300만 원)임.

정책적 환경

- 2010년 빅 소사이어티(Big Society)라는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이후, 영국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을 약속을 해왔지만, 오히려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그리고 법정 기금과 공공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민사회 조직 간 경쟁 증가로 인해 섹터 내 어려움이 가중됨.

- 시민사회가 사회경제적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하고 공공 기관과 협력해 왔지만 시민사회의 영향력과 성과에 대한 입증의 부족과 국가적 재정 긴축으로 인한 지원의 감소는 여전히 제3섹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음.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총괄 관리 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으며, 이사회는 최대 14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 그 중 12명은 액션 투게더의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2명을 구성원의 동의하에 추가로 선임할 수 있음.
- 단체의 운영은 최고 경영자(CEO)에게 위임하며, 리더십은 최고 경영자, 재무 이사, 운영 이사, 그리고 올덤, 로치데일, 테임사이드에 있는 3개의 지역팀 관리를 담당하는 3명의 리더로 구성함.
- 재정에 대해 분기별 감독과 조사를 담당하는 하위 그룹을 두고 있으며, 필요시 인사나 전략과 같은 주제에 대해 하위 그룹을 설치하여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협력 방식과 대상

- 액션 투게더의 활동에 있어 타 자선단체, 지역기반조직, 공공 기관 및 정부 조직과의 파트너십이 큰 비중을 차지함. 현장을 중심으로 3,000개가 넘는 VCFSE 조직과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 조직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도록 장려하며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거점이 됨. 지역 어젠다에 적합한 현장 중심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되, 이들의 원칙은 미리 정해진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단계에서부터 결합하는 것임.
- 이러한 원칙하에 지역기반조직으로서 정책 과제부터 현장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협력 구조를 만들고 있음. 예를 들어, 그레이터 맨체스터 정부의 정책 파트너로서 지역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해 권한 이양(Devolution)과 공공 서비스 개혁 등의 제도 변화를 목적으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음.

참여 대상

- 올덤, 로치데일, 테임사이드 내 VCFSE 조직 (2020년 자체 조사 기준 3,788개)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여러 사회·경제·정치적 요소가 개인 및 지역 간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상황에서 VCFSE조직과 사회적 경제는 지역경제의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주목받음. 지역 구성원들의 지역경제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지역 발전에 대한 이점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으며, 공공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취합하는 역할로서 액션 투게더와 같은 지역기반조직의 역할 또한 중요해짐.
 - 액션 투게더는 그레이터 맨체스터 지역에서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도시 지역의 사회·경제 구조에 필수적인 요소를 채우는 역할을 자임하면서, 지역 사회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공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성과를 증명하고자 함.



출처 www.facebook.com/WeActTogether



영국 ③

Paddington Development Trust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

#커뮤니티주도시역재생

#개발트러스트

공동체 자산 활용으로 지역 활동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 사회경제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던 런던 패딩턴 지역에서 지역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기반의 재생 사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례

- 📍 The Stowe Centre, 258 Harrow Road, London W2 5ES
- 🌐 www.pdt.org.uk
- ✉ hello@pdt.org.uk
- 📘 facebook.com/Paddingtondevelopmenttrust
- 📱 @lovepaddington
- 📷 @pdtlondon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Community Development Trust)로 지역 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지원 조직으로 꼽힘.
- 개발 부지가 집중되어 있는 런던 시내 중심 지역에 위치한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지역 자산 복원 및 개발, 취약하고 고립된 주민 지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며 포괄적인 지역발전의 중심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옴.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커뮤니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이때, 현장 중심의 경제·사회·환경 재생에 기여하는 개발 트러스트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성공적인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로 꼽히는 패딩턴의 사례에 주목함.

- 설립 근거·목적**
- 1997년 웨스트민스터 시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패딩턴 지역의 4개 워드(Ward, 영국 지방의회 구성단위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의 경제 쇠퇴와 지역 커뮤니티 붕괴에 맞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함. 1998년에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는 활동을 커뮤니티 기반의 혁신과 파트너십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하고자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를 설립함.
 - ‘자원 공유, 커뮤니티 권한 강화, 재정적 자립, 환경적 지속가능성, 모든 커뮤니티에 주어지는 동등한 기회’라는 다섯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개발에 집중해 개인과 커뮤니티가 모두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만들고자 함.

- 주요 활동·연혁**
- 1998년 10월 자선단체이자 커뮤니티 재생을 목적으로 한 유한보증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with Regeneration Objectives)로 설립됨. 빈곤지수와 실업률이 높은 지역 내 4개의 소외된 구역인 퀸스 파크(Queen’s Park), 해로우 로드(Harrow Road), 웨스트본(Westbourne), 처치 스트리트(Church Street)를 중심으로 개인의 삶의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강 및 보건, 교육, 고용과 같은 요소를 지원의 핵심에 두고 지역 주민의 삶과 공동체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
 - 활동은 크게 패딩턴 지역의 문화 및 창조적 재생,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기후 위기 선언 지원, 지역사회 건강, 사회적기업 멘토링,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산 기반의 개발, 지역사회 자원봉사로 나눌 수 있음.
 - 자산 기반 프로젝트 : 스토 센터(Stow Center) 등 지역 내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커뮤니티 건물인 그랜드 정션@성 막달라 마리아(Grand Junction@St Mary Magdalene) 운영 등 자산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공동체에 투자함.
 - 2019년에 리모델링을 마친 ‘그랜드 정션@성 막달라 마리아’ 커뮤니티 건물은 영국 내 교회를 임대해 진행하는 최초의 지역 사회 프로젝트임. 해당 교회 지역은 런던 내에서도 손꼽히는 빈곤 및 소외 지역이었으나, 현재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런던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주목받음.

- 커뮤니티 거버넌스 :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주택, 보건, 경제 등의 지역 어젠다를 논의하는 ‘지역계획 포럼(Neighbourhood Planning Forum)’을 조직하여 공식적인 지역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함.
 - 지역계획 포럼은 런던 지역 최초로 워드(Ward) 단위의 시민 위원회인 퀸스 파크 커뮤니티 위원회(Queen’s Park Community Council) 설립에 기여함.
- 지역사회 기업 멘토링 : 청년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 금융, 의료 및 고용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는 청년 교육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함.
- 지역사회 파트너십 : 지역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역 주민, 시의회, NHS(National Health Service, 영국건강보험공단)와 같은 주요 서비스 제공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4개의 지역 허브(Neighbourhood Hub)를 운영함. 주민들이 커뮤니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너십의 장으로 맞춤형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함.
- 2015~16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상(Sustainable Communities Award) 수상(City of London Corporation 선정)

운영 주체

- 1970년대부터 등장한 개발 신탁(Development Trust)은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 지원조직을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파트너십 조직임.
- 정관에 따라 이사회가 운영을 관리하며, 사업 계획과 조직의 일반적인 운영을 통제함.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과 사무국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정기 모임을 개최함.
- 2018~19년 기준으로 사무국은 36명의 정규 직원을 두고 있으며, 7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활동하고 있음.

지원방식

- 시작 당시 정부의 도시재생 예산으로 지역 주민 참여와 파트너십 기반 활동을 시작한 패딩턴 개발 트러스트는 영국 정부를 비롯한 유럽 연합과 같은 공공, 그리고 민간의 보조금을 지역 사회 활동과 연계(예 : 이큅 커뮤니티 보조금(Equip Community Grants)하거나, 프로젝트 계약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기반의 조직을 지원함.

- 정부 지원금 이외에도 기존 커뮤니티 시설을 개조 및 운영, 지역 자산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이익을 창출하고 지역 자원봉사 활동 조직, 공간 프로그램 운영, 청년 교육 지원, 주민 교육, 지역 축제 등 지역 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함.

제도적 조건

-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는 정부나 민간(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 주도로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영국 내 대표적인 모델임. 상향식(Bottom-up)의 의사결정 방식, 공공이나 민간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공공 및 민간 영역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협력 구조 안에서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원칙이자 방향성임.
- 개발 트러스트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자산 기반의 영리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지역 재생과 관련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자산화 전략이 있음. 이 전략은 2011년 통과된 ‘로컬리즘 법안(Localism Act)’과 관련이 깊음. 중앙 정부로부터 지역 공동체와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예산 결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에는 지역 내 가치 있는 자산을 공동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음.
 - 정부의 역할은 지역 주민의 요구가 해결되도록 자산 활용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조정하는 조력자의 역할이며, 지역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을 개발하고 진행하는 역할은 지역 공동체 조직의 역할이 됨.

재정(예산)

- 2021년 3월 기준으로 총 수입은 3,705,398파운드(한화 약 59억 3,700만 원)로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자선 활동(Charitable Activities)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영업 활동과 기부 수입. 총 지출은 3,750,926파운드(한화 약 60억 1,000만 원)로 모두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사용함.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개발 트러스트의 의사 및 정책 결정은 공공, 지역사회, 자원 활동 영역, 민간 부문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는 신탁 이사회의 역할이며, 연령과 다양성의 요소를 고려하여 구성함.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의 의미에서 이사진은 무급으로 활동함.
- 조직은 주 사무국, 그랜드 정션(Grand Junction) 팀, 커뮤니티 팀, 고용팀, PDT 교육팀, 스토우 센터(Stowe Centre)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협력 방식과 대상

- 지역 주민, 커뮤니티 조직, 자원봉사조직, 중앙 및 지역 정부, 공공기관, 재단 및 민간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 구조 안에서 활동함.
 - 웨스트민스터 시 의회(Westminster Council), 런던 지역의 커뮤니티 기반 조직과 파트너십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었음.
 - 유럽연합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이나 빅 로터리 펀드(Big Lottery Fund) 등의 공공-민간 자원을 지역에 연계
 - 모든 사업과 활동이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건강 및 커뮤니티(Health&Community),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이슈는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만들었음.

참여 대상

- 지역 주민, 지역 내 자원 활동, 시민 활동 그룹, 종교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 등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1997년 지역의 주민들의 자조 모임으로 시작한 조직인만큼 커뮤니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이 기관의 존재 목적임을 강조함.
- 코로나19 팬데믹과 정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커뮤니티 기반의 솔루션을 채택했던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지역 내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나 기후 비상선언(Climate Emergency Declaration), 사회 정의와 같은 국내외의 거대 사회문제를 지역사회에서 다루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출처 www.pdt.org.uk



안연정 리포터가 소개하는 대만 지원조직

중국

① 열린 문화 재단

② 거브 제로

③ 그린 플랫폼 재단

대만

⑥ 한국 여성 전문 리포터

안연정 연구활동가

20대에는 서울에 위치한 홍대 앞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였으며, 30대에는 사회적기업 ‘문화로놀이짱(norizzang)’을 설립하고, ‘도시에서 소비자로서만 존재하는 삶을 전환하기 위한 생활생산시스템’을 구상하던 중 버려지는 재료와 도구들을 공유하는 공공 제작소 시나리오를 실현하게 되었다. 제작소의 지속가능한 운영 전략의 하나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리서치하던 중 방치된 (구)마포석유비축기지를 발견하고, 비공식 점유 활동에서 시작하여 시민들과 함께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제안하고 개발하는 장소만들기 프로젝트(비밀기지)를 주도하게 되었다. 비밀기지 활동은 시장 논리와 부동산 개발에 압도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개인 레벨, 커뮤니티 레벨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해법을 찾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이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의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청년들이 자기 기반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경로를 만들어 가는 일을 지원하였다. AYARF(Asia Young Activist Researcher Fellowship) 라는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런칭하며 기후위기·디지털 시민기술·도시 디자인이라는 어젠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액티비스트 리서처들의 글로컬한 협력플랫폼을 기획, 운영한 것을 계기로 열린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활동에 비전을 가지고 탐색 중이다.

리포터 인사이트

• 개방된 디지털 기술과 시민 참여를 연결하여 ‘다음’을 그린다.

“저는 ‘대만의 시빅 해커들은 어떤 지원 생태계 안에서 협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을까?’와 ‘해바라기 운동 이후 대만 사회는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누구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란 질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020년 AYARF¹⁰를 통해 만났던 대만의 오드리 탕(Audrey Tang) 디지털 특임 장관과 한국의 시빅 해커 커뮤니티인 ‘코드 포 코리아¹¹’를 통해 시빅 해커의 활동과 오픈 소스 커뮤니티 그리고 오픈 데이터와 열린 정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의 활동과 가치, 철학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지 탐색하게 되었습니다.

지표상으로 보면 대만과 한국의 디지털 시민참여 기반은 세계적인 수준이라 합니다. 팬데믹 이후 마스크 재고 이슈와 공중보건 대응에 관련하여 발 빠른 대응을 보여준 대만 정부와 시민사회 활동은 한국에도 많이 소개되었지요. 이번 리포트에서 소개하게 된 열린문화재단과 g0v는 개방된 기술(오픈 테크) 활용을 통한 사회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디지털 기반의 마스크 재고 관련 대응은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었지요? 조사를 통해 대만 사회는 다양한 어젠다에 관해 개방된 기술을 활용, 개발, 공유하며 오픈 데이터 및 오픈 소스 운동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개인 참여에서부터 커뮤니티 참여에 이르기까지 현장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활동은 개방(open)의 목표가 포용적이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함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개하는 사례들은 자원을 만들고, 성과를 공유하고, 성장을 지원하고, 활동을 연결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임팩트를 만드는 과정이 빠짐없이 공개되어 있었고요.

세 번째로 소개한 그린 플랫폼 재단은 대만의 미래가 다음세대에 달려있고, 이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명확한 메시지와 구체적인 활동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공론장을 조직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세계에 닥친 문제들을 넓고 깊게 응시하며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몰입하고 있는 연구 활동들이 분절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이 인상적입니다.

대만은 한국과 달리 정부 주도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 형태는 찾을 수 없었는데요. 자원의 출처는 달라도 미래세대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시민 참여 역량을 키우고, 집합적인 힘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과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하는 모습은 한국과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소개하는 대만의 활동들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실험과 혁신을 더 과감하고 짜임새 있는 생태계 안에서 시도하고 있던 인상을 받았습니다.”

10 www.ayarf.net

11 www.codefor.kr

안연정 리포터 대만 지원조직

Open Culture Foundation

열린 문화 재단

#오픈소스

#오픈데이터

#열린정부

보다 투명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시민 사회를 지원하는 행동주의

대만의 기술 커뮤니티(tech community) 지원 및 개방형 기술(open tech) 장려를 통해 모두를 위한 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만드는 비영리 조직

- 📍 (10566) No. 636-1, Sec. 4, Bade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105, Taiwan (ROC)
- 🌐 ocf.tw
- ✉ hi@ocf.tw
- 🐦 twitter.com/ocftaiwan
- ▶ www.youtube.com/c/OcfTw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오픈 소스, 오픈 데이터, 열린 정부를 키워드로 시민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조직임. OCF는 개방형 기술(open tech) 기반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픈 소스 및 오픈 데이터 생산과 공유에 관한 철학과 원칙을 수립하고, 대만 사회에서 다양한 어젠다를 가지고 활동하는 개방형 기술 커뮤니티를 육성·지원하며 크고 작은 이벤트와 포럼을 통해 오픈 컬처(Open Culture) 확산을 꾀하고 있음. 이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협업을 통해 열린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책 생산 및 옹호 활동에 앞장서며 오픈 컬처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중임.

설립 목적

지역 사회와 글로벌 개방형 기술 커뮤니티 사이의 중간 조직 역할

- OCF는 오픈 컬처가 사회 혁신의 토대이자 참여 민주주의의 엔진이란 믿음에서 출발하여, 대만 사회의 개방형 기술 커뮤니티의 재정 후원자 역할을 하기 위해 2014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임.

오픈 컬처(Open Culture)란?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문화로, 공개와 공유 가능한 소스 코드를 장려함으로써 누구나 수정 가능하고, 누구나 기술 개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술 개선을 위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열린 문화의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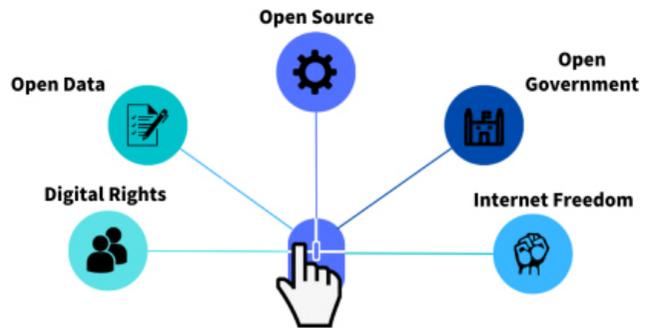
개방성을 통해 지식과 기술이 소수의 민간 기업과 기술 전문가에 의해 독점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 개방성이야말로 모두의 빠른 성장과 지속가능한 기록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런 종류의 개방된 문화가 디지털 시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OCF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행동을 결정할 때 다음의 원칙을 기준으로 함.

열린 문화 원칙

-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즉시 오류를 비판하지 않고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 피드백이 필요할 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 작업 프로세스 중에 개발된 모든 초안 또는 모델 프로토타입은 초기에 자주 공개되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의 문제가 없고 작업을 위한 충분한 인력이 있는 한 모든 정보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 모든 프로젝트의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모든 경험과 지식도 외부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 오픈 소스 기술과 서비스를 합리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기업 소프트웨어에 의한 독점을 피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커뮤니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활동영역과
주요 활동**

5가지 주요 영역



열린 문화 재단의 5가지 주요 영역

출처 ocf.tw

- OCF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주최한 컨퍼런스를 계기로 다수의 대만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재원을 마련하고 공동법인을 설립하게 되면서 2014년부터 비영리 조직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음.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오픈 하드웨어·오픈 데이터를 포함한 광범위한 부문에서 개방형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기위해 지역 사회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함. 이는 정부, 기업 및 시민사회가 오픈 소스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공영역에 공개 데이터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을 하며 지역 사회에서 오픈 소스 관련한 대규모 회의, 세미나, 해커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OCF는 글로벌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 단단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으며, 전 세계 시민 기술(civic tech) 그룹과 정기적으로 경험을 교류하는 등 지역 사회와 글로벌 개방형 기술 커뮤니티 사이의 중간 조직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개방형 기술에는 3가지 차원이 포함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개발, 재배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누구나 유사하게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
 - 투명하고 참여적이고 포용적이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열린 정부

- 오픈 소스(Open Source) :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참여적인 오픈 소스 기술 운영을 통해 누구나 기술을 사용하고 문명의 발전과 기술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음.
- 오픈 데이터(Open Data) :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개방형 데이터

- 구현, 이를 통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게 하여 지식 공유 및 공공 정보 확대에 기여함.
-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방식을 통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촉진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새로운 잠재력 창출 지원
- 인터넷 자유(Internet Freedom) : 인터넷의 보편성(분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보장, 인터넷의 개방적 토대 마련을 통한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 사이의 균형 찾기
-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 : 온라인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시민의 인권(사생활의 권리 등)과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권리(인터넷 접속권 등)의 보호

주요 활동

- 크게 자체 프로젝트 추진과 커뮤니티 지원 활동으로 나뉨. 2022년 기준으로 진행 중인 자체 프로젝트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제공과 컨설팅 지원, 투명한 디지털 ID 도입을 위한 입법 활동, 대만의 오픈 소스 커뮤니티들의 열린 문화 관련 국제회의의 참가 지원,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지원 등이 있음.
- 커뮤니티 지원 : 개방형 기술 관련 커뮤니티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커뮤니티의 성장을 위한 컨설팅 제공 및 공동 활동 계획 수립 지원(2021년에는 7개의 온라인 이벤트, 30개의 커뮤니티 프로젝트 계속 지원)
- 인재 양성 : 개방형 기술 및 디지털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모으고 육성하기 위한 장학 프로그램 운영, 교육 채널 및 플랫폼 제공
- 지식 교환(Knowledge Exchange)
 - 지식 공유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다양한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교환
 - 열린 기술, 디지털 인권, 인터넷 자유의 개념과 사용을 촉진하는 온·오프라인 이벤트 참여 및 개최
- 모니터링과 애드보커시
 - 정부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시민사회의 기술 활용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확보를 통해 관련 법률과 지침의 기준 마련
 - 정책 모니터링 및 애드보커시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모으기
 - 오픈 데이터 생태계 구축 및 eID(디지털 ID) 입법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

- **국제 협력**
 - 국제 행사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다자간 협력 추진
- **오픈 소스 프로모션**
 - 디지털 생활과 일, 작업 등 모든 영역에서 오픈 소스 코드 및 도구 사용 촉진
 - 재단은 가능한 한 오픈 소스 도구를 사용하여 활동하며, 재단에서 생산한 모든 지식을 공개함(CC 라이선스 사용)

활동 사례

- ‘열린 정부를 위한 국가 실행 계획’ 발표와 이행 협력 : 2020년 오픈 거버넌스 파트너십(OGP¹²) 국제표준에 따라 대만 정부는 첫 열린 정부 국가 행동 방안을 발표하였음. 국제정세로 인해 대만은 OGP 비회원국이지만, 열린 정부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정부, 입법원,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OGP 프레임워크에 대만 최초의 ‘열린 정부’ 및 ‘열린 의회’ 실행계획이 발표되었음. 이후 각 부처는 공약 이행에 나섰고, 2021년 시행과정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며 OCF와 협력하였음. 관련 활동으로는 20201 열린 정부 역량 강화 워크숍, 2021 열린정부시민포럼, 2021년 열린 정부 국제 웨비나(Open Government International Virtual Forum), 입법원, 의회 행동 계획 개시 등이 있음.
- OCF Lab : OCF에서 운영하는 정보 플랫폼으로 2019년 7월 설립. 디지털 시민 기술 및 오픈 소스 관련 데이터 수집, 뉴스 번역 및 기초 연구를 수행해왔음. 디지털 인권, 인터넷 자유, 데이터 프라이버시, 검열 모니터링, 시민 기술, 오픈 소스 코드, 오픈 데이터 관련 기사를 생산해 왔으며 현재까지 82개의 디지털 시민 주간 보고서와 158개의 중국어와 영어 버전의 기사 및 칼럼을 발표. 그러나 2022년 4월 30일 공식적인 활동을 종료했음. 편집 및 취재 역량 부족 등을 이유로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이후 OCF 재단 사업으로 전환하여 인재양성, 이니셔티브 조직, 조직간 협력을 통해 개방형 기술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힘.

운영 주체

- 재단은 13명의 스태프와 6명의 실습파트너, 5명의 이사, 4명의 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원활동가들의 큰 도움으로 운영된다고 소개되어 있음.

12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 : 2011년 미국, 영국, 브라질 등 8개국이 공동으로 열린 정부 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을 구성하여 전 세계 정부에 대한 시민 참여, 투명성 및 개방 정신을 촉구. 2년마다 실행 계획을 제출하며, 현재 77개 국가와 106개 지방 정부와 수천 개의 시민 사회 단체가 포함되어 활동 중.

- **지원방식**
 - 30개 이상의 오픈 소스 관련 프로젝트 시행과 커뮤니티에 대한 재무 관리, 컨설팅 등 조직운영 지원과 활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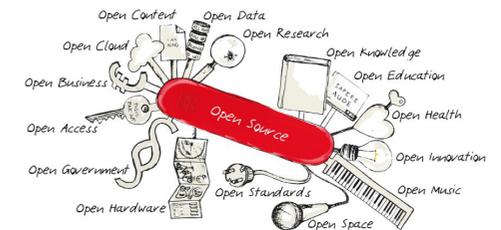
- **재정(예산)**
 - 2021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재원의 출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뉨. 하나는 OCF 재단 프로젝트 수입이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수입이며, 내역은 프로젝트를 통한 수입과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 정기·고정 기부 및 상품 판매임.
 - 2021년 재단의 프로젝트 연간 총수입 및 지출은 소득 NT\$ 19,145,153(약 8억 6천만원), 지출 NT\$ 16,148,451(약 7억 2천만원)이고,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연간 총수입 및 지출은 소득 NT\$ 21,051,847(약 9억 4천만원), 지출 NT\$ 12,711,705(약 5억 7천만원)으로 재무 보고서에 공개되어 있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여러 개방형 기술 커뮤니티, 개인 및 조직과 협업함. 협력 파트너로는 대만의 시빅 해커 조직 g0v(거브제로)를 비롯하여, OSI(Open Source Initiative), 리눅스 재단 등 열린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기업, 조직과 협력함.



협력파트너 소개

출처 ocf.tw



출처 ocf.tw

대만 ②

g0v 거브 제로

#정보투명성

#열린결과

#열린협력

분산된 시민 기술 커뮤니티, “아무도 g0v를 대표할 수 없다”

- 대만에서 설립된 풀뿌리 사회운동 조직
- 크고 작은 다양한 시민 기술 커뮤니티로 풀뿌리 권력을 만들어내는 공무에 참여함.

- g0v.tw
- g0v-talks@googlegroups.com
- www.facebook.com/groups/g0v.general
- www.youtube.com/c/g0vTW
- @g0vtw
- g0v-tw.slack.com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g0v 커뮤니티는 민간과 정부가 맞서는 전통적인 운동 노선을 깨고 분산된 시민 기술 커뮤니티를 기치로 데이터 개방과 열린 정부 운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냄.

설립 근거·목적

- 2012년 ‘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래밍’이란 슬로건을 걸고 출발하였으며, 열린 데이터와 열린 정부의 정신을 가진 수천 명의 커뮤니티이자 플랫폼으로써 대만의 시빅 해커 운동의 이니셔티브.
- g0v의 이름은 정부(government)의 ‘o’를 ‘0’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정부의 역할을 0에서 다시 상상하고 0과 1의 디지털 세계의 이진법을 차용하여 전통적인 정부(gov)를 바꾸기 위해 인터넷과

디지털 사고(digital think)를 활용하는 ‘제로 아워 정부’라 부름. 이들은 시민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정보와 권력에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g0v 협업 거버넌스 철학과 선언

“왜 아무도 이것을 하지 않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무도’입니다!”

g0v (제로 아워 정부) 선언

1. 우리는 모든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개방형 협업 커뮤니티입니다. g0v의 기여자는 모든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프로그램 개발자, 디자이너, 활동가, 교육자, 작가, 시민 및 네티즌입니다. 우리는 기술과 협력을 통해 대만의 시민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자기 기술과 전문 지식을 기꺼이 공유할 의향이 있다면 누구나 g0v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우리는 스스로 조직된 기여자들로 구성된 다원적 커뮤니티입니다. g0v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구성됩니다. 우리는 모든 g0v 프로젝트의 운영 및 거버넌스를 운영할 때 이 선언문을 합의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g0v 커뮤니티는 하나의 센터, 단일한 대표자가 없이 다원적으로 운영됩니다.

3. 우리는 변화를 위해 함께하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오픈 소스 운동에서 출발한 행동하는 시민입니다. g0v의 기여자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의 투명성을 지지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고 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합니다.

4. 우리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g0v 기여자들은 네트워크 도구를 통해 소통하고 협업하며, 오프라인에서는 해커톤을 통해 만나고 연결됩니다. 프로젝트의 결과(텍스트, 이미지, 코드, 연산 데이터, 데이터 분석 결과 및 프로세스 실행 방법을 포함한 모든 것)는 공개 라이선스로 공유되며, 더 많은 시민이 사용하고, 개선하고, 피드백하여 최대의 효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5. 우리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즐깁니다.
이 과정에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집단적 힘을 증폭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문 지식을 연결하고, 협력하며 새로운 영역을 탐험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하며 침묵하는 공범자가 되길 거부합니다.

6. 우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g0v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비영리 풀뿌리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프로젝트 참여, 지식, 노동력, 기부를 통해 해커톤을 후원하거나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g0v 선언에 동의한다면 g0v에 가입하여 하고 싶은 일, 기여하고 싶은 프로젝트,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을 만듭니다.

- 2019년 10월 20일 개정
- 2013년 1월 21일 ~ 2월 1일 초판편집과정
- 2013년 1월 21일 작성

주요 활동



52회 해커톤 '10주년 해커톤&포럼' 출처 g0v.tw



g0v 해커톤 모습, 열린문화재단은 g0v 해커톤의 협력 파트너이다. 출처 ocf.tw

g0v 해커톤¹³

- g0v 커뮤니티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온,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됨. '오픈 소스 협력'이라는 원칙에 따라 다양한 도시, 배경, 전문성을 가진 참가자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들을 찾아 각자의 장점을 발휘하며 협업함. g0v 커뮤니티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를 찾고 자원을 모으고 상호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생성·공유한 후 오픈 소스 라이선스에 따라 결과를 공유함. 2012년부터 시작된 Bimonthly g0v Hackathon은 두 달에 한 번 열리는 이벤트로 100명 참여자들과 함께하는 오프라인 행사임. 그 밖에서도 프로젝트 해커톤과 작은 해커톤 등이 정기적으로 열림. 해커톤을 통해 제안된 프로젝트는 더 큰 g0v 이벤트와 독립적인 커뮤니티 모임과 또 다른 해커톤으로 확장되기도 함.
- g0v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지향하며, 분산된 시민 기술을 통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문화가 중요함. g0v 문화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실행을 독려하는 방식이라 소개할 수 있음.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g0v는 다가오는 10월에 10주년 해커톤&포럼을 준비 중임.

g0v Grant : 시민 기술 프로토타입 보조금

- 재능 있는 개인과 팀이 커뮤니티에 합류하도록 장려하고 프로젝트의 개발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사회적 영향력 및 잠재력을 가진 프로젝트에 지원
- 「g0v Civic Tech Prototype Grant」 기금은 미디어 그룹, IT 기업, NGO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아 조성함. 조성된 기금은 공모과정을 거쳐 잠재력과 공익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한 팀에게 지원함. 프로토타입 개발, 유지 관리 작업에 투자하기 위한 참여 프로젝트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제는 정치 및 공무, 노동권, 환경 보호, 사회 복지 및 의료, 문화 및 학습 등 다양함. 선정된 팀에게는 NT\$300,000 - 500,000(한화 1,300만~2,200만원 가량)과 8개월의 프로젝트 개발

13 '해커톤'은 해커의 마라톤으로 참가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집중적인 협력 활동이다. 보통 1~2일의 제한된 시간 동안 제안, 팀 구성, 작업, 성과 보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많은 제안이 행사 전에 온라인 토론을 통해 진행되고, 당일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활동 내용이 빠르게 통합되어 짧은 시간에 성과를 만드는 방식이다.

기간을 줌. 프로젝트는 기술 및 자선, 열린 정부, 새로운 데이터, 데이터 체크, 커뮤니티 인프라 등 5가지 영역으로 진행되며 2017년부터 3년간 263개의 제안과 29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음. 2020년 기금의 재원 이슈로 기금은 중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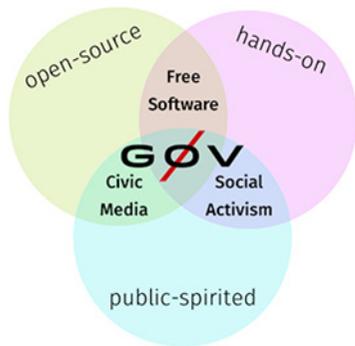
운영과 지원방식

- 2명의 상근자와 6명의 자원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부터 격월로 열리는 100인 해커톤은 'gOv Hackathon Group'이라는 워킹그룹이 운영. 조직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운영비, 대규모 해커톤 진행을 위한 진행 비용, 각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의 공간, 온라인 도구(HackMD, HackFoldr, flickr 앨범, 서버 프로그램 플랫폼 등)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 등에 사용됨.
- 2020년부터는 온라인 협업의 필요에 부응하여 협업 도구 개발을 위한 인력 투자도 진행 중. 활동 초기에는 대부분 참여자가 엔지니어 출신이었지만 현재는 60% 이상의 참여자가 디자인, 법률, 사회운동,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기술적 배경을 가진 시민들로 구성.



gOv성과 출처 gOv.tw

gOv는 무엇입니까?
 '데이터를 공개하고 공공 데이터를 만드는 일은 시민들이 정치 그리고 중요한 이슈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한다(Open Date). 그리고 우리는 시민들이 정부를 평가하고 정치인이 행동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Public Tools).'
 출처 gOv.tw



대만 ③

Foundation for Future Generations, Taiwan

그린 플랫폼 재단

#민주적_학습_플랫폼

#공공_거버넌스_인재양성

청년의 미래는 대만의 위대한 미래

-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설립한 조직
- '청년의 미래가 대만의 위대한 미래'라는 신념으로 미래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 촉진, 젊은 인재 양성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실행하는 조직

- 📍 10042 6F-1, No. 77, Section 1, Zhonghua Road, Zhongzheng District, Taipei City
- 🌐 future.org.tw
- ✉ contact@future.org.tw
- 📌 www.facebook.com/future4tw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대만 사회의 '다음세대' 지원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해결을 키워드로 활동하는 민간조직 소개
- 다음세대와 미래사회를 중심으로 한 싱크탱크이자 활동 플랫폼

설립 근거·목적

- 그린 플랫폼 재단은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10년 5월 '청년의 미래는 대만의 위대한 미래'라는 신념으로 설립되었음.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 민주적 거버넌스 연구,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의 싱크 탱크'로 자리매김함. 세대와 분야를 초월하여 대만의 미래와 대만 사회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각계각층의 젊은이들이 미래의 사회 비전을 비전을 응축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 경로를 개발함.

- 다양한 플랫폼에 학자, 전문가, 실무자를 초청하여 대화를 나누고, 혁신사회, 그린에너지 사회, 디지털 사회, 도시 생활, 민주사회의 사회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상상하고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 주제별 연구센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개 토론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데이터 기반의 공공 정책 활동에 참여함.

주요 활동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연구 센터의 7개의 플랫폼

지원방식

- 2021년 설립. 90년대 이후 발전되어 온 대만의 민주주의가 이제는 미래 세대의 기회와 행복을 손상하지 않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주주의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연구 조직 설립. 총 7개 주제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 주제의 플랫폼
 - ① 따뜻한 힘과 사회 공동체 : 사회와 개인이 서로를 지원하고 모든 사람이 자아실현의 자유를 가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공공지원 서비스 시스템(공공 서비스 비율 확대 등)구축 방안에 중점
 - ② 소프트파워¹⁴와 혁신경제 : 국가 경제개발 목표를 '대만을 최고의 삶의 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하여 개인과 사회의 소프트파워 발전에 주목
 - ③ 기후 변화와 에너지 거버넌스 : 사회의 제 영역과 청년 세대가 미래의 녹색 사회를 향한 로드맵 제작에 참여하여, 국경을 초월한 지원 시스템을 공동으로 탐색·구축
 - ④ 디지털 혁신 및 디지털 거버넌스 : 사람과 사회를 중심에 둔 디지털 사회 비전을 찾고 민주주의, 혁신 및 공공선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에 집중
 - ⑤ 민주적 거버넌스 : 거버넌스에 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무원 시스템을 조정하는 방법에 집중
- 정부 조직과 운영에 더 많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 유연한 임용 및 급여 시스템, 공무원의 유연한 인력 배치 등을 구축하는 방법 등

14 하버드 대학의 조셉 나이(Joseph Nye)가 고안한 개념으로, 군사적 개입, 강압적 외교, 경제제재 조치 등의 물리적 힘으로 표현되는 하드파워(Hard Power)에 반대되는 개념. 강제력 보다는 매력에 통해, 명령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끌리게 함으로써 스스로가 바라는 것을 획득하게 하는 힘을 나타내는 용어임. 조셉 나이는 세 가지 형태의 자원으로 소프트 파워를 분류했는데, 정신적 가치·문화·외교정책 임.

- ⑥ 도시 및 지역 거버넌스 : 도시 거버넌스 비전, 개념 수립, 제도적 시스템의 세 가지 측면의 도시 거버넌스에 집중
- ⑦ 민주적 국방과 국제적 링크 :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사회적 연결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대만을 주체로 하는 국제적 시각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이 플랫폼이 다루는 핵심 문제

민주적 거버넌스 연구소

- 공동 학습 플랫폼으로써 다양한 청년들이 공동 학습, 공동 생산, 토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문제와 관련한 미래 사회의 비전을 만들며, 공공 거버넌스 영역의 젊은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
- 최근 '비전 강연'과 '가까운 미래 학교'와 같은 특별 워크숍, 시민 캠프 등을 진행, 평균 100명 이상(최대 200명)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대부분 무료로 진행함

Cultural Transformer Station

- 문화가 가진 힘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만의 미래 사회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 'Cultural Substation'을 설립. 강의, 강좌,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문화 예술계와 각계각층을 초청, 전문 커뮤니티와의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함.
- 이는 대만 사회의 다음 단계를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문화 소프트파워를 사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만드는 작업이라 소개함.

운영

- 컨소시엄 법인 청년 플랫폼 재단이 운영. 청년 플랫폼 재단의 대표이자, 그린 플랫폼 재단 의장인 Zheng Lijun은 국회의원(2012-2016)과 문화부 장관(2016-2020)을 역임하였음. 교수, 연구원, 국회의원, 공무원으로 구성된 14명의 디렉터와 16명의 컨설턴트 그리고 118명의 자문위원, 80여 명의 강사 그룹이 함께하고 있음.



2022년 제9회 [무제정치경제학교] '누군가가 당신이 걱정하는 정치경제 문제를 걱정합니다' 공공정책에 관심 있는 16~40세 청년 1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치경제학교, 무제정치경제학교는 공동 사고, 공동 학습 및 공동 창조를 위한 플랫폼이라 소개함. 출처 future.org.tw

이가현 리포터가 소개하는 호주 지원조직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아르바이트노동조합으로 20대 초반 사회운동을 시작해 30대 초반이 된 현재는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다. 함께 운동을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의 인권, 씬, 관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다.

리포터 인사이트

- 활동가 정신건강, 조직 운영을 위한 법률 지원,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으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시원하게

“짧은 영어로 저 멀리 바다 건너 나라 호주의 지원조직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어와 번역한 글을 열심히 번갈아 쳐다보며 새벽까지 자료를 찾고 정리하느라 눈알이 빠지는 줄 알았지요.

호주 사회혁신 센터의 활동 중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정신건강 시스템에 종사하는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시민사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활동가가 경험적으로 늘어났다고 느꼈고, 정신 건강을 이슈로 제기하는 활동 영역도 생김 만큼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의의 연결은 공익 의제뿐만이 아니라 비영리단체의 설립과 해소 전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는 점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내의 공익변호활동은 의제를 중심으로 법률을 지원하는 경우만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빅토리아 사회봉사위원회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조력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단체들이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출발점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묘하게 다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지원조직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무한한 상상력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①

TACSI

호주 사회혁신 센터

#사회혁신

#사회적기업

사람들이 보다 연결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면,
호주 사회혁신 센터로 오세요

남호주 정부의 주도로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호주 전역에서 프로젝트와 사회 문제 해결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사회적기업

- 📍 애들레이드 : Level 1, 279 Flinders St Adelaide SA 5000
시드니 : 145 Redfern Street Redfern NSW 2016
멜번 : Our Community House 552 Victoria St North Melbourne VIC 3051
- 🌐 www.tacsi.org.au
- ✉ info@tacsi.org.au
- 🐦 @tacsi_innovate
- 📘 www.facebook.com/OzInnovation
- 📷 @oz_innovation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호주의 대표적인 지원조직으로 활동가, 자원봉사자와 조직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지역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활동가들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조직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주로 활동가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상향식 과정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것을 지역사회에 실험해보는 과정으로 진행.

설립 근거·목적

설립 선언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소외되고 취약한 커뮤니티가 남겨지거나 소외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시스템과 정책 중 많은 부분이 현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사람을 솔루션의 중심에 두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 지역 사회 및 정부가 함께 모여 가장 어려운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는 현실 세계의 문제에 대한 현실 세계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지역 사회, 조직, 자선 단체와 협력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와 미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요 활동 (Six action areas)

- ① **Future of Mental Health(정신건강시스템의 미래) :**
호주의 정신건강시스템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회혁신 마인드셋, 역량강화, 리더십 강화와, 회복과 예방 중심의 대안을 모색
- ② **Social R&D(사회적 연구개발) :**
사회, 경제,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R&D 인프라 구축
- ③ **The Future of Home(‘집’의 미래) :**
주택에 대한 접근권을 높이기 위해 임대와 모기지 이외에 대안을 모색하고, 인구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미래 시스템’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
- ④ **People Power Responses :**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역량을 가진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
 - Family by Family :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족 간 서로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호주 가족들의 삶의 변화를 지원
 - Weavers(위버스) : 가족의 질병을 돌보는 사람(보호자)과 간병인으로서의 경험을 가진 사람을 연결함. 이 과정은 반드시 보호자와 공동 설계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함. 2013년 론칭 이후 위버스는 호주와 뉴질랜드 전역의 8개 파트너와 협력하여 100명 이상의 보호자를 무급으로 지원.
 - Virtual Village : 위기상황에 있거나, 고립감을 느끼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가정폭력을 경험한 사람들, 약물중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가족들에게 훈련된 자원봉사자를 연결. 이 모든 과정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전문가의 코칭이 지원된다.

⑤ Regenerative Communities (재생 커뮤니티) :

환경, 사회,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대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시스템이 붕괴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자신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지원

- Our Town : 페이 풀러 재단과 함께 10년 동안 6개의 남부 호주 시골 및 지역 공동체의 정신 건강에 관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
- Fire To Flourish : 모나쉬 대학 및 풀 램지 재단과 협력으로 추진된 5년 동안의 프로젝트로 불이익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마을이 스스로 복구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⑥ Social Innovation Workforce(사회혁신가 양성)

- 사회 혁신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갖춘 리더, 실무자 및 커뮤니티 개발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힘쓰는 단체 ourtown에서 주최한 캥거루 섬 내 워크숍에 TACSI의 지원팀이 참여했다.
출처 www.tacsi.org.au/news-ideas/resilient-communities

운영 주체 • 초기에는 정부 주도였으나 현재는 민간 주도로 운영

- 지원방식**
- 사례연구
 - 연구 프로젝트 수행 후 보고서 작성
 - 정책개발
 - 변화에 필요한 단체, 정부, 혁신가, 자원을 연결해 네트워크 조직
 -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 사회혁신 컨설팅
 - 사업 모델 제안

재정(예산) • 사업에 따라 주정부(국무부, 외교통상부 등)가 전액 지원하거나 민간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8명(의장 1인 포함), 애들레이드(Adelaide), 멜버른(Melbourne), 시드니(Sydney)의 세 지역 사무소에 근무하는 40명의 팀원
 - 거버넌스의 세 가지 방식
 - 사회 혁신을 위한 능력과 조건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한다.
 -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 시스템 개발, 테스트를 위해 공동 팀을 만든다.
 - 혁신적인 팀의 창설을 지원한다.

협력 방식과 대상 • 개인, 지역사회, 자선단체, 지역사회, 정부, NGO 및 기업

협력 방식(How we can work together)

- 혁신 역량강화 지원(As capability builders) : 파트너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자원, 학습 코스, 코칭, 학습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의 혁신 역량 구축을 지원함.
- 컨설팅(As consultants) : 단기 집중 혹은 장기 파트너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이디어에서 구현에 이르기까지 참여형 프로젝트 디자인, 전략 개발 등을 제공함. 컨설팅은 센터가 활동해 온 여섯 가지 영역(Six action areas)에서 12년간 축적되어온 지식과 경험, 증거를 기반함.
- 연결과 촉진자(As connectors and facilitators) : 지속적인 변화를 같이 만들어 갈 파트너들을 연결하고 공동체의 아이디어를 네트워크를 통해 조정하고 촉진함.
- 장기 전략 파트너(As long-term strategic partners) : 장기 전략 파트너로서 사회적 영향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협력함.

참여 대상 • 사업의 내용에 따라 참여 대상이 다름.
- 공익재단, 호주 활동가, 자원봉사자, 지역공동체, 해외 시민단체, 일반 시민
- 가정폭력 등 위기 가족, 무급 간병인
- 공무원, 학자와 연구자

정치성과 독립성 • 2009년 남호주 정부 주도로 설립되어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정부와 독립적인 네트워크 조직으로 활동, 의사결정과 사업을 독립적으로 진행함.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2019년부터 권위적인 조직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조직문화와 조직구조의 변화를 감행함.
 - 전통적 계층 조직(피라미드 조직)에서 탈피해 네트워크 조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권력과 권위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로 조직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음.

출처 www.tacsi.org.au



호주 ②

Justice Connect

정의의 연결

#법률지원

#프로보노

#교육

활동과 법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
법률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보노 단체가 필요해

- 개인과 비영리단체에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단체
- 무료 변호운동에 참여하는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 📍 멜번사무소 : PO Box 16013, Melbourne VIC 8007, DX 128 Melbourne
시드니사무소 : PO Box 436, Darlinghurst NSW 1300
- 🌐 justiceconnect.org.au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Justice Connect는 비영리단체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삼는 조직으로 단순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디자인과 디지털 혁신에 주력함. 활용하기 쉬운 웹디자인을 통해 법률접근성 자체를 높이는 기획이 비영리 부문에서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설립 목적

- 1992년 설립
- 매년 수백만 명의 호주 사람들이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중 절반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의의 격차'라고 정의하고, 이 격차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함. 법적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들의 삶과 조직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가 법을 선의를 위한 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원대상은 개인과 비영리조직임.

주요 활동

- 우선순위 지원 그룹(Justice Connect's priority groups and projects)
 - 직장 내에서의 권리 지원(Workplace rights) : 해고노동자, 임금 착취, 직장 내 성희롱 및 차별, 이주 노동자 등의 문제에 대한 법률적 지원
 - 자연재해 지역 지원(Natural disaster community support) : 홍수, 사이클론,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를 겪은 이후에 법적 문제에 직면한 소기업, 1차 생산자 및 농민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지원
 -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Ending elder abuse) : 프로보노(자원봉사 법률전문가)와의 연계를 통해 후견인 관리, 재정적 학대, 부당 계약, 돌봄 계약, 차별 등의 법적 문제 해결 지원
 - 장애 인권(Disability rights) : 장애인의 취업, 교육, 주거, 공공서비스 이용 등의 차별에 관한 법적 지원
 - 난민과 이민자 권리(Refugee and migrant rights) : 난민 신청자의 사법 심사 과정 지원, 비자 취소와 거부에 대한 법적 지원
 - 성소수자 지원(Stage 2 hormone treatment) :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호르몬 치료와 관련한 지원
- 노숙자 지원(Homeless Law) :

노숙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해를 가하는 법률의 개정과 노숙인 당사자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함. 또한 노숙의 사전예방, 노숙자의 범죄예방에 관한 캠페인을 병행 추진함.
- 비영리 조직 지원(Not-for-profit Law program) :

전국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에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조직의 창립부터 해소에 이르기까지의 조직의 라이프 사이클의 모든 단계에 무료 법률 리소스를 제공함.

 - 조직 운영, 인적 자원 관리, 재무 보고, 리스크 관리, 산업안전보건, 차별, 개인정보보호 등
- 자기 변호 지원(Self Representation Service) :

법정에서의 변호 지원
- 건축 관련 법률 서비스(Domestic Building Legal Service) :

빅토리아 주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2016년에 국내건설법률서비스를 시작. 건축업자와의 법적 분쟁에서 주택 소유자를 지원
- 노인 지원(Seniors Law) :

의료서비스 등 노인이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통해 법률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노인에게 무료 법률적 도움을 지원

- 코로나 대응(Our COVID-19 response) :

공중 보건 위기 시 나타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함. 또한 원격근무, 서비스 중단, 고용불안과 안전의 문제 등에 직면해 있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대응 시행함.
- 재난에 대한 프로보노 대응(Pro bono response to disasters) :

호주 전역의 재난 피해 지역사회에 무료 법률 서비스 제공



Justice Connect 노숙자 법률팀이 2018년 개최된 Law Tech Challenge(법률 기술 챌린지)에 참여해 Dear Landlord(친애하는 집주인에게)라는 여성 노숙인 예방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다. 출처 hmstrust.org.au/case-studies/justice-connect

운영 주체

- 비영리단체

지원방식

- 호주 최초의 온라인 도구 개발 : 개인과 비영리 조직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도구 개발로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쉽게 도울 수 있게 됨.



호주 최초의 온라인 도구 개발 출처 justiceconnect.org.au

- 법률 지원(Legal Help Gateway) : 더 많은 개인, 비영리조직과 프로보노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적·효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법률지원플랫폼으로 2016년에 구글 챌린지로 선정되어 구글로부터 25만 달러의 지원을 받아 구축함.
- 10,000명 이상의 프로보노 연계 : 프로보노들은 2020년, 21년 51,000시간 이상의 법률 지원 활동을 했음. 1992년 Justice Connect가 설립 당시부터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음.

재정(예산)

- 지방정부의 목적성 기금과 민간의 기부, 후원, 협력사업비
 - 뉴사우스웨일즈(NSW) 정부의 사회 부문 혁신 기금 제공으로 NSW에 기반을 두고 조건(NSW의 사회 서비스 및 건강 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이 500만 달러 미만(2019-20년)인 모든 비영리 또는 자선 단체)을 갖춘 비영리 조직 및 원주민 커뮤니티 지원조직에 무료 법률 자문, 리소스 제공과 저비용 웨비나를 제공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직원, 후원자, 회원으로 구성

협력 방식과 대상

- 10,000명 이상의 무료 변호사, 50개 이상의 호주 유명 로펌 또는 법률팀이 연결되어 있음.

참여 대상

- 아래의 요건에 맞는 개인
 -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야 함.
 - 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자격이 없어야 함.
 -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야가 프로보노 네트워크 변호사의 전문분야여야 함 (형법, 가족법, 보상 청구 또는 비자 신청 외).
 - 성공 가능성이 있는 법적 문제가 있어야 함.
 -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함.
- 비영리단체 중 다음과 같은 경우
 - 조직의 개별 구성원이 아닌 조직을 대리·대표하는 사람,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람
 - 등록되지 않은 신생 단체가 아닌 경우 (신생 단체이더라도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단체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연간 수입이 적은 경우
 - 정부 부처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정치성과 독립성

- 프로보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님. 따라서 비영리단체, 노숙인 등 공익과 관련한 법 개정과 관련한 애드보커시 실행



출처 justiceconnect.org.au/



2022 vcoss 리스닝 투어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vcoss 최고경영자 엠마 킹
출처 vcoss.org.au/health-and-wellbeing/2022/09/voices-of-victoria

운영 주체, 의사결정

- 비영리 조직(company limited by guarantee)으로 사무국(5명)과 이사회(9명)로 구성
- 이사회 구성원은 VCROSS 구성원에 의해 선출되며 무급 자원봉사임.
 - 호주 자선 및 비영리 위원회법 2012(cth)에 따라 VCROSS는 매년 호주 비영리 위원회(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 ACNC)에 활동을 보고하며, 선출된 이사들은 ACNC에 등록되어 있음.

협력 방식과 대상

정책 및 연구
변화에 대한 현명한 정책 제안을 개발하기 위해 회원들과 협의, 증거 수집 및 동향 분석

공공 및 민간 옹호
관계, 영향력, 커뮤니티 연결 및 공개 프로필을 사용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빅토리아를 위한 캠페인 진행

커뮤니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회원 조직, 동맹국, 파트너 및 커뮤니티와 직접 협력

참여 대상 • VCROSS의 행동강령에 동의하는 조직과 개인

행동 강령(Code of Conduct)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 타인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해야 한다. · 우리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이해 상충을 인식하고 피해야 한다. ·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타인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 취득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 VCROSS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성과 독립성 • VCROSS는 어떠한 정당과도 관련이 없음을 홈페이지에 공지했음.



출처 vcoss.org.au/

이재정 리포터가 소개하는 동유럽 지원조직

리포터 인사이트

•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시민사회의 성장 동력과 지원조직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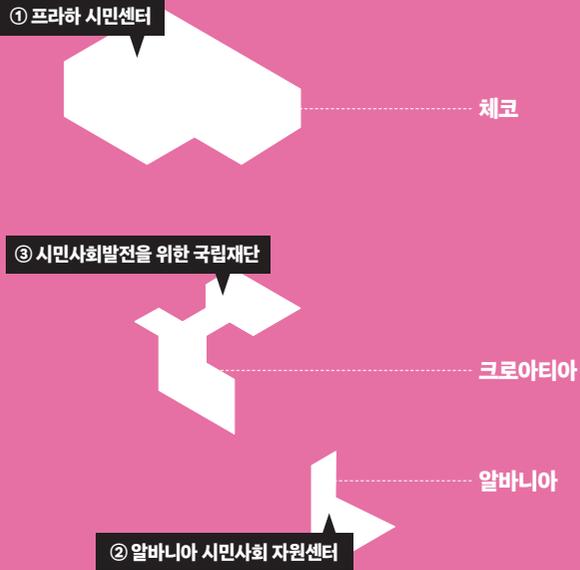
“동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 붕괴 이후 여러 변화와 갈등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인지, 지원조직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동유럽은 조사 범위가 넓은 만큼 어떤 국가와 단체를 소개할 것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캠페인의 참신성, 이뤄낸 성과, 운영 방식 등을 기준으로 한국 시민사회와 지원 조직에 인사이트가 될 만한 사례를 추렸습니다.

프라하 시민사회센터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캠페인과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가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언론인 등을 지원해 이슈를 발굴하고 홍보 효과를 높이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 활동사진, 각종 홍보 일러스트도 트렌디하고 감각적이었고, 동유럽 정세나 시민사회에 대해 기고한 비평 글들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시민사회 역시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센터의 지원사례들이 참고되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 시민사회지원센터는 여러 활동 중 CSO 표준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센터의 운영 주체인 Partners Albania는 2006년부터 표준안 마련에 대해 아이디어를 냈고, 2019년 센터가 설립된 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표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표준안의 제1원칙이 성평등 증진이라는 점을 알고 더욱 반가웠어요. 200여 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 만든 결과물인 만큼, 각 단체 역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죠.

크로아티아의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은 시민사회 지원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단의 기금을 확률성 게임에 대한 수익금 일부로 지원하는 방식은 더욱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동유럽 지원조직과 시민사회가 주로 유럽연합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 재정 조달 방식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내에서도 복권기금의 사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는 만큼 시민사회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재정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연대와 돌봄의 힘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는다. 대학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한 것을 계기로 운동(Movement)에 관심을 갖게 됐다. ‘미투운동’이 한참이던 시기에는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싸우는 여성들과 연대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입법노동자로 일하며 주로 성평등, 보건복지 관련 입법과 정책을 다뤘다.

Prague Civil Society Centre

프라하 시민사회센터

#체코

#기술

#창의성

#리더양성

기술과 캠페인이 만난다면?

“우리는 시민사회와 독립 미디어가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전역의 사회 변화와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시민단체와 독립 언론인이 커뮤니티와 연결되고, 새로운 청중에게 다가가고,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변화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 Lazarská 11/6 120 00 Prague 2 Czech Republic
- 🌐 www.praguecivilsociety.org
- ✉ info@praguecivilsociety.org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시민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독립 미디어, 연구원, 분석가, 예술가, 인플루언서 등)
- 다양한 전문가를 연결하여 기술과 결합한 캠페인 확산

설립

근거·목적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이 압력을 받는 일이 지속됨.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가, NGO, 언론인 등이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라하 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함.
- 프라하 시민사회센터는 조건과 관계없이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음.

주요 활동·연혁

혁신과 캠페인(Innovation & Campaigning) 프라하 전역에서 사회적 마인드를 가진 기업, 예술가, 디자이너, 언론인, 인권 옹호자 및 반부패 운동가 등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참가자 모아 캠페인을 추진함.

- **Unlock**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행동주의와 기술의 동향과 발전을 보여주는 시민기술축제
- **CampCamp** 예술가, 디자이너, PR, SMM전문가, 인플루언서, 팟캐스터, 언론인,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효과적인 캠페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행사

학습, 교환(Learning & Exchange) 국제 세미나, 펠로우십,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시민사회 대표, 연구자, 정치과학자, 예술가 등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함.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킹하도록 함.

보조금(Grants) 언론의 자유, 예술과 문화, 평등과 반차별, 인권과 법적 권한 부여, 민주주의, 성평등과 환경 등에 관한 프로젝트에 재원을 지원함.

- **Switch** 사회변화를 위한 기술의 사용, 메시지 확산, 공동체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보조금 사업. 해당 사업으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리프트 버스 실시간 추적 앱 개발, 혐오 표현이 포함된 텍스트에 밑줄을 긋고 설명과 대체 표현에 대해 제안하는 사이트, 젠더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젠더에 대한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 등이 진행됨.

운영 주체

창립 주체

- 폴란드 싱크탱크 공공문제연구소(Institute of Public Affairs)
- 노르웨이 조직 인권의 집 재단(Human Rights House Foundation)
- 체코 비정부 기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People in Need)

지원방식

- 보조금 사업을 통한 예산 지원
- 활동가 네트워크 강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재정(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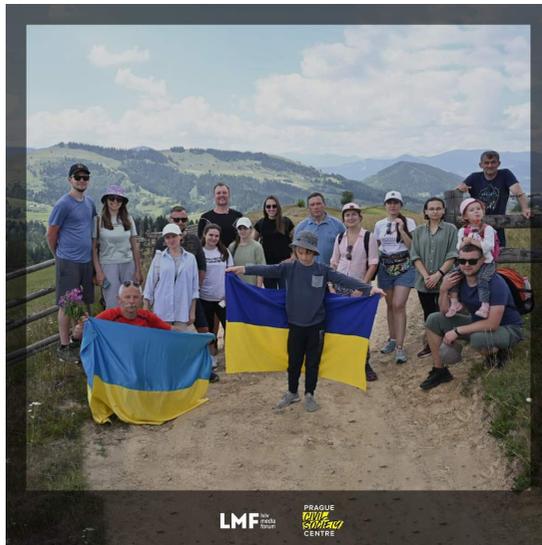
- 체코, 스웨덴, 영국, 미국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받음.
- 유럽위원회, 오크재단, 웰스프링 자선기금으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의장, 부의장 등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요한 의사결정을 담당, 그 외 감독위원회가 있고, 센터 상임이사, 부국장 등이 관리를 담당함.
- 협력 방식과 대상**
 -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12개국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있고, 중부 및 동부 유럽의 타 국가에서 온 전문가, 싱크탱크, 캠페인 활동가를 참여시키고 있음.
- 참여 대상**
 - 활동가, 언론인, 인플루언서, 변호사, 예술가, 디자이너, IT전문가, 사회적기업가 등
- 정치성과 독립성**
 - 프라하 시민사회센터는 동방 파트너십 국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압력에 저항하고 시민 이니셔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됨.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사회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선한 접근 방식을 찾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언론 기고,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단체임. EU의 우크라이나 연대를 주장하고, 이럴 때일수록 러시아 시민사회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언론인 등을 인터뷰하여 현지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

PRAGUE CIVIL SOCIETY CENTRE

출처
www.praguecivilsociety.org

우크라이나 언론인 지원 활동 모습
출처 www.facebook.com/praguecivilsociety



동유럽 ②

National Resource Center for Civil Society in Albania

알바니아 시민사회 자원센터

#알바니아

#플랫폼

#CSO표준안

알바니아 NGO '무엇이든 물어보살'

“알바니아 시민사회 자원센터는 더욱 효과적이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행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또한 센터는 시민사회, 참여 민주주의, 알바니아의 유럽연합 통합 과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센터 설립은 시민사회 섹터와 다른 이해관계자를 지원하는 Partners Albania의 수년간의 헌신적인 작업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 📍 Elbasan Street, PARK GATE, 10th Floor, Ap. 73, Tirana
- 🌐 resourcecentre.al
- ✉ info@resourcecentre.al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플랫폼으로 시민사회단체의 니즈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CSO 표준안을 마련한 노력

설립 근거·목적

- 알바니아 시민사회 자원센터는 투명성, 책임성, 독립성,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지원함. 또한 참여민주주의,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유럽연합으로의 통합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플랫폼임.
- Partners Albania가 센터 설립을 수년 동안 추진한 결과, 2019년 센터 설립이 이뤄짐.
 - Partners Albania는 2001년 설립된 알바니아 NGO로 민주주의 강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시민사회를 지원하고,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주요 활동·연혁 **상담 서비스(Help desk services)**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상담 서비스를 통해 요구사항을 해결함(예 : 조직 개발, 내부 정책 및 절차, 새로운 NPO 등록, 재무 관리, 법적·세무적 처리, EU 자금 조달 등에 대한 해결방식 제시).

커뮤니티 개발 시민사회단체 간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국가-지역-시민사회단체 등의 모든 이해 관계자가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이벤트를 조직함.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각 조직의 서비스, 활동, 자원 등을 소개하고, 정부 기관, 기부자, 기업, 미디어 등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개발함.

역량 강화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 for CSOs) CSO 아카데미, CSO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EU 통합에 대한 CSO를 위한 정보 공유 등을 진행함.

책임감과 투명성 대한 CSO 표준안 마련(CSOs Standards on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2년여에 걸쳐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적극적인 협의 과정을 거쳐 알바니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표준 규정(4가지 기본 원칙, 7가지 약속)을 제정해 발표함. 이를 통해 비영리 조직의 업무 효율성, 좋은 거버넌스, 투명성 및 책임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 규제 메커니즘을 도입함.



CSO 표준안 제정과정

출처 resourcecentre.al

알바니아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표준 규정
(4가지 기본 원칙, 7가지 약속)

[4대 원칙]

- NPO 구성원은 보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성평등 증진을 주요 가치로 한다.
- NGO는 정의와 평등을 촉진하고 옹호한다.
-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 환경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7가지 약속]

- 개방적이고 투명한 조직 • 파트너십 지향 조직 • 좋은 거버넌스
- 조직의 정직성 • 자금조달, 기금마련, 자원관리의 윤리성
- 책임 있는 옹호 활동 • 잘 관리된 인적 자원

애드보커시(Advocacy and Policy Dialogue) 알바니아 CSO를 위한 법적, 제도적 환경 조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정책 제안, CSO 네트워크 지원, 전국시민사회협의회 간담회 개최 등 진행함.

운영 주체 시행기관

- Partners Albania(파트너 알바니아)
- Albanian Center f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ACPD, 알바니아 인구 개발 센터),
- European Movement in Albania(EMA, 알바니아 유럽운동)

지원방식

- CSO 요청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 CSO 네트워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CSO 관련 정책 애드보커시

제도적 조건

- Partner Albania가 운영을 맡음.

재정(예산)

- 유럽연합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Euclid(유럽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BCSDN(발칸시민사회발전네트워크), ECAS(유럽시민행동) 등 유럽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협력함.

- 참여 대상**
 - 시민사회단체 구성원, 정부, 기업, 미디어 등 이해관계자

- 정치성과 독립성**
 - 오랜 기간 공산주의 독재정권 지배하에 있었던 알바니아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음. 1990년대 초반 민주주의 체제를 수립하기 시작했고, 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NGO가 생겨나기 시작함. 2013년에는 시민사회 강화를 위한 법 제도가 마련되었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센터가 설립됨.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센터는 알바니아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민사회 간의 협의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도출하는 등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음. 특히 CSO 표준안은 최대 200개의 시민사회조직과 온오프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작업 그룹이 참여하여 작성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초안 작성에만 2년 반이 소요되었고, 여러 협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합작품임.



출처 resourcecentre.al

동유럽 ③

National Foundation for Civil Society Development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

- #크로아티아
- #국립재단
- #시민이니셔티브

‘시율법잡(시민사회를 위해 쓸데 있는 법제도 잡학사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은 크로아티아의 시민사회를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 부문의 지속 가능성, 부문 간 협력, 시민 이니셔티브, 자선 활동,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사회의 민주적 제도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에 전문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 📍 ulaz iz dvorišta zgrade Bužanova 24a
- 🌐 zaklada.civilnodrustvo.hr
- ✉ alf@zaklada.civilnodrustvo.hr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크로아티아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노력과 공공재단의 역할

설립 근거·목적

- 2003년 10월 16일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채택된 특별법에 의해 크로아티아 공화국이 설립한 공공재단임.
-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국립재단은 크로아티아의 시민사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재단은 목적 달성을 위해 비영리 부문의 지속가능성 촉진, 부문 간 협력, 시민 주도, 자선 사업,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의 민주적 제도와 목적 달성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전문가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

주요 활동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 시민사회단체 프로젝트, 프로그램 수행, 조직 발전 및 안정화에 재정적인 투자를 진행함. 재단 차원에서 재정지원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수혜자를 관리하고 있음.

시상(Awards) 아동·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시상, 사회혁신 상, 참여 민주주의 상 등을 수여함.

개발 협력(Development cooperation) 크로아티아 이외 국제적 수준의 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진행해옴.

협력 프로그램(Programme cooperation) 지역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EU 프로그램 지원 시민사회 조직이 EU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커뮤니티 잠재력 프로그램 크로아티아 전역의 88개 지방자치단체, 43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잠재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함.

운영 주체 •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가 설립한 공공재단

지원방식 • 시민단체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
•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상 및 장학금 수여, 연구 수행 지원
• 유럽 및 국제 기금과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젝트 재정 지원, 자금 조달 등

제도적 조건 • 시민사회발전재단법(2003년 10월 16일,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채택)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됨. 재단은 국내외 기타 기부금과 법인, 자체 활동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공공 혼합 재단의 범주로 분류됨.

재정(예산) • 재단 설립 기본자금 200만 쿠나(약 3억 5800만원)는 확률 게임, 경품 게임 수익금의 일부로 조성되었음. 그 외에도 확률 게임 수입 일부와 국가 예산에서 자금이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음. 유럽연합 CARDS 프로그램 내 재정 지원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있음.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재단 이사회는 국가 행정 기관(재무부, 유럽통합부, 과학, 교육 및 체육부 등 3명), 지방 및 지역 자치 정부(1명), 시민사회발전 조직 및 전문가(5명)로 구성됨(총 9명). (시민사회발전법 제5조 3항 근거)

협력 방식과 대상 •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NGO를 위한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사무소, 시민사회발전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력함.
• 유럽연합과도 관계 유지를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참여 대상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정치성과 독립성 • 1990년대 초 크로아티아 독립 이후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됨. 초기에 크로아티아 정부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영국, 네덜란드, 미국 등의 지원을 통해 차츰 시민사회가 확대됨. 2000년대에 들어 정부 중앙 집중식 지원 모델에서 탈피하여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지속해서 지원할 독립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단 설립이 추진됨. 재단의 지속적인 재정 확보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발전재단법뿐만 아니라 확률성 게임 및 수상 게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함.
• 크로아티아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시민사회 지원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음. 크로아티아에는 NGO를 위한 크로아티아 공화국 정부 사무소, 시민사회발전협의회 등도 존재하며, 재단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최근 몇 년간 크로아티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자그레브 지역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함. 당시 재단은 시민사회조직과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유연한 대응을 통해 일상 회복 지원에 집중함.



2030 시민사회 의회
출처 zaklada.civilnodrustvo.hr

이종민 리포터가 소개하는 미국 지원조직



③ 한국 원성동은 10명이다

이종민 리포터 미국 지원조직

이종민 노회찬 재단 부장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수많은 사람의 다양한 활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찾아다닙니다. 배우고 비교하고 분석하기 좋아하는데, 현장에서 활용할 기회가 생기면 정말 행복합니다. 혼자서 부족한 더 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는 저의 활동입니다. 지금은 사회적 약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기에 앞서 그들과 함께 비를 맞기를 자처했던 노회찬 의원에 이끌려, 노회찬 재단에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와 더 나은 활동이 만나는 것을 더 나은 내일이 오기를 상상하면서요.

리포터 인사이트

- 현장의 필요와 연대를 집합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영리와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가진 미국 지원조직

“이번 조사는 미국의 비영리·공익 활동의 주체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는지를 살펴보는 산책 같았습니다. 시민권 운동의 오랜 역사, 활발한 자원봉사와 자선활동, 기업과 개인의 적극적인 기부 문화. 미국에서의 비영리·공익 활동은 우리나라에서의 활동보다 수월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비영리·공익 단체와 활동가들도 한국의 단체와 활동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NPO 지원 생태계를 둘러보면서 한국의 NPO 지원이 의외로 잘 갖춰져 있었다는 뜻밖의 놀라움이 컸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비추어보며, 우리의 지원 조직이 독립성 부족과 정치적 입김으로 인해 비영리·공익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각개 단체가 서로 연대해 현장의 필요를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집합적으로 해결하며 지원 조직을 만든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개별 단체들과 중간지원조직 간에 존재하는 거리감도 아쉬움 중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영리 기업과의 활발한 파트너십을 가진 미국과 달리, 한국의 비영리·공익 생태계 조성에서 영리 주체와의 협업이 희미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와 미국의 사회적 토양이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이번 리포트가 우리의 사회적 토양에 걸맞은 비영리·공익 활동 지원 체계를 만드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501Commons

비영리 지원재단 501 커먼즈

#자발적_결성

#지속가능한_비영리_공익활동_지원체계_사례

현장의 작은 필요를 연대의 힘으로 해결하며 성장한 비영리·공익활동 지원 생태계

-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단체가 자신들의 미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공익 단체가 자발적으로 설립한 지원 단체
- 비영리·공익활동에서의 적극적인 기술 활용 방법, 효과적인 모금, 지지자와 후원자, 협력 파트너와의 효과적인 소통 방법, 재무 관리, 비영리·공익활동 활성화 정책 개발 및 로비, 사회성과 달성을 위한 비영리·공익 단체 간의 거버넌스 조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 📍 501 Commons, Pacific Tower, Suite 1101, 1200 12th Ave. S, Seattle, WA 98144
- 🌐 www.501commons.org
- ✉ info@501commons.org
- 📘 www.facebook.com/501Commons
- 🐦 @501Commons

소개 이유

-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설립 배경 및 현재 활동의 방향성과 내용에 상당 부분 부합하지만 각 단체의 자발적 결성 노력을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기능을 집약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 제공하고 있음.
- 행정의 개입 없이 민간의 독립적 노력으로 결성되고 유지되는 부분이 향후 지속가능한 NPO 지원조직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함.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설립 근거·목적

설립 목적

- 사람과 지역사회 모두가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영리·공익활동의 영향력을 널리 확산한다.

설립 배경

- 전문성 향상, 역량 개발, 모금 활동, 마케팅 등 기타 조직 역량, 개인 구성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비영리·공익 활동 단체 및 기관이 영세하거나 넉넉하지 못한 재원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영리·공익 단체들이 역량 개발 지원 및 비영리·공익 활동 활성화 정책 대응을 위해 501커먼즈를 설립함.

주요 활동·연혁

연혁

- 1989년 미국 비영리·공익 단체 네트워크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워싱턴 지부(Executive Service Corps)로 시작
- 1999년 ‘엔파워’(NPower) 설립. 워싱턴 주, 오레곤 주 소재 1,200개 이상의 비영리·공익 단체의 활동가와 자원봉사자 대상으로 IT기술활용 컨설팅 및 교육 훈련 제공
- 2010년 지원 방법 및 분야, 단체의 역할을 변경하고 확장하면서 501커먼즈(501Commons)로 단체 이름 변경
- 2012년 비영리 얼라이언스(Alliance for Nonprofits)의 프로그램과 활동, 엔파워 노스웨스트(NPower Northwest)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흡수하면서 재단 기능 강화. 현재 미국 북서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단체에 공익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 2021년 북서태평양 및 미 전역의 700여개 비영리 기관·단체와 함께 1,100여개 중·소규모 비영리·공익 단체 지원

주요 활동 (2022년 8월 기준)

- 501커먼즈 IT 기술 역량 강화 교육(501 Talks Tech trainings)
 - 비영리·공익활동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저비용 IT 툴 제공과 활용법 교육
 - 웨비나로 진행
 - 웹사이트 운영·관리, 구글애드워즈, SNS, 단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검색 엔진 최적화, 프로젝트 관리 및 협업 툴,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모바일 기술, 이메일 활용 등

- 비영리·공익 단체 이사진 리더십 향상 교육(Board Leadership Series)
 - 비영리 조직 리더십 역량 향상 교육, 비영리·공익 조직 운영 및 컨설팅, 현장 활동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의 워크숍
- 비영리·공익 단체 활동가 및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Nonprofit Staff & Leadership Training)
 - 실무 전문 역량 및 팀 조직 리더십 역량을 위한 밀도 있는 교육
 - 다른 단체·조직의 구성원과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역량 강화
 - 팀 내 구성원 관계 유지, 다양성, 포용성 함양, 공감 및 감성 지능 향상, 팀 운영 리더십 기법, 팀 내 소통 방법, 팀 내 갈등 관리 및 문제해결 대화 방법
- 비영리·공익 단체 리더 포럼(Executive Directors (ED) Forums)
 - 비영리단체의 리더 간 논의와 협의를 위한 포럼으로 세 번의 원탁 토론으로 구성
 - 비영리·공익 활동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와 해결을 위한 노력·방안에 대한 공유와 공감, 전략적이고 실무적인 팀의 공유 및 서로의 자원을 활용한 협업 방법 모색
- 비영리·공익 관련 옹호 활동 워크숍(Nonprofit Advocacy)
 - 비영리 활동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옹호할 책임이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워크숍 추진하여 함께 토론하고 학습함.
 - 501커먼즈, 더욱 굳건한 옹호 활동을 위한 정의의 연대(Alliance for Justice's Bolder Advocacy), 어린이 연대(Children's Alliance), 워싱턴 주 비영리 연합회(Nonprofit Association of Washington), 아시아를 위한 상담과 소개 서비스(Asian Counseling and Referral Service), 윈윈 네트워크(Win/Win Network) 공동으로 주최함.
- 성공하는 비영리·공익 활동 마케팅 부트캠프(Thrive Marketing Bootcamp)
 - 비영리·공익 활동에 필요한 마케팅 관련 집중 부트캠프
 - 실무에서 유용한 마케팅 기법에 대한 1:1 피드백 방식 교육으로 비영리·공익 단체 창업자, 비영리·공익 활동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모금 기획자 등이 참여함.
- 비영리·공익활동 관련 워싱턴 주 노동 법률 현장 교육(Navigating Worker-Related Rules in Washington State)
 - 비영리·공익 활동 관련 노동 법률에 대한 이해와 현장 적용
 - 프로젝트 참여 유급 인턴 관련 노동법, 자원봉사사 안전·보건 법률, 재택근무 시 사고 안전·예방 프로그램 해당 및 적용 여부, 기타 근로 기준, 안전 및 보건 규정, 근로 보상 관련 법률 등



501커먼즈 비영리 리더활동가 리더십 및 조직 운영 역량 강화 워크숍 출처 www.501commons.org

지원방식

주요 프로그램

- 비영리·공익활동가 리더 역량 강화
 - 리더십 개발 코칭
 - 중·상위 리더십 자문 및 소집 교육
 - 활동가·리더십 학습 프로그램, 모금 역량 교육, 스텝 역량 강화
 - 비영리 활동 정보·자료 공개 아카이브, 무료 자문, 무료 방문 자문 지원
- 조직 역량·지속가능성 강화, 지원, 컨설팅
 - 재무 및 세무 지원 서비스
 - 조직 운영, 거버넌스, 전략 기획 지원
 - IT기술, 데이터 시스템, 협업 환경 등 기술 지원
 - IDEA 원칙¹⁵을 기반으로 한 인·인재 개발 지원
- 지역사회 활동 협력 및 참여
 - 지역사회 변화 육성 및 촉진 활동 지원
 - 비영리 활동가·리더십의 옹호 활동 역량 교육
 - 지역사회 프로젝트 비용 지원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 교육
 - 미국 워싱턴 주 비영리활동·단체의 지역 모금 활동 플랫폼 제공

¹⁵ 포용성(Inclusiveness), 다양성(Diversity), 형평성(Equity), 접근성(Accessibility)



501커먼즈가 운영하는 비영리 활동 모금 캠페인 플랫폼 출처 www.501commons.org

- 제도적 조건**
- 미국 연방법 501(c)(3) 연방세 면세 해당 단체
자선, 과학, 공익, 문학 교육 등 기타 명시된 목적을 위해 설립되고 이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기관. 단일 집단 또는 법인의 기증 등 주요 자금 출처를 보유하고, 직접적으로 공익·자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비영리·공익 단체
 - 민간 위탁 제도 등과 무관하며, 일반적인 비영리·공익·자선 단체 설립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 세무 처리, 활동을 진행
- 재정(예산)**
- 예산 규모 : 1년 기준 약 65억 원(500만 달러)
 - 주요 지출 : 프로그램 운영 89%, 운영비 10%, 모금 활동 1%
 - 수입처 : 프로그램 및 서비스 비용 60%, 기부금 및 지원금 30%, 투자금 5%, 기타 5%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사무국** 약 50명의 staff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더십팀, 운영·총무팀, 비영리 운영 지원 서비스팀, 비영리 재무 지원 서비스팀, 비영리 기술 지원 서비스팀, 지역사회 참여팀 등이 있음.
- 이사회** 12명이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501Commons가 비영리 부문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법적·재정적·윤리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학자, 경제인, 단체리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문가 자원 활동 그룹(Executive Service Corps Members¹⁶)
501커먼즈는 ESC 네트워크 소속 단체로서 ESC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자원) 전문가로부터 비영리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경험 등을 제공받고 있음.

외부 거버넌스

-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비영리 네트워크 리더십 위원회(Executive Service Corps Leadership Council, ESC) : 외부 자문 위원회
- ESC와 501커먼즈 사무국이 함께 501커먼즈 회원 단체의 성장과 활동 지원에 대해 협의하고 결정

협력 방식과 대상

- 협력 대상 : 16개 단체와 협업 파트너십 관계**
- 정의를 위한 연대(Alliance for Justice)
정치·제도적 민주주의 과정에 비영리·공익 단체와 재단의 전국적 연합인 '정의를 위한 연대' 소속 단체로 협력. AFJ의 의제를 시애틀 정치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옹호 활동 및 로비 전개
 - 보드 소스 (BoardSource)
2017년 '비영리 전국 컨퍼런스(2017 National Conference)'부터 협력. 비영리 활동 관련 법, 규제, 예산 등 관련 제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치 로비 활동 협력
 - 비영리·공익 활동 역량 강화 협력(Capacity Builders)
워싱턴 주 소재 22개 비영리·공익 단체(보드 소스, 소셜벤처파트너스 외 20개 단체)와 비영리·공익 활동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 설계, 운영 등 협력
 - 시애틀 디지털 형평성 프로젝트(City of Seattle Digital Equity Workgroup)
시애틀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는 사회운동 협력
 -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비영리 네트워크 본부(Executive Service Corps of the United States)
비영리·공익 활동가 및 단체의 활동 추진 역량 개발 관련 협력

¹⁶ 이그제큐티브 서비스 비영리 네트워크(Executive Service Corps). 미국의 전국적인 비영리·공익·자선단체 네트워크로서 26개 조직 1,600명의 비영리 리더활동가 회원이 전미의 1,000여 개의 비영리·공익 단체를 위해 약 10만 시간의 자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기브빅(GiveBig)**
지역사회 자선모금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등 협력
- **리더십 개발 파트너스(Leadership Development Partners)**
비영리·공익 활동에 필요한 리더십 개발 관련 전문지식, 기법의 개발 및 운영 관련 협력
- **워싱턴 주 비영리 협회(Nonprofit Association of Washington)**
워싱턴 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단체 네트워크
- **비영리테크네트워크(NTEN Nonprofit Technology Network)**
비영리·공익 활동을 위한 기술·개발전문가와와의 협력, 매년 비영리 기술·개발 컨퍼런스 협업
- **프로보노 전문가 집단(ProBono Professionals)**
- **활동가 개발 연합(Staff Development Coalition)**
2016년부터 501커먼즈가 후원. 연합으로부터 활동가 역량 강화 워크숍 관련해 협력 중
- **시애틀 공공선을 위한 기술(Seattle Tech4Good)**
기술 개발자와 비영리·공익 활동가 정기 포럼
- **테크소프 글로벌(TechSoup Global)**
비영리·공익 단체를 위한 저비용, 무료 소프트웨어 관련 협업. 비영리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 관련 협업 진행
- **킹카운티 연대(United Way of King County)**
2009년부터 킹카운티 '자원봉사 임팩트' 활동 관련해 협력. 킹카운티 자원봉사 프로그램 역량 강화 협력 중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워싱턴 주 자원봉사 센터(Volunteer Centers of Washington, Washinton Serves)
자원봉사 센터 추가 건립 및 기존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협력 중. '미연방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봉사 자금 지원을 받아 협력하고 있음.

- 참여 대상** • 비영리·공익 단체 및 활동가

- 정치성과 독립성** • 협력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프로그램과 단체의 운영은 대체로 회원 단체 또는 개별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고 있지 않음.
• 다만, 미국 연방법에 따라 비영리·공익 단체가 기부금에 대한 영수 처리 및 세금 공제 등의 회계 처리 등을 위해 반드시 501(c)(3)에 근거해 설립되고 활동하고 있음.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비영리·공익 활동의 제반 환경 및 인식 개선, 제도 개선과 보안을 위해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로비 활동¹⁷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영리·공익 활동 영역의 의제 집단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음.
• 활동 중점 가치(내적 지향성) : 존중, 접근성, 완결성 및 투명성, 파트너십(협력), 포용, 성과 중심
• 활동의 핵심 관점¹⁸, IDEA(외적 지향성) : 포용(Inclusion), 다양성(Diversity), 형평(Equity), 접근성(Accessibility)



¹⁷ 미국은 정치인 및 정당에 대한 정치 로비활동이 합법임.

¹⁸ 문화적, 인종적, 노동 형태 등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단체의 포용적 역량을 향상하는 기회이자 창구임을 인정함. 이러한 다양성으로부터의 포용적 접근을 위해 인종차별과 인종주의와 억압적 구조에 반대함.

National Council of Nonprofits

미국 비영리 지원 전국 협회

#민간주도의_자발적_설립

#비영리·공익활동에_관한_현장중심_메타연구

비영리·공익 단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비영리·공익 활동 활성화 문화 및 생태계 조성

- 미국 최대 비영리·공익 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 비영리 지원 전국 협회에 약 25,000여 개의 비영리·공익 단체가 소속되어 비영리 지원 활동 참여. 미국의 단위별 정부 조직·기관과 협력하며 비영리·공익 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며 지원하는 공익 정책 개발 및 제안
- 비영리·공익 단체의 역량 개발 지원

📍 1001 G Street NW Suite 700 East Washington, DC 20001

🌐 www.councilofnonprofits.org

▶ www.youtube.com/user/natlcouncilofnps

📘 www.facebook.com/NationalCouncilofNonprofits

🐦 @NatlCouncilNPs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비영리·공익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느낀 각 단체가 현장에서 요구하는 공통의 필요를 구체화해서 작은 규모지만 효과적인 지원을 수행함. 지원 프로그램의 정착과 안정화를 거치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형태로 지금의 지원 형태를 완성해감. 이러한 지원 시스템과 조직 체계의 성장 과정은 지역 단위에서 비영리·공익 활동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는데 참고할만한 사례로 보임.
- 미국 최대 비영리·공익 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전국 단위 지원조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및 재정 기반 관련 참고

- 예를 들어 홈페이지로 보이는 정보를 출력해서 보기 좋도록 전환해주는 기능이 웹사이트에 구현되어 있는 등 협회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설립 근거·목적

설립 배경

- 미국에 등록된 비영리·공익 단체는 약 130만여개, 단체의 약 92퍼센트가 연간 100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활동하는 중소 규모 단체로 비영리·공익 활동 관련 정책 대응, 비영리·공익 활동 개선과 향상을 위한 연구, 비영리·공익 활동에 우호적인 문화 형성, 활동가의 역량 개발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공익 단체 및 지역 비영리·공익 협회가 자발적으로 모여 전국 단위 협회를 결성함.

미션

- 미국 내외의 네트워크에 속한 비영리·공익·자선 단체의 핵심 역할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며, 목소리를 높인다.

비전

- 공공선 실현과 추구를 위해 연대하고 영향력 있는 비영리·공익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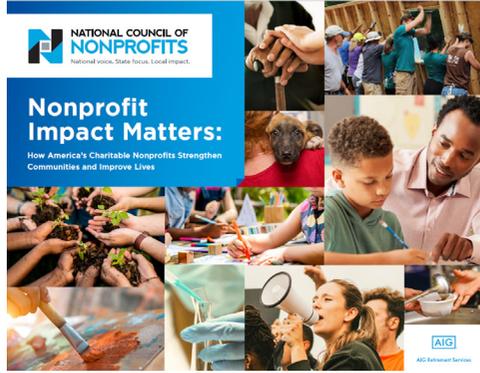
활동의 주안점

- 비영리·공익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정책 분석을 적시에 무료로 제공
- 비영리·공익 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활동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옹호 활동 전략 및 사례를 무료로 제공
- 비영리·공익 활동 현장에서 적용하고 활용하고 함의를 주는 정보를 실시간 적시에 무료로 제공

**주요
활동·연혁**

최근 주요 활동

- 연구 보고서 발간
 - 비영리·공익 활동 연구보고서 <비영리가 만든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Nonprofit Impact Matters)> 발간(2019)



미국 비영리 지원 전국 협회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비영리·공익 활동 보고서 표지 출처 www.councilofnonprofits.org

- 비영리·공익 활동 정보 아카이브 운영
 - 비영리·공익 활동에 필요한 주요 지표, 지수 등을 활용한 도표 및 정보 시각화 자료 제공
 - 정부 단위에서 제공하는 비영리·공익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제공
 - 기타 비영리·공익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비영리·공익 활동 관련 활자·숫자 등의 미가공 정보

연혁¹⁹

- 1983 130개 비영리·공익 단체 연합으로 설립
- 1986 the Philanthropy Project²⁰ 3년 프로젝트 활동 마감

¹⁹ 출처: 미네소타 비영리 지원 협회(전국 협회의 지역단위 지원 네트워크)
²⁰ 1983년 미국 전역의 130개 비영리·공익활동 단체가 기업, 공익재단의 공익활동 지원 체계를 개혁하기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미국 전국 비영리 협회로 발전하게 된 마중물 프로젝트로 볼 수 있음.

운영 주체 전국 협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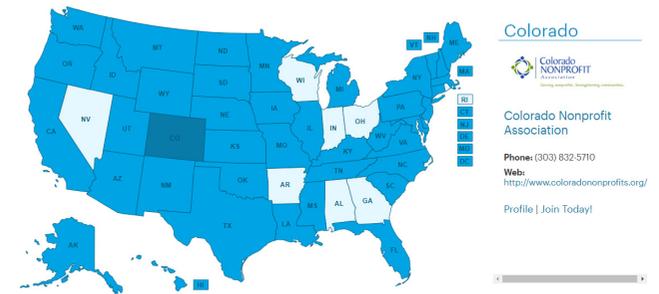
- 비영리 전국 협회 이사진 (의결)
- 비영리 전국 협회 임원진 (기획 및 전략)
- 비영리 전국 협회 사무국 (실무)

전국 협회 내 네트워크 구조

- 전국 협회 - 지역 협회 - 지역별 비영리·공익 단체

지원방식 주요 프로그램²¹

- 비영리·공익 활동 관련 정책 이슈, 트렌드 연구와 공유
 - 비영리 트렌드, 공공 정책 의제, 비영리 공익 위탁 정부 계약, 비영리·공익 조직 운영 거버넌스, 비영리 관련 세무법, 정부 예산 정책 등
- 비영리·공익 활동에 필요한 실무 지식 제공
 - 효과적인 실무 지식·방법론 등 발굴, 자료 제공, 사례 제시 등
 - 비영리·공익 설립 및 조직 운영, 재정 및 모금 운영 등 전문 정보 및 지식 제공
- 비영리·공익 활동에 대한 옹호 활동
 - 비영리·공익 활동 및 단체의 필요성 옹호 및 근거 제시, 오해 해소 등
- 지역 단위 지원 협회의 프로그램
 - 컨퍼런스,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장학금 등



미국 비영리 지원 전국 협회에 가입된 각 주별 비영리 지원 권역 단체 네트워크 정보 제공 출처 www.councilofnonprofits.org

²¹ 비영리·공익 활동 보조금 지급 형태의 지원을 수행하지 않음.

- 제도적 조건** • 민간 위탁 제도 등과 무관하며 일반적인 비영리·공익·자선 단체 설립과 관련한 미국 연방법에 따라 설립 및 운영, 세무 처리, 활동을 진행함.
- 재정(예산)** • **자원 마련 방법**
- 자원 제공처 : 개인 후원 및 기업, 단체 후원
- 자원 제공 형태 : 운영 보조금, 프로젝트 서포트, 프로보노 서비스, 현물 기부 등
- **자원 규모 (2020년 기준) 약 250만 달러**
- 기부금, 비영리·공익 단체 멤버십 후원 회비, 프로그램 운영 수익, 기업 후원, 투자 수익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8명)**
- 정부 관계자 없는 민간의 기업, 사회단체 소속의 이사로 구성
- 이사진 원소속 목록 : 비영리 향상을 위한 델라웨어 연합, 레노버 재단, TSNE 미션 워크, 플로리다 비영리 연합, 크레스지 재단, 노스캐롤라이나 비영리 센터, 사회운동 결성 프로젝트, 포레커 그룹
- **비영리 전국 협회 사무국 임원진(6명)**
- 비영리 전국 협회, 지역 협회 임원 및 관련 민간 비영리 재단 인원으로 구성
- 오클라호마 비영리센터, 몬타나 비영리 협회, 콜로라도 사회적 효과 기업, 뉴욕 비영리 협회, 클라크 재단, 비영리 전국 협회
- **비영리 전국 협회 사무국 운영진**
- 운영진 구성 : 사무총장, 정책팀, 커뮤니케이션팀, 네트워크 협력팀, 총무, 지식 공유팀, 전략 개발팀

협력 방식과 대상

협력 유형

- **비영리·공익 단체 파트너**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영리·공익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비영리·공익 관련 정보와 현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함. 네트워크는 지역의 비영리·공익 단체 활동가, 이사회 구성원, 기부자, 언론인, 연방·주·지역의 공무원, 입법 담당자 등이 비영리·공익 활동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미션 파트너(Mission Partners)**
개인, 자산가, 비영리 재단 등으로 연간 정기 후원으로 단체의 일반 운영, 정책 추진, 옹호 활동, 역량개발에 후원함.
- **기업 협력 파트너(Affinity Partners)**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활용해 비영리 위원회 네트워크 소속 비영리·공익 단체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

- **언론 협력 파트너**
New Associations, The chonicle of pilanthy, absnews bloomberg, winston-salem journal, government executive, savannahnow, crain's chicago business, npo, the nonprofit times, the huffington post, guidestar, stateline the oklahoman

- 참여 대상** • 미국 전체 약 25,000개 이상의 비영리·공익 단체 회원

- 정치성과 독립성** • 행정 기관으로부터 지원 없이, 민간의 재원으로 운영함.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미국 정부의 비영리·공익 활동 관련 정책, 입법 등에 있어 비영리·공익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로비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음. 실제로 정부 또는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비영리·공익 활동 활성화 및 옹호·지지를 호소하는 합법적 로비 활동을 주 역할로 수행하고 있음.



출처 www.councilofnonprofits.org

Fast Forward

패스트포워드²²

#기업과_함께하는_비영리_스타트업지원

#비영리·공익활동_지원에_대한_사회적성과_측정및추정

기업이 함께 키우는 비영리 스타트업.

영리와 비영리 우린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키운다!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스타트업이 기술과 비영리·공익 분야의 융합을 통해 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1004A OREILLY AVE SAN FRANCISCO, CA 94129-2600

www.ffwd.org

info@ffwd.org

www.facebook.com/ffwd

@ffwdorg

www.youtube.com/user/FfwdOrg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사회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기술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주요 기술 기업의 자원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비영리-영리의 협업을 기반으로 비영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례
- 기업이 후원금만 제공하거나, 비영리가 영리 기업의 사회활동을 대신 운영하는 일방향의 협업이 아닌, 영리와 비영리가 서로 배우며 인사이트를 얻고 같이 성장해가는 방식
- 미국의 활동 성과가 뛰어난 비영리스타트업 관련 정보 취득 용이

22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생태계 구축 벤치마킹 샌프란시스코 탐방 결과보고서 (서울시NPO지원센터, 2017) 함께 읽어보기



설립 근거·목적

-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비영리 스타트업. 기술 기반 단체 등에 지속가능한 비영리사업 모델과 최적의 기술을 융합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대상 조직의 성장을 지원하며, 가장 시급한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확대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가속화하고자 함.

주요 활동·연혁

주요 사회적 성과

- 액셀러레이팅 졸업 스타트업 70개 단체
- 후속 재정 후원액 총 357만 달러
- 비영리 스타트업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 수혜자 약 1억 500만 명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경험한 사회적기업 창업자 86%
- 유색인종 사회적기업 창업 비율 81%
- 여성 사회적기업 창업 비율 68%
-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적기업 창업 비율 28%
- 비영리/공익 창업 분야: 보건 27%, 시민공익 기술 20%, 교육 20%, 펜테크 10%, 인권 7%, 노동 7%, STEM 7%, 환경 2%

2021년 주요 활동

- 패스트포워드 아카데미(The Fast Forward Academy)
 - 기술 기반 비영리스타트업, 단체의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무료 강좌 시리즈
 - 비즈니스 모델 정의 및 구체화, 모금 방법, 조직 문화 조성 방법 등을 학습하고 성공한 기술 기반 비영리 기업 관계자와 함께 실습 중심의 워크숍 진행
 - 26개국, 1,000여명이 참가
- 테크기업 관계자 협업 캠페인(Employee Engagement Campaigns)
 - 블랙록(자산운용사)과 휴렛패커드재단의 직원이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230만 달러의 모금을 통해 40개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단체 지원
 - 블랙록의 경우, 전 지구적 감염병 이후 보다 '공정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활동 지원에 사용할 약 1백만 달러를 전 세계 임직원과 함께 모금
 - 휴렛패커드 재단은 모회사 휴렛패커드 임직원 28,000명 이상이 캠페인에 참여해 비영리·공익 활동의 사회적 성과 달성 방법과 철학을 함께 공부하고, 이들을 위해 모금을 진행. 기업 구성원과 비영리·공익에 모두 이로운 성과를 달성

-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데모데이
(The Startup Accelerator and Demo Day)
 - 패스트포워드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8기인 미국, 터키, 우간다, 인도 출신의 11개의 비영리·공익 스타트업팀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집중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함. 패스트포워드 졸업생과 기술 기업의 멘토로부터 코칭을 받음.
 - 전 세계 1,500명 이상이 11개팀의 사업 모델을 발표하는 데모데이에 참가
 - 블룸버그와 베이캣(BAYCAT)에서 11팀에 대한 미니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방송
- 피치 역량 강화 캠프(Pitch Camps)
 - 2021년에 비영리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창업자가 자신의 활동·사업 모델을 효과적으로 스토리텔링하여 자금 확보와 지원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치 역량 강화 캠프를 시작함.
 - 기술 기반 비영리 리더(사회적기업, 비영리·공익 스타트업), 패스트포워드 파트너사의 관계자(자원 활동)가 가상 공간에 모여 비영리·공익 활동 리더는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고, 파트너 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관점의 발견과 협업의 기회를 얻게 됨.
 - 총 다섯 차례의 피치 캠프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 관계자가 200시간 이상을 비영리·공익 활동가의 스토리텔링을 향상시키기 위해 코칭과 멘토링 진행

운영 주체

- 패스트포워드 이사회(7명)
- 패스트포워드 사무국(창업자 겸 사무총장, 전략 파트너십 및 모금, 프로그램 및 마케팅, 재무 및 총무로 구성)

패스트포워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패스트포워드 펠로우 및 현직 비영리단체 창업자와 함께 하는 세미나 2018 Fast Forward Accelerator @ Okta
출처 www.ffwd.org



지원방식

- 액셀러레이팅(핵심 활동)
 - 구글, 블랙록, 휴렛패커드 재단 후원으로 운영
 - 주요 내용 : 참가자당 25,000달러 지원금, 사회적 창업가 커뮤니티 형성, 기술 및 사회 영역 실전 전문가와의 멘토링, 기타 비영리 활동을 확대, 성장시켜줄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 역량 강화 프로그램(아카데미)
 - 이베이기업 재단, 컴캐스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 정보 아카이브
 - 기술 기반 비영리 활동 안내서(The Tech Nonprofit Playbook) : 기술 기반 비영리 활동의 시작, 확장, 성장에 관한 종합 안내서로 기술 기반 비영리 CommonLit, Beyond 12, and DonorsChoose.org와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 비영리 설립에 관한 지식 정보 제공
 - 패스트포워드 아카데미(The Fast Forward Academy) :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활동 리더들이 직접 전달하는 무료 강의
 - 주간 뉴스레터(Weekly Resource Roundup) : 주 1회 발간, 기술 기반 비영리 부문에 중요한 뉴스를 선별하여 제공·공익 활동 지원금 정보, 행사, 사회적기업 관련 뉴스 등의 정보 제공
 - 월간 뉴스레터(What's Good in Tech) : 월 1회 발간, 기술 기반 비영리 부문에 영감을 주는 뉴스, 경제 동향 등 제공
 - 패스트포워드 블로그(Fast Forward Blog) : 패스트포워드의 주요 행사에 대한 안내와 비영리 영역의 전문가 기고, 비영리 스타트업의 제품에 대한 소개 등
 -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활동 정보 도서관(Tech Nonprofit Directory) : 기술 기반 비영리 관련 정보 및 자료 열람, 비영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 무료 제공
- 네트워킹
 - 굿 글로벌 액셀러레이팅(Accelerate Good Global, AGG) : 패스트포워드의 공식 연례 글로벌 컨퍼런스,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활동의 사회적 성과와 변화의 방법, 사례, 사회적 요구, 트렌드 등을 함께 논의하고 정보를 나누는 연례 컨퍼런스
 - 채용 정보 Job Board : 500여 개 이상의 기술 기반 비영리·공익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취업 정보
- 자원봉사
 - 기술기반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여 단체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도움

- 제도적 조건**
- 민간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공익 활동 단체
 - 미국 연방법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501(c)(3) 해당

- 재정(예산)**
- 예산 확보 방법
 - 기부와 후원
 -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기금 조성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전략(2명), 개발자(3명), 엔젤 투자(2명)로 역할이 구분되어 있고, 주요 경력은 IT(5명), 비영리(1명), 자산운용(1명) 등임
- 사무국** 9명의 staff으로 구성

- 협력 방식과 대상**
- 기술기반 기업과의 협력 : Google, BlackRock, Hewlett Packard, Dell, Bloomberg 등의 기업과 협력하여 재정적 협력과 비재정적 협력(교육, 기술 자문, 기업의 협력 네트워크 제공, 홍보 등) 추진
 - 패스트포워드 졸업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 초기 비영리스타트업과 공익활동에 대한 자문과 교육, 육성과정 참여

- 참여 대상**
-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비영리·공익 스타트업으로 영리 목적의 스타트업은 지원 해당되지 않음.
 -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로 영리 활동 수반한 창업은 제외

- 정치성과 독립성**
- 패스트포워드는 독립된 비영리단체로 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활동함. 기업으로부터 재무적, 인적 자원과 관련한 지원을 받으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유지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사회문제해결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기술의 비영리·공익 목적 사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비영리사업 모델의 개발과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이 패스트포워드의 기술 기반 비영리사업 모델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음.

fast forward
accelerate good

출처 www.ffwd.org

미국 ④

Halcyon

할사이온 인큐베이팅

#사회성과목적창업지원

#사회적기업을_통한_사회성과_달성_모델_확산_지원

기업의 자산과 역량을 줄게, 사회적 성과를 실현해다오

사회적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육성. 사회적기업의 역량 강화와 모금 유치 등을 통해 성장과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형평과 포용성을 실현

📍 3400 Prospect Street, NW Washington, DC 20007

🌐 www.halcyonhouse.org

☎ +1 202-796-4240

✉ inquiry@halcyonhouse.org

📘 www.facebook.com/halcyoninspires

🐦 @HalcyonInspires

▶ www.youtube.com/halcyoninspires

📷 @halcyoninspires

소개 이유

- 비영리·공익 활동이 성취하려는 사회적 성과 실현에 대해서 기업, 투자사, 자산운용사 등 영리 기업과 공동의 이해를 마련하고 이들의 참여를 끌어낸 사례. 영리 기업의 자산과 역량을 비영리·공익 활동의 방향성에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이라는 추진 주체를 육성하며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하도록 만든 지원 모델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설립

근거·목적

설립 배경

- 투자자, 이사회, 고객만을 고려하는 협소한 관점의 기업 활동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구적 관점, 공동체적 관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 지속가능한 기업 활동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성과를 주요 동력으로 삼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느낌.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할사이온 인큐베이팅’을 설립함.

미션

- 사회성과를 만들어내는 사업(business)의 촉진

주요 지향 가치

- 기민(Nimble), 겸손(Humble), 위험부담에 대한 감내(Risk-tolerant), 육성(Nurturing), 낙관(Optimistic)

단체의 설립 철학

-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성과 달성 중심의 사회적기업 활동이 기존의 수익 중심의 영리 기반 기업 활동보다 우세하게 될 것
- 사회적기업은 노동 현장은 물론 한 사회의 사회적 가치로서의 형평과 포용성을 촉진하는 강력한 장치이고 기회로 간주
- 사회적기업은 자본주의 토대 위에 형성된 현대 사회가 미래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고, 21세기에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방법

연혁과

주요 활동

연혁

- 2011년 S&R재단 할사이온 하우스 매입
-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의 공간적 토대가 됨
- 2014년 S&R재단 내 부속 프로그램으로 ‘할사이온 인큐베이터’ 설립, 1호 사회적기업 창업자 모집
- 2015년 사회적기업 창업자 2팀 모집,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확장을 위해 조지타운에 위치한 ‘필모어 스쿨’ 건물 매입
- 2016년 예술 활동 기반 ‘12DC’ 프로젝트를 예술 주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선정

- 2017년 S&R재단에서 비영리단체로 ‘할사이온’ 프로그램 독립
- 비영리단체 ‘할사이온’ 설립
- ‘필모어 스쿨’에 ‘할사이온 아트 랩(Halcyon Arts Lab)’으로 전환
- 할사이온 예술 지원 프로그램 (입주 기반 지원) 시작
- 연간 혁신 포럼 ‘할사이온 다이얼로그(Halcyon Dialogue)’ 개시
- 2018년 여성 기업가, 창업자와 함께하는 간담회 시리즈 ‘패스트포워드(Fast Forward)’ 실시, 예술과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전시 컨퍼런스 ‘바이 피플(By The People)’ 개최(26,000명 방문), 해외 사회적기업 창업자 대상 ‘집중 인큐베이팅’ 첫 회 시작
- 2019년 예술과 사회적기업을 주제로 한 전시 컨퍼런스 ‘2019 바이 피플(By The People)’ 개최 (38,000명 방문), 380만 불 경제적 효과 창출
- 2020년 미연방 상무부와 함께하는 ‘집중 기회(Opportunity Intensive)’ 프로그램 1년 과정 첫 시작. 워싱턴DC 실험 구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창출 실험을 겸한 인큐베이팅 시작
- 2021년 블랙걸 벤처와 할사이온이 함께 ‘집중 펠로우(Intensive Fellow)’ 비영리 재단 김지 재단과 함께 ‘할사이온 소액 대출 펀드’ 출시. 사회적기업가의 지속적 지원. ‘할사이온’ 새 미션 발표 “사회성과가 주도하는 기업활동의 활성화”



할사이온 집중 기회 프로그램(Halcyon Opportunity Intensive)에서 사회적기업 디자인에 대해서 피칭하는 모습

출처 www.halcyonhouse.org

주요 활동

- **육성(Halcyon Incyator Fellowships) :**
 사회적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펠로우(social entrepreneur fellows)들을 1년에 두 차례 선발하여 지원
 - 합숙(Residency) : 2주간 무료 거주 공간 지원, 이 기간동안 멘토링과 리더십 코칭, 사업 컨설팅과 생활수당(\$10,000) 지원하며 합숙 기간에는 24시간 육성과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함.
 - 합숙 후(Post-Residency) : 할사이온의 작업장을 무료로 사용
- **맞춤형 집중 프로그램(Intensive Fellowships) :**
 특정 기업이 그룹을 위한 맞춤형 집중 프로그램으로 각 펠로우는 프로그램 시작과 종료시 일주일간의 합숙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 ‘Opportunity Intensive’는 정부가 지정한 워싱턴 D.C. 지역에 있는 「Opportunity Zone」에서 사업을 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회적기업 창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그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 국제 규모의 사례로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미국 국무부의 협력으로 추진되는 MENA Intensive로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에게 집중한다.
- **투자(Investing)**
 - 펀드(Halcyon Fund) : 펠로우들이 설립하는 벤처에 대한 투자를 위해 500만 달러 규모의 할사이온 펀드를 조성하여 현재까지 13개 벤처에 평균 10만 달러를 투자함. 할사이온 펀드는 투자 이전에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의 리스크를 상당부분 제거하여 투자의 위험도를 낮춤. 2022년 2월, 목표였던 500만 달러의 투자금이 조성이 완료되어 펀드는 마감되었음.
 - 엔젤스(Halcyon Angels) : 격월로 임팩트 엔젤스 투자자들에게 사회적기업 창업자들의 사업 설명을 들려주고 투자를 연결
 - 마이크로 펀드(Halcyon Microloan Fund) : 김지 재단의 지원을 받아 출범한 펀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워싱턴 지역의 벤처들에 시장 금리보다 낮고, 담보가 필요없는 \$25,0000 미만의 대출 시행



미국 워싱턴DG에 위치한 할사이온 하우스에서 생활하는 인큐베이팅 참여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와 커뮤니티 활동 모습 출처 www.halcyonhouse.org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성과

- 2020년 인큐베이팅 참여 사회적기업 창업가 25명(봄 12명, 가을 13명)
- 사회적기업으로 삶의 변화를 갖은 인구 2,550,607명
- 111개 사회적기업 참여
- 1802개 일자리 창출
- 여성 사회적기업 창업자 비율 59%
- 유색인종 사회적기업 창업자 비율 69%
- 사회적기업 투자 모금 1억 5천8백만 달러(누적)

운영 주체

운영 주체 : 할사이온 펀드 (Halcyon Fund)

사무국

- 임원 구성(3명) : 설립자 겸 사무총장, 재무 및 투자 최고 책임, 인큐베이팅 최고 책임
- 사무국(14명) : 인큐베이팅 개발 및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행사 기획 및 운영, 인큐베이팅 졸업자 커뮤니티 운영 및 HR, 프로그램 코디네이팅, 투자 매니저, 커뮤니케이션 및 프로그램 전략 기획, 운영 및 법무 업무

지원방식

- 펠로우십 기반의 사회적기업 창업자 육성
- 펀드 조성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제도적 조건

- 비영리단체
- 미국 연방법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 : 501(c)(3) 해당

재정(예산)

- 예산²³ (2020년 기준)
 - 총예산 : 약 355만 달러
 - 후원금 : 약 320만 달러
 - 프로그램 운영 수익 : 약 25만 달러

²³ 단체의 운영 보조를 위한 정부 보조금은 없음. 단, 정부 협력으로 진행되는 일부 프로그램(예 : ‘집중 기획(Opportunity Intensive)’)은 연방 정부로부터 약 150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함.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운영 이사회(12명)
 - 할사이온 펀드와 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새로운 기회의 창출,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 구축, 조직 문화 형성 등에 관한 협의와 의결
 - 참여 이사의 경력은 투자운용사(7명), 부동산(1명), 금융(2명), 비영리(1명), 법무(1명) 등
- 명예 이사회(12명)
 - 할사이온 펀드와 단체의 방향성, 전략, 운영 등에 관한 자문
 - 참여한 이사의 경력은 자산운용(5명), 부동산(1명) 비영리(2명), 상업(1명), 금융(1명), 기술(1명), 마케팅(1명) 등

협력 방식과 대상

- 기업 협력 파트너(32)

브레이스웰(Bracewell),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 LLP), 베이커보츠(Baker Botts), 캐피탈원은행(Capital One Bank),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딜로이트(Deloitte), 헬스웍스(Healthworx), 리아나앤마크카츠(Leana and Marc Katz), 앵번스타인(AB Bernstein), 세이지커뮤니케이션스(Sage Communications), 가이코 보험(GEICO), 캐서린앤톰팀슬리(Catherine and Tom Tinsley),뱅크오브아메리카-개인금융(Bank of America Private Bank), 에이치로앤유미쿠와나(Eiichiro and Yumi Kuwana), 토털와인앤모어(Total Wine & More), 나탈리앤라샤드무어(Natalie and Rashad Moore), 로버트히사오카(Robert G. Hisaoka), 케이시마츠이(Kathy Matsui), 바바라(Barbara), 호손인테리어(Hawthorn Interiors, Ltd), 마를라앤배리벡(Marla and Barry Beck), 로버트도이여(Robert Dwyer), 케이켄달앤잭데이비스(Kay Kendall and Jack Davies), 맥클린 가문 펀드(Macklin Family Fund), 웰스파고 은행(Wells Fargo), 아르투로앤힐다브릴렘버그(Arturo Brillembourg and Hilda Ochoa-Brillembourg), 리체코르로(Lizette Corro), 할림플라워(Halim Flowers), 화이자 제약(Pfizer), 코트니앤데이비드스트라우스(Courtney and David Straus), 존쿠폴레티앤다누타말리노바스카(John Cuppoletti and Danuta Malinowska)
- 정부 파트너(3)

미연방 상무부 경제개발청 (U.S. 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워싱턴DC 예술과 인간존엄성 위원회(DC Commiss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미연방 상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 비영리·공익 파트너 (7)

사치코쿠노 재단(Sachiko Kuno Foundation), 칼프리먼 재단(Carl M. Freeman Foundation), 이베이 재단(eBay Foundation), 김제이 재단(Kimsey Foundation), 번스타인 가문 재단(Bernstein Family Foundation), TD자선재단(TD Charitable Foundation), 하몬드 가문 재단(Hamond Family Foundation)
- 멘토, 파트너, 자문 협력(604)

협력 방식

- 자원 제공 및 투자, 모금 후원
- 인큐베이팅 참여 창업자 네트워킹 협력
- 워크숍 지원
- 인큐베이팅 및 HR 협력
- 사업 모델 테스트 베드 역할
- 멘토, 파트너, 자문

참여 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 창업자로 수익 창출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자선단체 및 100% 비영리는 제외함.

정치성과 독립성

- 민간 재원을 기반으로 설립된 점, 재정 보고를 비추어 볼 때, 정치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용이한 것으로 보임. 단, 재원의 대부분이 기업 및 개인투자자, 자산 운용, 금융 기업으로부터의 후원인 점으로 유추해볼 때, 시장(Market)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자선과 모금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순수 비영리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과 달성을 주목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사회적기업 방식의 비영리·공익 가치 실현을 기본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음.
- 사회적 성과 달성 방식의 기업 활동과 이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성을 실현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음.



출처 www.halcyonhouse.org

최형미 리포터가 소개하는 인도·인도네시아 지원조직

최형미 여성학자

영국 요크대학에서 여성학 석사를 하고 이화여자대학에서 여성학 박사를 마쳤다. 서구에서 페미니즘을 공부하며 아시아여성 정체성에 질문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아시아 아프리카 임파워먼트 프로그램(EGEP)에 통역과 미디어 담당으로 참여하며 30여 명이 넘는 아시아 관련 학자와 활동가들을 인터뷰해 신문에 실고 아시아 페미니즘 에코페미니즘 등에 관심을 집중했다. 감리교신학대학과 성결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등 여러 대학에서 여성학, 성평등리더십, 에코페미니즘 등을 강의하고 있다.



인도

① 케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리포터 인사이트

- 남아시아의 지역적 배경이 오히려 시민사회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하다.
- “인도네시아와 인도, 특히 남아시아 지역은 식민지 경험, 자연재해, 세계화에 따른 노동착취와 자연 착취, 정치적 불안 등 다양한 지역적 배경이 있다. 이러한 불안함은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경우 국가나 내부 개인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사회가 지지받기보다, 국제 사회 즉 외부에서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시민사회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Care Indonesia, Global Giving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런 기관들은 주로 기업과 연계되어 있었고, 글로벌 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계은행과 연계되어 있었다. 남아시아의 경우 자원, 노동력, 시장 영역에서 착취와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에만 의존해서 시민사회가 지원받는다면 중국에서는 글로벌 시장 메커니즘에 시민사회가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정치적 구조를 통해 재정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했다.

인도 NGO Support Center가 왜 활동을 멈추었는지는 질문의 여지가 있다. 이 조직은 경제적 지원보다 조직개선 리더십 개발 등이 주요 업무고, 현재 시민사회가 성숙하고 노련해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민사회가 교육 콘텐츠나 조직 변화보다 후원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기에, 재정의 어려움으로 활동을 멈춘 것으로 추정되어 안타까웠다. NGO Support Center가 리더십, 펀드레이징, 내부 갈등 해소 전략 등을 전문적으로 발굴해서 시민사회가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던 만큼, 재정 문제 등을 타개할 수 있는 전문 상담가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사례를 조사하면서 지원조직이 어떻게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지 또 정치적으로 특정 집단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공적인 것을 담당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보장받아 정치적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 지원기관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아시아 연구자로서 이번 트렌드 리포트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다. 제한된 조사로 현지 지역기관을 충분히 소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의 폭력과 착취에 목소리를 내고 거대 조직으로서의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작은 모세혈관처럼 섬세하게 시민들의 상황을 파악하는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런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의 역할과 필요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③ 트럭 여성 노동자 인터뷰

최형미 리포터 인도·인도네시아 지원조직

Care Indonesia

케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현지화

#위기대처

현지 상황에 따라 지역의 NGO를 활성화한 국제 NPO

Care Indonesia는 1967년 수하르토가 정권을 잡았던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단체다. 중앙 자바에 인프라를 설립하고, 식량 배급, 학교 급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엘니뇨 쓰나미 등 자연 재난에 인도주의적 대응을 해왔고, 2018년에 Yayasan Care Peduli가 인도네시아 국가기관으로 설립돼, 국가 우선순위라는 현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위기 대처, 재난 지원, 성평등, 사회적 포용(inclusion) 등의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 📍 Jl. Taman Margasatwa No. 26 Blok D, Ragunan, Pasar Minggu, Jakarta Selatan 12550 Indonesia
- 🌐 careindonesia.or.id/en/home
- ✉ info@careind.or.id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국제 자선단체인 Care Indonesia는 역사가 오래된 단체로, 군사독재, 민주화 운동, 쓰나미, 지진, 자연재해 등 굴곡을 겪은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변화를 추동해 왔음.
- 특히 재난과 가난은 중요한 이슈였고, 시대마다 의제가 변해갔음. 32년 군사 독재 국가였던 인도네시아 정부 아래서 Care Indonesia가 지속해서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했음.
- 이 단체는 2018년에 국제 케어에서 케어 인도네시아(Yayasan Care Peduli, YCP)로 현지화가 진행되었음. 이것은 자율성이 확보될 때 어떤 차이가 생겨날까 질문하게 함.

설립 근거·목적

- 1967년 학교 급식, 식량 배급 등의 의제로 인도네시아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시기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대통령(1945-1967 재임)인 수카르노가 주도하는 공산주의 국가였던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의 군사독재 대통령(1967-1998 재임)인 수하르토 주도하에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는 시기였음. 수하르토 쿠데타에 영향을 미쳤던 서구의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나 그럼에도 국제 사회의 인권 표준을 갖춘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보편 인권에 기여하고 있음.
- 비전: 우리는 빈곤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사는 희망, 포용, 사회정의의 세계를 추구한다.
- 미션: 빈곤 퇴치와 사회 정의의 창출을 통해 사람들의 회복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도주의 및 개발 행위자
- 핵심정책
 - Care 국제 보호 정책: 성희롱, 착취와 학대, 아동학대에서부터 보호
 - Care 국제 양성평등 정책
 - 사기와 부패에 관한 Care 국제 정책

주요 활동·연혁

가난과 싸우고, 사회 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힘씀

- 1967년 5월에 설립: 식량 배급, 학교 급식, 중앙 자바에 하부 구조 건립 등이 목적
- 1980년대 Care는 건강, 환경, 물, 위생 등 발전의 이슈를 확장하는 데 이바지했음.
- 엘니뇨, 쓰나미(2004), Padang 족자카르타의 지진, 그리고 최근에 Palu의 지진과 쓰나미 등에 대응함.
- 인권과 개발 이슈로 공동체에 잘 알려져 있으며, 현재는 위기 대처, 재난 지원 그리고 성평등과 사회적 포용(Social inclusion)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Care International in Indonesia는 2018년에 Yayasan Care Peduli(YCP)로 인도네시아 care 기관으로 전환되어 국가 우선순위라는 현지화에 대한 약속을 강화(2018)

주요 활동: 젠더 정의, 포괄적 사회, 재난대처

- 성평등과 사회통합(Gender Justice and Social Inclusion): 빈곤을 줄이고 여성과 소녀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권한 부여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방 정부, 민간 부분, 개발 파트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함.

- 재난 대응 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으로 지진, 쓰나미, 화산, 사이클론 등 지난 30년동안 매해 평균 289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약 8천여 명의 사망자와 강제 이주자가 발생함. 이런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대비를 비롯해 인도적 대응 및 복구, 위험 감소와 완화, 기후변화 대응, 재난 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의 다양화 촉진 등의 활동을 함.
- 파트너십 구축(Forging Partnership, Building Alliances) : YCP는 활동에 있어 현지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 12월 1개의 전국을 포괄하는 NGO, 3개의 로컬 NGO와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로컬의 NGO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공동대응을 위한 NGO 네트워크인 'JAPRI Wallacea'를 설립함.
- 코로나 대응(COVID-19 Response)

활동 사례들

- 세계 여성의 날 토크쇼 '10대 관점에서 바라본 성 역할' : 중고생들을 중심으로 이. 야기와 경험을 나누고, 학교나 집에서 모든 사람의 권리 증진에 대해 이야기함. 다양성, 평등 그리고 정의에 대해 이야기함. "성별 경계 허물기 토크쇼" (2022.3.30)
- 2018년 Sulawesi(술라웨시) 쓰나미 이후 4개의 취약한 마을을 지원. Yayasan Care Peduli (야야산 케어 브들리)가 진행된 프로그램은 취약한 집단이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음.



집 재건에 앞장선 여성 출처 careindonesia.or.id/en/home

- 운영 주체** • 민간단체
- 지원방식** • Care는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기업과 개인을 여성과 소녀들에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기반의 해결을 위해 투자함.
•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브랜드 및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비즈니스의 목적을 조성하기도 함.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후원자 위원회(Board of Patrons)
• 감독자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
• 운영자 위원회(Board of Management)
- 협력 방식과 대상** • Care는 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파트너십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 따라서 정부, 기업, 재단 그리고 기업가와 협력하여 개발 목표를 강화하면서 더 강력한 지역 사회를 건설하도록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함. "우리는 함께 평등한 세계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고 파트너들을 소개함.
- 참여 대상** • 자연 재난, 학교폭력, 직장 내 성폭력, 시골지역 여성경제 등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 활동한 것으로 보임, 성평등, 재난, 빈곤과 관련된 사람들이 참여하여 기업이나 개인 후원자가 연결됨.
- 정치성과 독립성** • 후원자들이 전 정부 공무원이었고 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특히 감독자 위원회(Board of Supervisors)가 모두 금융과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행정 독립성은 확보되었으나 글로벌 기업에 의존되어있는 것으로 보임.



출처 careindonesia.or.id/en/home

Globalgiving in India

글로벌기빙 인도

#인도

#최초의_클라우드펀드

#연결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서로 연결되어 영감을 얻고

후원자와 활동가나 단체를 연결하며 NPO를 도와주는 NPO. 2002년 최초로 클라우드 펀드를 진행한 공동체로 '다양한 계급 집단들을 연결'하여 지식과 자원을 돌출해서 서로를 돕는다.

📍 본사(미국) 1 Thomas Circle NW, Suite 800, Washington, DC 20005, USA

🌐 www.globalgiving.org/aboutus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NPO를 돕는 NPO, 2002년 최초로 클라우드 펀드를 진행한 공동체, '다양한 계급 집단들을 연결'하여 지식과 자원을 돌출해서 서로를 돕도록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지역공동체 주도의 변화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NGO 지원기관'임이 보이고, 사람들의 다양한 잠재력을 믿는다는 기관 소개 문구에서 새로운 평가나 개입방식을 기대하게 하였음.

설립

근거·목적

- 글로벌기빙은 NGO를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NGO를 후원자나 기업과 연결함. 국제적인 조직으로 세계 전역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세계를 더 좋은 곳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지지하고 있음.

설립가치

“위대한 생각은 어느 사람, 어느 곳, 어느 시간에도 나온다. 실패도 하지만 지속해서 데이터를 증가시키고, 규칙에 대해 질문을 하여 변화를 추구한다. 안주하지 않는다. 서로에게 감탄하기를 기대하며. 국제 감각을 갖춰서 다양한 계급 집단들을 연결하여 지식과 자원을 돌출하며, 서로를 돕도록 한다.”

주요 활동·연혁

- 1997년에 세계은행에 근무하던 마리 큐레이시(Mari Kuraishi)와 데니스 휘틀(Dennis Whittle)은 소중한 이슈와 아이디어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2000년 34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세계은행으로 불러 모아 실험적 모임을 개최했음.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우간다 여성에서 나사의 과학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는 것이 목적이었음. 마리와 데니스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계은행을 떠나 2002년 최초로 '클라우드 펀드 공동체'를 만들었음. 2002년 이후 1,611,068명의 사람들에게 지원을 받아 7억 4천 2백만 달러 이상을 모았으며 32,531개의 프로젝트 주제로 175개의 국가에서 일했음.
- 클라우드 펀드를 통한 사업을 진행함. 다양한 이슈를 나열하여 후원자들이 선택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함. 인도 글로벌기빙의 경우 2022년 9월 1일 기준 460개의 프로젝트²⁴가 리스트에 올라와 있음. 버려진 소녀를 돕거나 생리 건강을 지원하거나,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빈민가에 어린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이야기를 올리면 시민들은 그중에서 선택해 기부함. 이때 각각의 의제를 담당하는 특정한 단체를 지원해 그들이 관련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임.



소녀들의 월경 건강 지원사업

출처 www.globalgiving.org/projects/girls-health-and-hygiene-in-india

²⁴ 교육, 건강, 성평등, 경제성장, 아동보호, 정의와 인권, 식량안보, 코로나19, 정신건강, 기후행동, 안전한 집, 학대 종식,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 복원, 난민 권리, 깨끗한 물, 장애권리, 야생동물보호, 동물복지, 생식건강, 예술과 문화, 디지털 문맹퇴치, 인신매매 종식, 스포츠, 평화와 화해 등이 주제다.

- 운영 주체**
- 미국 글로벌기빙 창립자 2인 데니스 휘틀(Dennis Whittle)과 마리 큐레이시(Mari Kuraishi)
 - 위원들 12명
 - 영국 이사회 4명 등 총 83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음.

- 지원방식**
- 155개국, 7,000개의 조직에 140million dollar를 지원하고 있음. 창립자 마리는 글로벌 기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우리는 지역의 리더들을 지원한다.
 - 남아프리카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돌보는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이전에는 없었다).
 -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심지어 에어비앤비도 없을 때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하였다.
 - 지역 리더들을 신뢰하게 되면 조직의 디자인이 달라진다.
 - 과정을 최소화하고, 항상 개방적인 태도로, 좋은 아이디어는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듣고 행동하고 배우고 반복하고, 공부를 통해 배우기보다 행동하며 배우고, 감탄을 아끼지 않으며, 정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Globalgiving in India 현지 지원활동

Globalgiving은 인도를 수혜적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를 확장하고 활동의 주체성을 키우기 위해 현지 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함.

- 인도의 교육 사회 재단을 지원함. 예를 들어 프라임 교육과 사회재단(Prime Educational and Social Trust)은 글로벌기빙의 지원을 받아 취약한 여성들을 돕는 제나니 홈(Janani Home)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2년에 설립한 제나니 홈은 취약한 환경으로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소녀들에게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고 저녁에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지원함.
- 젠더폭력에 대항하는 운동을 펼치는 시민사회를 지원함. 예를 들어 인도의 풀뿌리 비영리단체인 라자스탄 삼그라 카리안 산스탄(Rajasthan Samgrah Kalyan Sansthan)을 지원하는데, 라자스탄은 2013년에 453명이 자살로 살해된 지역으로 강간과 가정폭력이 심각함. 시민사회가 여성들의 의식교육을 증진하는 일 등을 하고 있음.

· 인신매매 등으로 성매매시장에 유입된 여성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를 지원함. 인도는 120만 아동이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Snehalaya(스네할라야) 'Home of Love' 단체를 통해 아동들이 노예적 관계에서 빠져나오고 에이즈 등의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돕고 있음. Snehalaya는 인도 성매매 여성을 지원하는 곳으로 인도 성매매 여성의 75%가 문맹인데 이들을 임파워먼트하고 쉼터를 제공하며 직업훈련 및 스포츠와 여가 활동에 참여하도록 돕고 있음.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경영자, 재단, 보조금 개발, 프로그램 전략팀 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심사'팀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협력 방식과 대상**
-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221개²⁵가 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음.

- 참여 대상**
- 개인들, 우리는 안전하고 쉽고 재미있게
 - NPO :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도록
 - 기업 : 기업이 효과적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재단 : 광범위한 네트워크로 이전의 전통적 방식에서 빠져 있던 작은 단위의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됨.
 - 사회 부분 : 듣고, 행동하고 배우고 반복하라는 핵심 가치로 세계 사람들을 위해 원조와 자선 사업 작동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 수탁 팀(trusted Team) : 위기 대응 전담팀, 자선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다.

²⁵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3M, ArconicFoundation, Airbnb, BallCorporation, ChristianLouboutin, Cummins, Ford, GoFundMe, Google, JohnsonAndJohnson, KPMGFoundation, Meta, Microsoft, nbcuniversal, Nike, RiotGames, Salesforce, Twitch, UnitedAirlines, VMware, Zendesk, Zoom 등이 있다.

정치성과
독립성

클라우드 펀딩은 폭넓고 다양한 주제들을 연결하는데, 주로 기업에서 후원함. 이것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의 여지가 있음. 기업은 결국, 그 지역의 시장, 자원, 노동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런 점에서 시민사회를 지원하는 일이 정치적 독립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가 지위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소 경제를 통해서 빈곤속에 있는 여성 임파워링
출처 www.globalgiving.org/projects/help-start-a-micro-credit-program-for-50-women



출처 www.globalgiving.org

인도·인도네시아 ③

NGO Support Center (India)

인도 NGO 지원센터

#인도

#조직개편

#리더십

비영리단체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을 지원하다

- 📍 본사(미국) 32 Old Slip, 24th Floor New York, NY 10005
- 🌐 supportcenteronline.org
- 📘 (인도) www.facebook.com/ngocentreindia
- 🐦 (인도) @NgoCentre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소개 이유

- 인도 NGO 지원센터는 단체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기회를 주는 기관으로 교육자원을 통해 단체의 전략, 가치, 활동가 훈련 등을 지원함. NGO는 우리 사회의 가장 참여하고 급박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리더십이 요청되는 분야이나 다른 사회조직과 달리 재정, 조직, 행정 등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비판받기도 하고, 리더십 관련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함.
- 다른 기관은 주로 펀드를 중심으로 기업과 단체를 연결하고 있지만 이 기관의 활동은 중간지원조직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준다는 점에서 살펴봐야 할 조직이라고 생각했음.
- 심화 조사를 해보니 인도에서 이 조직은 2021년을 끝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 조직의 활동은 지원조직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여겨져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인도 NGO 지원센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플랫폼으로 활동하였음. 리더십 정상회의(2020) 등을 개최하고, 활동가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훈련 프로그램(2019)을 진행하였음. 이후 기회가 되면 NGO Support Center의 인도 현지 지원에 대해서 더 자료 조사 하고자 함.

설립 근거·목적 · 주제를 특정하지 않으며 전략, 가치, 활동가 훈련과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조직의 발전에 헌신하고 비전을 나누는 비영리단체 지도자들의 발전된 공동체를 그린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음.

주요 활동·연혁 **30년 이상 비영리 및 자선단체와 협력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함.**

- 전략 및 관리 : 전략계획, 조직 평가, 이사회 개발과 거버넌스, 조직 재설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속감 등을 개발하게 함.
- 경영진의 승계 : 리더가 바뀔 때 지속가능성과 성공을 위한 조직 역량을 구축하도록 돕기
- 전문성과 리더십 개발 : 모든 수준의 전문 직원, 이사회 구성원,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관리 및 리더십 주제에 대한 80개 이상의 저렴한 대화형 워크숍 제공
- 조직의 방향 설정(Navigation) : 비영리 리더와 조직을 연결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지원함.

운영 주체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외 12명의 위원 및 34명의 리더십 평의회로 구성됨.

· 대표 이사, 부대표 이사, 재무 및 관리 이사 프로그램 디렉터, 운영 부국장 등 총 9명의 멤버로 이뤄짐.

지원방식 **효과적인 계획과 전략 개발을 통해 조직이 기회를 잡고 변화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우며, 변화 전문가들(change expert)과 도구를 통해 비영리단체가 효과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

“우리는 조직 리더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략계획, 성장, 혁신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며 미래를 위해 운영환경, 조직 우선권, 실용적인 계획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발전시키도록 돕는다. 생생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실용적인 리더십과 경영 도구는 그저 선반에 앉아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략적인 계획이 당신이 참여하도록 돕고, 열정을 더욱 새롭게 창출할 것이고, 동의를 구축한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또한 투명성을 더욱 장려한다. 그것은 장기적인 목적으로 달성하기에 더욱 탄력적이고 반응이 빠른 조직을 창출한다.”

조직

- 조직평가와 개발 능력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내구성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성과를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 내부 기능과 외부 환경을 포함한 포괄적인 조직 평가를 통해 리더가 강점을 개선하고 조직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명확한 결과와 조언을 제안함.
- 거버넌스의 기본인 기금 모금, 평가, 계획, 재무 성과 및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필수 영역에 효과를 내기 위한 지원과 세부적인 조정 등 다양함.
- 이사회 구축 프로그램(Support Center’s Board Build program)을 제공함.

임원 코칭

- 비영리단체 리더 교육 제공. 참여자는 강력한 리더십 스킬, 향상된 전문 직원 개발, 중요한 조직 변화 탐색에 성공한다고 함.
- 임원은 이사회보다 생산적인 관계
- 중립적인 코칭 접근법이나 강의와 달리 자신의 길을 개발하고 문제에 대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창출하며 결과적으로 자기 행동에서 더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조직 재설계

- 파트너십, 협업, 합병 등 조직의 재설계를 지원함. 역량을 확장하고, 규모의 경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향상하며, 탄탄한 재무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 교육, 훈련, 상담 협업 등 각 단체가 중요한 서비스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활동
- 전략 파트너, 자금 제공자, 경험 있는 상담가, 법 전문가 등과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단체를 재구성 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함.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소속감

(Diversity, Equity, Inclusion, Belonging(DEIB))

- 지원센터의 기본 가치로 각 단체에 똑같은 교육이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각 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함.

맞춤형 교육

-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설계된 대상에 맞게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데 대화형 연습, 역할 놀이 사례연구, 기술 구축 극대화 등 다양함.
-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기술 육성과 함께 배우는 문화 생성을 위한 교육
- 개인화된 역량구축을 넘어 부서 간 조직 차원의 협업을 장려함.
- 리더십은 단순한 타이틀이 아니라 성실성 적응력 그리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강조함. 실습으로 자신의 리더십을 반성하고 진화할 기회를 얻게 하는데 35시간 5일간의 기술 기반 교육을 제공함. 정중하고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고 명확한 기대치를 정의하고 공유하며 어려운 대화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함.

NGO Support Center (India) 현지 지원활동

인도 NGO 지원센터는 2019년 12월 14일에 페이스북을 열어 활동을 시작함. 기업들과 정책 결정자 포럼을 개최하는 등 초기 활동을 활발했지만, 점점 활동이 줄어들었는데, 2022년 10월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인사를 하고 있음. 활동이 많지는 않지만, NGO 지원의 다양한 전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기업의 윤리적 책임(CSR)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여 NGO와 정책결정자들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관해 토론함. (2020.1)
- 새로운 인도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였는데 시민사회와 정부, 정책결정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일회용 플라스틱 없애기 등을 논의함. (2020.1)
- ‘마하마트 간디가 걷기로 인도에 자유를 찾았던 것처럼’을 슬로건으로, 매주 화요일에 뛰거나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방식으로 후원금 모금 행사를 진행함. (2020.10)
- 책 정리(book sorting) 활동 등으로 멤버들 간의 모임 기회를 만들어 활동을 재기하고 있음. (2021.1)



출처 supportcenteronline.org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외 12명의 위원 및 34명의 리더십 평의회로 구성됨.
 - 대표 이사²⁶, 부대표 이사, 재무 및 관리 이사 프로그램 디렉터, 운영 부국장 등 총 9명의 멤버로 이뤄짐.
- 협력 방식과 대상**
 - 파트너 단체²⁷와 함께 중소단위의 비영리단체가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함.
- 정치성과 독립성**
 - NGO Support Center는 교육이나 컨설팅 참여자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종종 관련 파트너 단체가 운영비를 지원하기도 함. 각 단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의뢰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보이나 남아시아와 같이 NGO가 외국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곳에서는 교육지원과 같은 것에 대한 수요가 적어 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임.



출처 www.facebook.com/ngocentreindia/photos/a.108214407301761/129661398490395



출처 supportcenteronline.org

²⁶ 대표 키이스 팀코(Keith Timko)는 비영리 부동산 개발 조직의 이사 겸 CEO였음.
²⁷ Altman Foundation, American Express, Bank of America, Booth Ferris Foundation, The Clark Foundation, Con Edison, Horizon Foundation of New Jersey, Hyde & Watson Foundation, J.M. Kaplan Fund, Johnson & Johnson, JPMorgan Chase Foundation, New Jersey Office of Faith-Based Initiatives, The New York Community Trust, New York City 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 New York City Department of Youth & Community Development, NYS Developmental Disabilities Planning Council, Prudential Foundation, PSEG Foundation, Robert Sterling Clark Foundation, SeaChange Capital Partners, Victoria Foundation, Wells Fargo, Westchester Community Foundation

지난 NPO 트렌드 리포트 돌아보기



2018
변화, 읽다

182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 답변과 18명의 심층 인터뷰를 토대로 비영리의 변화를 탐색하고 기록한 2018년 리포트 **[변화, 읽다: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NPO 국제 컨퍼런스(2017~2019) 발표 자료의 시사점을 정리하여 **[변화비책: 변화를 감지하고 이끌어내는 여러 가지 방법]** 아카이빙북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
변화비책

2020년 전 세계에 닥친 covid-19라는 팬데믹 위기에서 리포트는 '뉴노멀'의 형성 흐름에 맞춰 **[뉴노멀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활동 방식의 전환을 시도한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전환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영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2020
뉴노멀을 준비하는 방법

2021년 리포트 **[신호와 감지]**는 때로는 변화로, 때로는 위기로 읽히는 수많은 신호가 교차하는 이 시기에 누적되어 있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변화를 만들고 있는 반가운 신호를 발신하는 국외 시민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내러티브를 감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2021
신호와 감지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SNPO 2022-B-002)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리포터 김성환, 김재섭, 김정기, 박내현, 박아영, 안연정, 이가현, 이재정, 이종민, 최형미

디자이너 더디앤씨 www.thednc.co.kr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04523)

전화 02-734-1109

팩스 02-734-1118

메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www.snpo.kr

이 책의 내용은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록된 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사)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서울시 NPO 자원센터